차 례

제1장 나리꽃동산 ……………………………………………(3)

1. 이야기의 시작 ……………………………………………(4)
2. 빨룩이 ……………………………………………………(7)
3. 개미학교(첫날) …………………………………………(12)
4. 개미학교(두번째 날) …………………………………(17)
5. 첫 로동일 ………………………………………………(23)
6. 첫 모임 …………………………………………………(33)
7. 《우리는 개미다!》 ……………………………………(35)
8. 참깨 반쪽 ………………………………………………(44)
9. 늦벌레 끌어오던 밤 ……………………………………(51)
10. 노루발풀숲속에서 ……………………………………(55)
11. 억울한 눈물 ……………………………………………(67)
12. 사라진 달룩이형님 …………………………………(74)
13. 다시 만난 도루래 ……………………………………(82)
(1) 이상한 흔적 ……………………………………………(82)
(2) 만만이 함정 ……………………………………………(92)

제2장 할미꽃동산에서 …………………………………(100)

1. 열렬한 환영 ……………………………………………(101)
2. 장수집게벌레의 고민 …………………………………(110)
3. 《유쾌한》 춤노래 ………………………………………(116)
4. 이상한 풍경 ……………………………………………(122)
5. 6각집의 소동 ……………………………………………(129)

6. 속히운 빨룩이(1) …………………………………………(132)
7. 제 맘대로 동산 …………………………………………(145)
(1) 점벌레할머니 …………………………………………(145)
(2) 깜장도루래 …………………………………………(149)
8. 다시 만난 줄집게벌레 …………………………………………(153)
9. 장수풍뎅이재판소 …………………………………………(159)
10. 속히운 빨룩이(2) …………………………………………(167)
11. 거꾸로 된 판결 …………………………………………(178)
12. 깨달음이란 언제나 늦게
오는것인가 …………………………………………(192)

제3장 나리꽃동산의 동무들 …………………………(202)

1. 여물이 …………………………………………(203)
2. 검은 늪의 빨룩이 …………………………………………(214)
3. 돌바위틈에서 …………………………………………(221)
4. 공중에서의 싸움 …………………………………………(227)
5. 번데기가 되여 돌아온 빨룩이 ……………(230)
6. 장수집게벌레의 공격 …………………………………………(232)
7. 왕개미엄마의 결심 …………………………………………(237)
8. 깨달음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가 …………………………………………(241)
9. 할미꽃동산 부대 …………………………………………(245)
10. 소생한 빨룩이 …………………………………………(248)

제 1 장
나리꽃동산

한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습니다.

동산옆으로는 수정처럼 맑고맑은 시내물이 졸졸 흐르고 동산뒤로는 파란 잔디가 덮인 언덕이 병풍처럼 둘러서있었습니다.

이른봄이면 병풍언덕은 남자주빛 제비꽃이며 노란 꽃다지꽃들이 아름다운 수를 놓듯 꽃주단을 펼쳤습니다.

그뒤를 이어 하얀 냉이꽃, 노란 민들레가 피여나고 봄꽃이 지면 감홍색이나 진한 노란빛의 나리꽃들이 병풍언덕을 제일 아름답게 단장하였답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리꽃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나리꽃동산에 개미네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구가 무척 많았습니다.

개미네 가족은 원래 수십마리로부터 수백마리 혹은 수천마리가 넘기도 한답니다. 이 개미네 가족도 수백마리를 넘어 천여마리나 되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개미에게나 형제가 수십, 수백씩 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하지요?

그런데 그 많은 형제를 어떻게 다 구별할수 있을가요?

얼굴모양도 꼭같고 몸색갈도 꼭같아보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삭갈리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몸에서 내보내는 특이한 냄새향이 있기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의 얼굴생김이 일일이 다른것처럼 개미들의 몸에서 내보내는 냄새향도 다르답니다.

그 냄새향으로 개미들은 그가 누구라는것을 제꺽 알지요.

그들이 집을 떠날 때면 냄새향을 뿌리며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길을 갔다가도 자기의 냄새향흔적을 따라 정확히 제 집으로 찾아오군 한답니다.

개미의 머리에서 수염처럼 쑥 내민 두개의 더듬뿔은 방향도 잡게 하고 장애물도 피하게 하며 냄새도 알아낸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눈과 코 같은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그렇다고 개미들에게 눈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이나 여느 짐승들처럼 눈이 두개뿐인것이 아니라 겹눈과 홑눈이 몇개씩 있답니다.

아홉개의 홑눈이 모여 이루어진 겹눈은 먼곳을 보고 이마빡에 붙어있는 세개의 홑눈은 가까운 곳을 보지요.

개미들에게서 재미있는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수백수천마리가 제멋대로 와글거리는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생활에 규률과 질서가 엄격히 서있답니다.

한번 개미네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개미들은 굴에서 나올 때는 오른쪽으로 한줄로 서서 나오고 들어갈 때는 반대쪽으로 역시 한줄로 서서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우측통행을 하는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가겠다고 앞지르거나 힘들다고 뒤떨어지는 개미는 없습니다.

또 그 많은 개미가 한집에서 모여살아도 놀고먹는 개미는 단 한마리도 없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기가 맡은 일감이 있으니까요.

엄마 왕개미가 알을 낳으면 로동개미가 돌봅니다. 그들을 보모개미라고 부르지요.

그들은 새끼들이 알에서 까나오면 왕개미엄마가 주는 젖도 받아다 먹이지요.

로동개미들중에는 먹이를 모아들이는 개미들이 제일 많습니다.

또 집을 지키는 보초병 개미들도 있습니다.

보초병 개미를 병사개미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턱은 로동개미들의 턱보다 두배나 크답니다.

그 크고 굳센 턱으로 나쁜 놈과 싸우고 개미동산을 지키지요.

자, 이제는 개미들의 생활에 대해 조금은 알만 하지요?

그럼 이제부터 그 개미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빨룩이라는 갓 태여난 개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공 빨룩이는 아직 태여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이 애기개미들이 태여나는 날이였습니다. 엄마 왕개미가 낳은 하얀 알에서 두달만에 새끼개미들이 까나오지요.

개미동산은 이날이면 명절처럼 흥성입니다.

이날만은 로동개미들도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알에서 까나오는 숱한 애기개미들을 받아야 하니까요.

보모개미들은 새끼들을 받으려고 이른새벽부터 깨끗이 몸을 씻고 알깨우기방에 와있었습니다.

그앞에 풀잎줄기로 엮은 큰 걸상이 있었는데 거기엔 왕개미엄마가 앉아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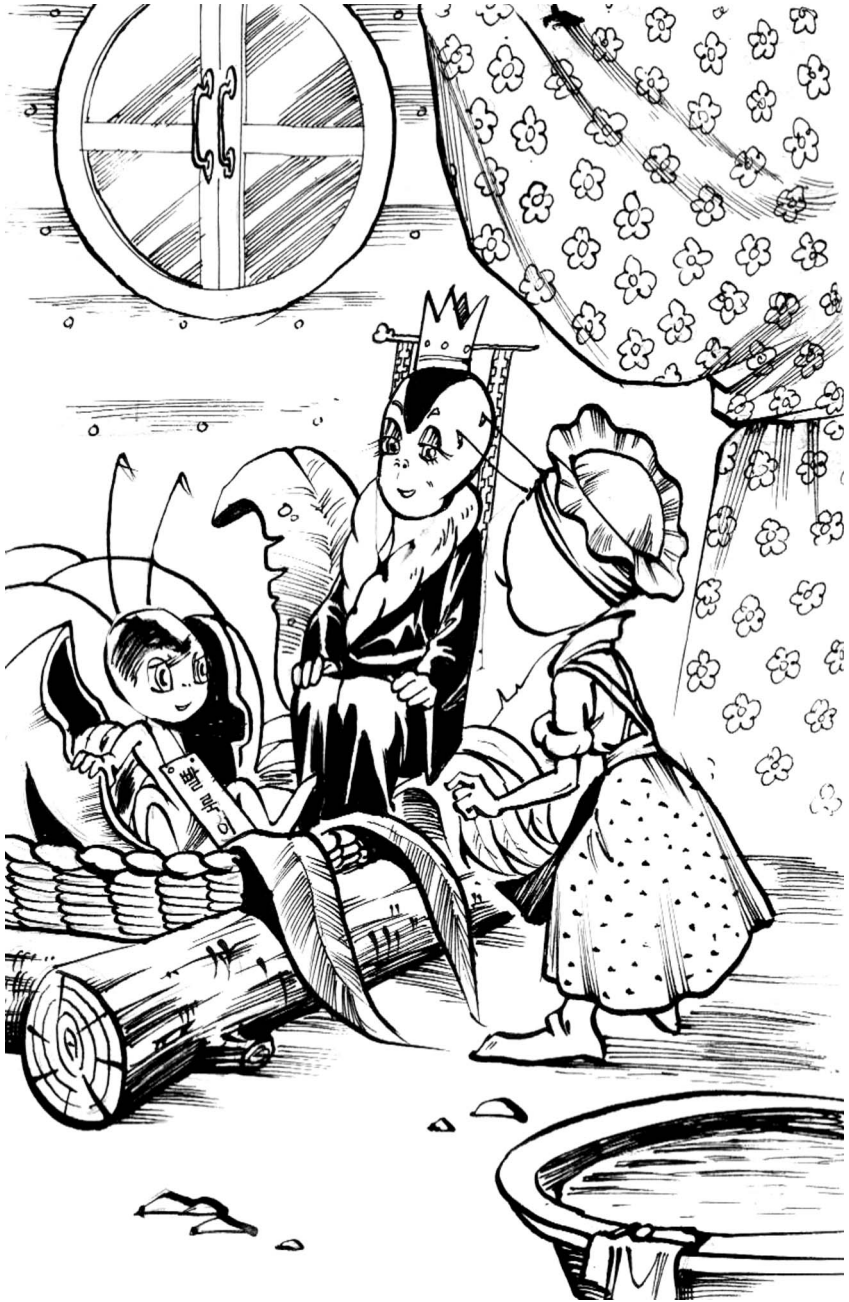
왕개미엄마는 알에서 까나오는 새끼개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했던것입니다.

알들이 움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시락바시락, 흔들흔들, 움칫움칫… 그런가 하면 삭삭소리도 들리고 콕콕소리도 들립니다.

누가 먼저 까나올가요? 모두들 호기심이 어린 얼굴로 움씰거리는 알들을 바라봅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가운데 있는 알 하나가 몹시 흔들거리더니 제일선참으로 깜장개미로 변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누구도 그가 하얀 알껍질을 벗어던지는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순간에 하얀 알이 깜장이로 모습을 바꾸는게 여간만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빨둥이

왕개미엄마까지도 감탄했습니다.
《하, 고녀석 정말 빠른데!》
몇번이나 혀를 차던 왕개미엄마는 둘러선 로동개미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녀석 이름을 빨룩이라고 달아주자.》
《빨룩이! 정말 신통한 이름이예요.》
보모개미가 탄성을 올리며 제꺽 수첩에 적었습니다. 《빨룩이》하고요.
그리고 《빨룩이》라고 쓴 쪽지를 갓 태여난 빨룩이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빨룩이다. 모든데서 더 빨랑빨랑 해지라고 달아준 이름이란다.
많은 알들중에서 네가 제일선참으로 알껍질을 찢고 나왔거든.》
《그래요?》
빨룩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위는 새하얀 알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물거리며 알껍질을 벗거나 입으로 알껍질을 찢는 개미들이 혹간 보일뿐이였습니다.
그는 환성을 올렸습니다.
《야― 내가 1등이구나!》
그러자 로동개미가 또 감탄했습니다.
《아유, 목소린 또 얼마나 또랑또랑한지 모르겠구나. 왕개미엄마, 이애를 좀 찬찬히 봐요.
가위턱도 크고 팔다리도 실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고 잘난 애는 처음 봐요.》
왕개미엄마도 빨룩이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더듬뿔을 곧두세우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는것과 같은것이였습니다.
개미들은 찬동할 때에는 머리를 끄덕이는것이 아니라 더듬뿔을 곧추 세우고 흔드는것으로 뜻을 나타낸답니다.
《정말이구나. 참 잘났다. 앞으로 훌륭한 개미로 될게다.》

빨룩이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냥 왕개미엄마를 바라보며 더 칭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왕개미엄마는 빨룩이만 지켜볼새가 없었습니다. 련이어 개미들이 단번에 열스무마리씩 까나왔으니까요.
왕개미엄마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요녀석은 머리가 땅땅 여물었구만. 이애의 이름은 여물이라고 하자.》
《요건 왜 요렇게 새노랄가. 더듬뿔까지도… 좀 약한게 탈이로구나. 요녀석의 이름은 노랑이라고 하자.》
그 소리를 들으며 빨룩이는 생각했습니다.
(빨룩이란 이름은 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제일 빠른 개미구나!)
이때 보모개미가 그에게로 다가와 말했어요.
《뭘 봐? 자, 어서 입을 벌려라. 맛있는 젖을 먹어야지.》
빨룩이는 입을 벌렸습니다.
달콤한 젖물이 목구멍으로 꼴깍꼴깍 넘어갔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먹고 먹고 또 먹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알에서 까난 개미들이 다 먹고있었습니다.
빨룩이를 먹여주던 보모개미가 감탄하였습니다.
《아니, 다른 애들은 두세숟갈만에 남기는데 이애만은 죄다 먹는군요.》
왕개미엄마의 유쾌한 목소리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제일 빨리 까나오니 먹는것도 제일 많이 먹어야지. 정말 앞으로 한몫 단단히 할려는게다.》
보모개미는 빨룩이의 볼을 다독여주었습니다.
《들었지. 왕개미엄마의 말을? 어서 커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
애기개미들은 자꾸자꾸 까나왔습니다.
왕개미엄마는 젖을 먹은 애기개미들을 다른 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애기개미들은 로동개미들의 입에 하나씩 물려 옮겨갔습니다. 완

전한 개미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머리만 클뿐 아직 다리맥이 없었으니까요.

빨룩이도 어느 로동개미의 입에 물려 옮겨갔습니다.

새끼개미들은 끙끙대며 공손히 물려서 갔으나 빨룩이는 제발로 가겠다고 바둥대여 또 한차례 형님개미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애는 진짜 여간내기가 아닌데? 대장감이야!》

방에는 꽃잎으로 지은 작은 침대들이 있었습니다. 한 침대에 셋씩 눕히는것이였어요. 우리 말로 하면 애기방과 같은것이였습니다.

빨룩이의 옆에도 두마리의 애기개미를 나란히 눕혀놓았습니다.

《야, 여물이! 노랑이!》

빨룩이는 제꺽 알아맞혔어요.

《넌 벌써 우리 이름까지 아누나.》

여물이와 노랑이도 기뻐했습니다.

《조용해라.》

보모개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많이 먹고 많이 자야 한다. 그래야 빨리 커서 동산을 위해 일할수 있단다.》

빨룩이는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또 잔단 말이야? 우린 이렇게 다 컸는데.》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만을 채 말하기도 전에 슬며시 잠들어버렸습니다.

개미들도 애기때는 먹고자고 먹고자고 하는것이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나지요.

빨룩이도 물론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먹고는 자고 자고나서는 먹고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애기개미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자라고자라 마침내 줄을 지어 학교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학교는 여러분들의 학교처럼 집을 떠나 한참 가는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었습니다.

빨룩이네 학교는 바로 그가 누워있던 옆방이였습니다.

《학교간다는게 옆방에 가는거구나.》 하고 빨룩이는 실망하여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멀리로 가는줄 알고 신이 나서 떠났던것입니다.

애기개미들은 보모개미들이 시키는대로 한줄로 서서 갔습니다.

《자, 어서 가서 많이 배워라.》

보모개미가 그들을 바래주며 말했습니다.

빨룩이는 보모개미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뭘 배우나요?》

《이것저것 다 배우지.》

《이것저것이란 어떤거나요?》

빨룩이는 알고싶은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서 학교로 가고싶었습니다.

덤벼치며 걸어가던 빨룩이는 그만 앞에서 가는 노랑이의 발뒤꿈치를 밟았습니다.

그것도 두번씩이나 말이예요.

노랑이는 두번째만에는 참지 못하고 돌아보며 눈을 흘겼습니다.

《발은 왜 자꾸 밟니?》

빨룩이는 마주 눈을 흘겼습니다.
《좀 빨리 걸으려마. 네가 빨리 못가니까 그러지.》
《앞에서 빨리 못가는데 내가 어떻게 빨리 가니?》
그들을 마중나왔던 개미선생님이 웃으며 빨룩이를 타일렀습니다.
《줄을 서서 갈 땐 앞선 개미의 발걸음에 맞추어야 한답니다. 빨리 가고싶다고 하여 막 앞으로 내걷든가, 또 한걸음이상 더 떨어져도 안됩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그래야 모두 함께 더 빨리 갈수 있으니까 그러지요. 저마다 제멋대로 한다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나요?》
선생님의 설명이 빨룩이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남달리 빠른게 무슨 소용있습니까?
자기가 노랑이와 다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사이 그들은 교실에 이르렀고 들어가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큼직하게 썼습니다.
《질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질서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우리 개미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산답니다. 때문에 우리 개미들은 제멋대로 움직이면 안됩니다. 누구나 우리 개미집안의 질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방금전에 있은 빨룩이의 행동은 질서가 없는 행동이랍니다.》
빨룩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예요?》
《선생님, 난 누구보다 빨빨하다고, 더 빨빨해지라고 왕개미엄마가 이름까지 빨룩이라고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무들의 느린 걸음에 맞추어야 한다면 어떻게 더 빨빨해질수 있습니까?》
《느린 동무들을 자기처럼 빨빨해지게 이끌어주어야지요. 무슨 일에서나 앞장서구요.

질서

우리에겐 빠른 걸음을 요구하는 일이 많고도 많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는 자기만 삐여져나가지 말고 모두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작은 힘이 큰 힘으로 되지요.》

그리고 선생님은 칠판에 개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옆에는 커다란 쥐도, 주둥이가 뾰족한 새도 그리고 또 집게벌레도 그렸습니다.

《동무들, 이 세상에는 별의별 짐승들과 새들, 곤충들이 삽니다. 그들은 우리 개미들에 비하면 몸집이 수십배 또는 수백배, 수천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들과 맞설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우린 뿔도 없고 날개도 없고 사나운 발톱이나 무서운 독침도 없습니다. 힘도 약하구요. 있다면 우리에겐 깨물수 있는 가위턱뿐입니다.

그런데 몸집이 작은 우리의 이 가위턱은 큰 짐승이나 큰 곤충에 비해볼 때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가요?》

모두들 대답을 못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빨룩이의 곁에 앉은 여물이가 대답했습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옳습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명이 깨물면 따끔해도 열명이 깨물면 〈아야.〉 하고 백명이 깨물면 〈아이쿠.〉 하며 넘어집니다.》

선생님이 나가넘어지는 시늉을 하자 모두 재미나서 하하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했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기만 하면 아름드리 큰 나무도 넘어뜨릴수 있고 큰 동뚝도 무너뜨릴수 있으며 사나운 짐승도 꼼짝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야!》 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빨룩이가 가위턱을 짝짝 벌리며 큰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정말 사나운 짐승이나 큰 곤충이 자기 개미들앞에서 쩔쩔매는가 보고싶었습니다.
자기의 큰 가위턱으로 맞서보고싶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꼬마개미들이 사랑스러운듯 웃음넘친 눈으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뭉친 힘은 그렇게 셉니다. 그런데 그 힘이 뭉쳐지자면 다 똑같이 힘을 내야 합니다.
그 힘은 그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마음이 합쳐져야 나오고 걸음이 합쳐져야 나옵니다.
제멋대로, 걷고싶은대로 걸어서 누구는 빨리 걷고 누구는 천천히 걷는다면 그 집단은 마음이 합쳐졌다고 볼수 있을가요?》
《없습니다!》
남달리 작고 연약한 노랑이가 박수까지 치며 제일 크게 대답했습니다.
빨룩이는 그에게 입을 삐쭉해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밖에 나가서 실습하는 날입니다.》

《야!》

개미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모두들 손벽을 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했습니다.

태여나서 아직까지 한번도 밖에 나가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빨룩이도 어서 밖에 나가보고싶었습니다.

《밖은 어떤델가?》

노랑이가 두려운듯 중얼대자 여물이가 종알거렸습니다.

《밖에는 무엇이 있을가?》

선생님은 호기심어린 눈을 반짝거리고있는 어린 개미들에게 말했습니다.

《밖에는 해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따뜻합니다. 우리에게 꿀을 주는 여러가지 꽃들도 가득 피여있답니다.》

선생님은 개미들을 한줄로 세웠습니다.

《자, 자기앞의 동무들을 잘 보세요.》

《예!》

개미들은 모두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따라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개미들은 한줄로 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개미들은 《야, 시원하다.》 하고 소리치며 두팔과 더듬뿔을 한껏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해님은 둥실 떠서 처음으로 바깥세상에 나오는 그들이 귀여운듯 따뜻한 빛을 아낌없이 뿌려주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갖가지 풀들, 나무들이 파란 잎을 살랑대고 꽃들도 파란 잎들우에 피여나서 향기를 풍기고있었습니다. 마치도 세상은 온통 파란색으로 이루어진것만 같았습니다.

활짝 핀 꽃송이우에서 날개를 접었다폈다 하다가 훌 날아가는 나비가 보였습니다.

《야, 저것 봐! 막 날아가누나. 날개가 굉장히 큰데!!》

노랑이가 신기한듯 소리칩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건 나비랍니다.》

《나비? 정말 멋있구나!》

이번에는 꿀벌이 윙— 하고 날아왔습니다.

꿀벌은 오구구 모여서 고개를 젖히고 정신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꼬마개미들이 귀여운듯 날개를 붕붕거리며 한참이나 떠있었습니다.

목이 아프도록 꿀벌을 올려다보던 노랑이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빨룩아, 저것 봐. 봉봉이꽁지에 창이 있어!》

정말 꽁무니에 삐쭉나온 창이 보였습니다.

《애개개—》

빨룩이도 질겁하여 중얼거렸습니다.

《몸에 창이 있구나?!》

그 말을 들은 꿀벌은 호호 웃었습니다.

《빨룩이! 참 재미있는 이름이구나. 무서워말아. 이 창은 너희들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개미들은 찌르지 않는단다.》

꿀벌은 이렇게 말하고 붕— 날아갔습니다.

선생님이 또 가르쳐주었습니다.

《저 봉봉이는 꿀벌이라고 부르는 곤충입니다. 꿀벌은 꽃을 찾아내여 꿀을 모으는데 우리처럼 수백수천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산

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를 해치려는 나쁜 놈들은 저 창으로 찌른답니다.》
빨룩이는 실망에 가까운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우리보다 세구나. 날개도 있고 창도 있고…》
노랑이가 그러는 빨룩이를 쿡 찔렀습니다.
《우리의 가위턱을 백개 합치면 그보다 더 큰 힘이 될게 아니니?》
선생님이 칭찬하였습니다.
《옳아요. 노랑이가 훌륭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날개나 창이 없고 몸집이 작다고 겁낼것이 없어요. 한데 뭉친 우리 힘은 크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리꽃동산 개미들은 멋진 약꿀을 만들어먹는답니다. 그것은 꽃속에 있는 꿀뿐만아니라 풀과 나무에서 흐르는 단물, 단열매 등 단맛을 내는 모든데서 꿀을 모아 만들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은 장수꿀이라고 부르는데 이 꿀을 먹은 우리 동산 개미들은 5～7년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왕개미엄마는 20년이나 살수 있고요.》
《야!》
애기개미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다른 곤충들은 몇년 사나요?》
노랑이가 또 물었습니다.
칭찬을 좀 받더니 점점 우쭐해하는것 같았습니다.
《다른 곤충들은 보통 40일 산답니다. 최고 1년이나 2년 사는것도 있지만…》
《40일이 얼마나 되나요? 1년은 얼마구요?》
《1년은 365일이예요. 40일을 아홉번 합친것만 하지요. 하지만 우리 동산 개미들은 그런 1년을 다섯번, 열번을 합친것만큼 산답니다.》
《히야!!》
《그러니 우리는 이 동산에서 태여난 긍지를 가져야 해요.》
《예!》

개미들은 모두 목소리를 합쳐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개미선생님은 어린 개미들을 데리고 얼마쯤 더 갔습니다. 여러가지 풀들이 우거진 속에 자주빛솜뭉치같은 꽃을 피운 키큰 꽃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꿀을 따겠습니다. 이것은 엉겅퀴꽃인데 꽃받침밑으로 꿀물이 흐릅니다. 모두 이 꽃에서 꿀을 따가지고 꿀창고까지 가야 하겠어요. 꿀을 조금 따도 좋으니 두번째 동무가 올라오면 제꺽 내려와야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올라가는 줄과 내려오는 줄을 가르쳐주었어요.

《오른쪽 줄은 올라가는 길이고 왼쪽 줄은 내려오는 길입니다.》

빨룩이는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갔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만 바라보는데 빨룩이의 심정을 알았는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빨룩이부터 올라가세요.》

《야!! 알았습니다.》

빨룩이는 큰소리로 얼른 대답하고 꽃대로 기여올랐습니다. 엉겅퀴꽃송이밑대에는 단물이 함뿍 배여있었습니다.

맛을 보니 달큰하고 새큰하면서도 쌉쌀한것이 참 별맛이였습니다.

왕개미엄마가 주는 젖이 제일 맛있는줄 알았는데 이 엉겅퀴꽃대의 단물은 또 별맛이였습니다.

《노랑이가 올라오기 전에 꿀초롱에 꿀을 채워놔야지.》

빨룩이는 큰 입을 힘껏 벌리고 꿀을 가득 빨아서는 꿀초롱에 담았습니다. 순간에 반초롱이 찼습니다.

《야, 벌써 많이도 담았네!》

어느새 올라온 노랑이가 빨룩이의 꿀초롱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세번째로 올라온 여물이도 빨룩이의 꿀초롱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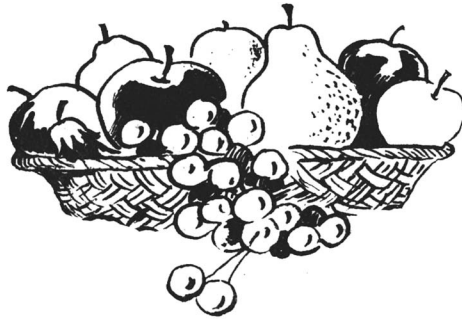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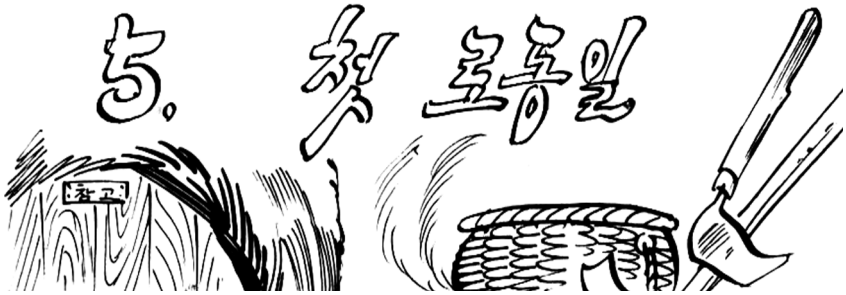
《빨리도 채웠구나.》

빨룩이는 우쭐해서 꽃대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장수꿀창고는 애기방을 지나고 개미학교를 지나 또 버섯창고와 씨앗창고를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굴은 참 길기도 했습니다. 길목마다 형님개미들이 서서 첫 실습하는 빨룩이네들을 고무해주며 꿀창고로 가는 길을 가리켜주군 하였습니다.
번데기방, 왕개미방까지 지나서 옆으로 뻗은 곁굴로 접어드니 꿀창고가 나타났습니다.
꿀창고앞에는 병사개미가 서있었어요. 긴 창을 들고 말이예요.
《야, 꿀창고가 깊은 곳에도 있네.》
빨룩이가 소리치자 어느새 그 말을 들은 병사개미가 《그건 장수꿀창고가 그만큼 중요하기때문이야.》 하고 친절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병사개미는 로동개미들보다 머리가 두곱이나 컸습니다. 머리가 크니 가위턱도 크고 입도 컸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턱과 입이 그렇게 크나요?》
빨룩이가 호기심이 나서 묻자 병사개미는 주위를 살펴보며 누가 들을세라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물어제껴야 하니까.》
병사개미는 빨룩이의 꿀초롱을 들여다보고 감탄했습니다.
《야, 너 꿀을 가득 담아왔구나. 첫 꿀따기인데 참 대단하다! 너 빨룩이지?》
빨룩이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아나요?》
《알지. 이번에 태여난 개미들중에서 네가 제일 먼저 까나왔다더구나.》
빨룩이는 씩 웃었습니다.
그는 우쭐해져서 뒤따라오는 노랑이와 여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부러워하는 빛이 어려있었습니다.
그들의 꿀초롱을 기웃이 들여다보니 꿀이 절반쯤 담겨있었습니다.

빨룩이하고 대비도 안됐습니다. 빨룩이는 더욱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또 갔다올래요.》

꿀초롱을 들고 나가는데 마주오던 선생님은 그더러 교실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빨룩이는 무척 아쉬웠습니다. 한번 더 본때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말이예요. 선생님이 그의 꿀초롱을 보지 못한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개미학교를 졸업한 빨룩이네들이 첫 로동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찍 밥을 먹은 개미들은 개미동산 앞마당에 줄을 지어 모였습니다. 한 백마리 되는상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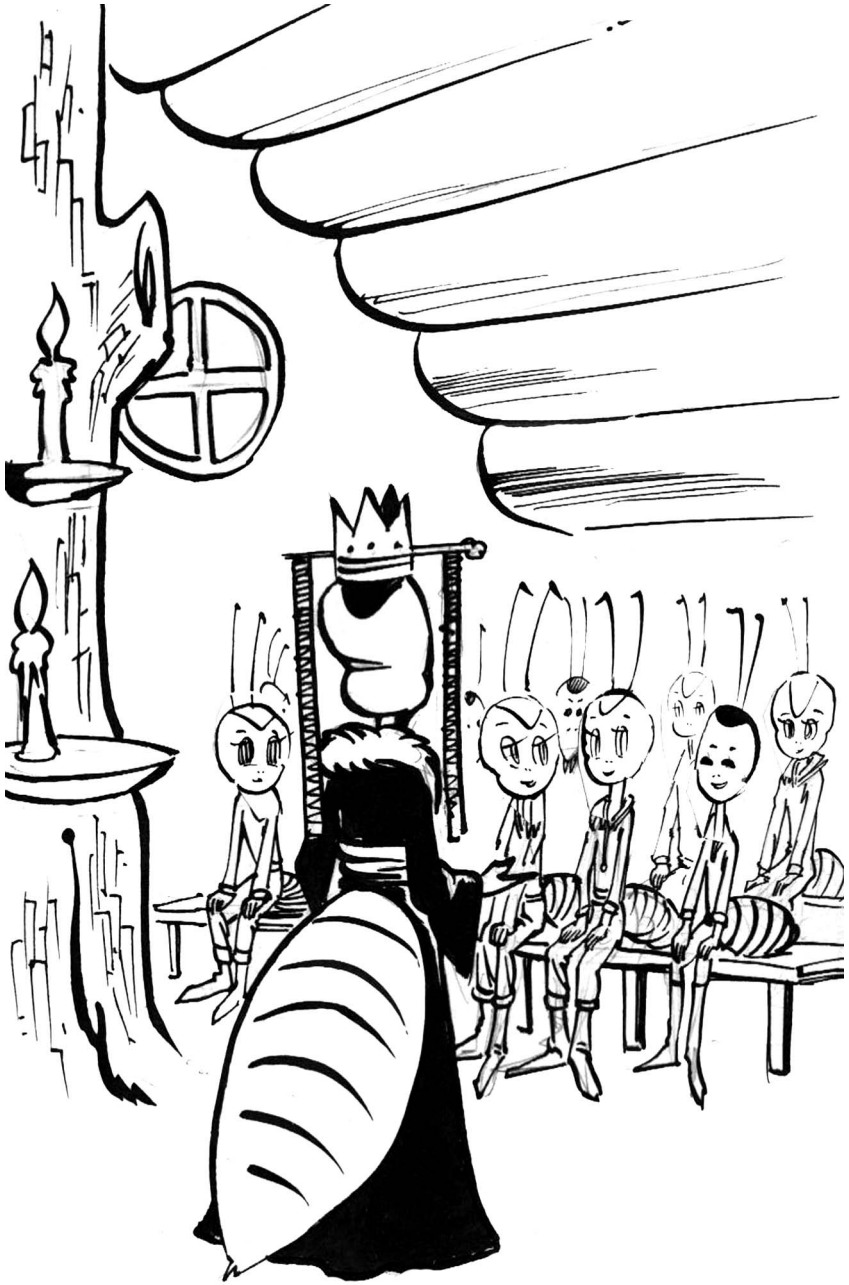
왕개미엄마가 그들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모두 나의 귀여운 자식들이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로동개미가 되였다. 너희들은 이제는 갓난아이가 아니야. 당당한 로동개미이다. 어른이란 말이다. 로동개미란 부지런한 개미란 뜻이다.

우리 개미집단은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놀고먹는 개미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창고마다 먹을것이 가득하고 추운 겨울에도 굴속에서 뜨뜻이 지낸다.

이 세상에는 〈개미와 매미〉란 이야기가 있단다. 그것은 한 여름철 시원한 그늘밑에서 노래만 부르고 살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개미들을 비웃던 매미가 추운 겨울이 오자 집도 없고 먹을것도 없어 개미네 집으로 얻어먹으러 찾아왔다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우리 개미들의 부지런함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곤충과 짐승들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조상개미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하며 개미란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건달군들이 많다. 그런 놈들은 일하지 않고 남의것

을 탐내고 남들이 땀으로 이룩한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니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 개미동산의 자그마한 비밀도 대주어서는 안된다.
우리 식구가 몇이고 무얼 먹고 사는가 하는것까지 다 비밀에 속한단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모두 알겠니?》
왕개미엄마는 새끼개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예!》
새끼개미들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조를 뭇자.》
왕개미엄마는 줄을 지어 앉아있는 개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섯줄까지는 꿀따러 가는 조이고 그다음 다섯줄은 버섯을 따오는 조이다. 또 그다음 다섯줄은 열매와 씨앗을 모아오는 조다.》
빨룩이가 재빨리 줄을 세여보니 자기는 버섯을 따는 조였습니다.
《매 조에는 형님개미들을 한명씩 책임자로 두었다. 1조의 조장형님은 올록이고 2조의 조장형님은 달룩이고 3조의 조장형님은 볼룩이다. 그러니 형님개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왕개미엄마는 말을 맺었습니다.
빨룩이는 꿀을 따고싶었습니다. 그런데 버섯을 따라고 하니 좀 시큰둥했습니다. 빨룩이는 왕개미엄마에게 응석을 부리듯 말했습니다.
《왕개미엄마, 난 한번도 버섯을 따보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도 안배워주었어요. 난 꿀을 딸래요.》
그 말에 왕개미엄마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못배운것은 일하면서 배운단다. 그래서 매 조를 형님개미가 맡은거다. 형님들이 잘 가르쳐줄게다. 너희들은 이제는 어른이니 여러가지 일을 다해보아야 해. 형님들에게서 잘 배워라. 빨룩이는 령리하니 아무일이나 다 인차 배울거야.》
왕개미엄마는 다정히 등까지 두드려주었습니다.
입이 삐죽해 서있는 그에게 뒤에 서있던 여물이가 쿡 찌르고 벌

쭉 웃었습니다.

 옆에 선 노랑이도 그를 보고 배시시 웃어주었습니다.

 빨룩이는 공연히 그들이 얄미웠습니다. 자기가 퉁을 맞은것을 기뻐하는것 같이 보였던것입니다.

 《자, 그럼 조별로 행동하거라.》 하고 말한 왕개미엄마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조장형님들이 나타나 저마끔 《앞으로 갓!》 하고 소리쳤습니다.

 개미들은 각기 한줄로 서서 자기 맡은 일을 하러 헤여져갔습니다.

 해빛이 쨍쨍 내려쪼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룩이네는 부지런히 언덕을 넘어 걸어갔습니다.

 언덕을 넘어서니 수풀이 나졌습니다.

 줄기끝에 노란색의 꽃이 여러개나 활짝 핀 딱지꽃이며 잎이 길다란 둥굴레며 댕댕이덩굴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멈칫거리지 않고 곧추곧추 앞으로만 나갔습니다.

 해는 쨍쨍 비쳤으나 수풀속은 어두운 그늘이였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늘속은 무척 더웠습니다.

 《버섯은 왜 안나타날가, 꽃은 많은데. 꿀따는 조는 좋겠네, 꽃이 많아서.》

 지루해난 빨룩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가던 형님개미가 말했습니다.

 《아무 꽃이나 다 꿀이나 단물이 나는것은 아니란다.》

 빨룩이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던 형님개미가 문득 《버섯이다!》 하고 웨쳤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큰 버섯 한송이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빨룩이가 자세히 보니 큰 버섯옆에 작은 버섯들이 옹

기종기 많이도 돋아있었습니다.
《야, 버섯이 많아요.》
빨룩이가 환성을 올리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버섯이 많다고 아무 버섯이나 망탕 따면 안돼. 우리 조는 오늘 이 버섯만 따자. 버섯에도 독이 있는 버섯이 있고 철이 지나면 못먹는 버섯이 있단다.》
《그렇구나. 난 언제면 그런걸 다 알가.》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는데 여물이가 《그래서 형님들에게서 배우라고 하지 않았니.》 하고 속삭였습니다.
빨룩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버섯대로 올라갔습니다. 싱싱한 버섯향기가 기분을 더없이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조금 맛보니 기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야, 꿀맛만 좋은줄 알았더니 버섯도 맛있구나.》
빨룩이는 사기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달룩형님이 차근차근 대답해주었습니다.
《그럼, 버섯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던 나쁜 병균도 몰아내고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준단다. 우리가 앓지 않고 오래 사는데는 이 버섯의 덕도 있단다.》
《야, 버섯은 좋구나. 나 버섯 제일 많이 따갈래요.》
제일 먼저 버섯갓에 오른 빨룩이는 있는 힘껏 가위턱을 벌려 버섯을 한웅큼 깨물었습니다.
버섯따기에서도 1등을 하고싶었습니다.
커다란 버섯 한덩이를 문 빨룩이는 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달룩형님은 밑에서 맨 마지막꼬마가 올라가는것을 지켜보고있었습니다.
빨룩이는 보란듯이 달룩형님앞으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형님, 버섯창고로 가면 되나요?》
《야, 빨룩이가 정말 빠른데!》
달룩형님이 감탄하였습니다.
《어느새 굉장히 큰 덩이를 땄구나!》

달룩형님은 그에게 누런 솔씨의 날개쪼각을 내주었습니다.
《이건 통과증이다. 굴속이랑 창고에 들어갈 때 보여야 해.》
《예.》
《잘 건사해라.》
《걱정마세요.》
빨룩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얼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지런히 걸어 굴문앞에 오니 어제 꿀창고보초를 서던 낯이 익은 병사개미가 보였습니다.
빨룩이의 이름까지 알고있는 형님이 오늘은 출입구보초를 서고있었습니다.
(날 아는 형님이구나.)
보초형님이 빨룩이가 딴 큰 버섯덩이를 보면 오늘은 더 용타고 칭찬할수 있었습니다. 빨룩이는 씩 웃으며 그냥 그앞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초형님이 소리쳤습니다.
《통과증!》
《형님, 나야 빨룩이야. 어제는 꿀창고 보초서더니 오늘은 여기서있구나.》
빨룩이가 자기 이름까지 대며 아는체 했으나 보초형님은 웃지도 않고 긴 창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통과증!》 하는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날카롭고 맵짰습니다.
빨룩이는 너무나 깜짝 놀라 뒤로 벌렁 나가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체, 너무 무섭게 노누나. 빨룩이라는데…》
빨룩이는 너무도 무안하여 투덜거렸습니다.
그통에 뒤에 오던 동무들이 굴앞에 모여서게 되였습니다.
《왜 못들어가니?》
《왜 그런대?》
동무들이 등뒤에서 오구작작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입구

맨 뒤에서 따라오던 달룩형님이 꼬마들의 사이를 비집고들어오며 보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보초형님은 여전히 굴문을 막고있는 창을 내리우지 않고 달룩형에게 말했습니다.

《빨룩이에게 통과증이 없어. 》

《히야, 그러니 내가 빨룩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들여보내지 않았댔구나?》

빨룩이는 어이가 없어 보초형님을 쏘아보았습니다.

달룩형님이 빨룩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자 금방 준 통과증은 어떻게 했니?》

《여기 있지요 뭐!》

빨룩이는 투덜거리며 괴춤에서 솔씨의 날개쪼각을 꺼냈습니다.

달룩형님이 말했습니다.

《빨룩아, 아무리 아는 사이라고 해도 통과증을 꼭 보여야 한단다. 그건 우리 동산의 규률이고 질서야. 네가 만일 통과증을 잃어먹어 나쁜 놈이 그걸 주어가지고 우리 동산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니?》

《뭐라구요?》

놀라는 빨룩이를 보고 달룩형님이 말했습니다.

《안되지?》

《예. 》

시무룩해서 대답하는 그를 보고 형님이 웃으며 등을 다독여주었습니다.

《됐어. 고치면 되니까.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돼. 》

《예. 》 하고 대답하면서 빨룩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도 있을가? 난 그런 놈을 만나면 이가위턱으로 꽉 깨물어 혼쌀내줄테야. …)

빨룩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어느덧 버섯창고앞에 이르니 창고지

기형님이 또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섯!》

《왜 그래요. 통과증이 있어요.》

빨룩이는 손에 든 통과증을 흔들어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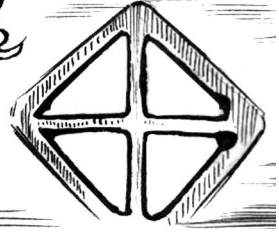
《그게 아니야. 버섯덩이에 흙이 묻었어. 네가 먹을건데 깨끗이 해야지 흙을 막 묻혀가지고 오면 되니.》

아까 굴입구에서 보초형님이 통과증이 없다고 큰소리칠 때 벌렁 나가넘어졌댔는데 아마 그때 버섯덩이에 흙이 묻은 모양이였습니다.

《다른 동무들을 봐라. 어디 너처럼 흙이 묻은 애가 있니?》

하나둘 그의 앞을 지나는 동무들을 보니 정말 버섯에 흙이 묻은 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빨룩이는 버섯덩이에 묻은 흙을 털며 투덜거렸습니다.

(에참, 오늘은 정말 일이 잘 안되는데…)

그날저녁이였습니다. 하루일을 마친 그들은 식당에서 맛있는 장수꿀에 버섯료리와 딸기쨤까지 듬뿍 먹었습니다.

불룩해진 배를 쓸어만지며 나오는데 달룩이조장형님이 《모엿!》 하고 소리쳤습니다.

버섯조 개미들이 모두 모이라는 뜻이였습니다.

빨룩이와 노랑이, 여물이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줄을 지어 어느 빈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입구에는 《버섯조》 하고 써있었습니다.

조장형개미는 이제부터 그들이 여기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달룩형님이 말했습니다.

《이 방은 오늘부터 우리 버섯조 개미들이 살게 되는 방이다. 여기 모인 우리는 누구보다 제일 가까운 형제들이란다.》

그리고나서 첫날 일한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일을 잘했다. 모두 첫걸음을 잘 뗐어. 첫걸음을 잘 떼야 마지막까지 걸음을 잘 걸을수 있어. 그중에서도 빨룩이가 잘했다. 다른 동무들보다 두뭈, 세뭈을 날랐거든.》

《야!—》

모두들 부러운 눈으로 빨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빨룩이는 속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형님이 이렇게 말했던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바로잡을 일이 있어. 그것은 빨룩이가 규률을 어긴거다. 빨룩인 보초형님을 안다고 해서 통과증을 보이지 않으려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됐다.

처음이여서 용서하지만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되겠다. 우리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명심해야겠어. 알겠니?》

《예.》

동무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빨룩이는 눈이 둥그래서 달룩형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니 고까왔습니다.

아까 혼자있을 때 고치면 된다고 조용히 말해주는것으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많은 형제들앞에서 망신을 주는것입니다.

그것을 봉창하느라고 일도 많이 했는데 생각하는것 같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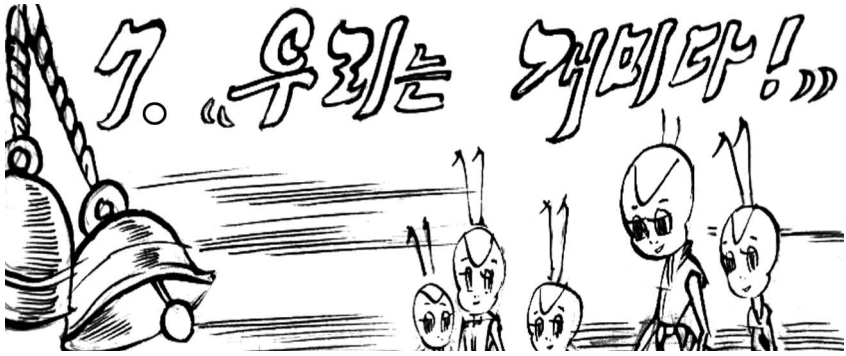
달룩형님은 그의 볼이 부어있는것을 본척도 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모아들이는 꿀도 버섯도 더 깨끗이 다루자. 동산의것이자 우리모두의것이 아니냐.》

《예!》

동무들의 대답소리는 점점 더 우렁찼습니다.

《체, 깨깨 다 말하누나.》

빨룩이는 동무들앞에서 망신하는것이 너무도 부끄러워 모임이 끝나기바쁘게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누워버리고말았습니다.

갑자기 《땡, 땡, 땡!》 비상종이 울렸습니다.

달룩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상! 기상!》

첫 종소리에 이미 눈을 번쩍 떴던 빨룩이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생겼나요?》

빨룩이는 꽁한 성미가 아니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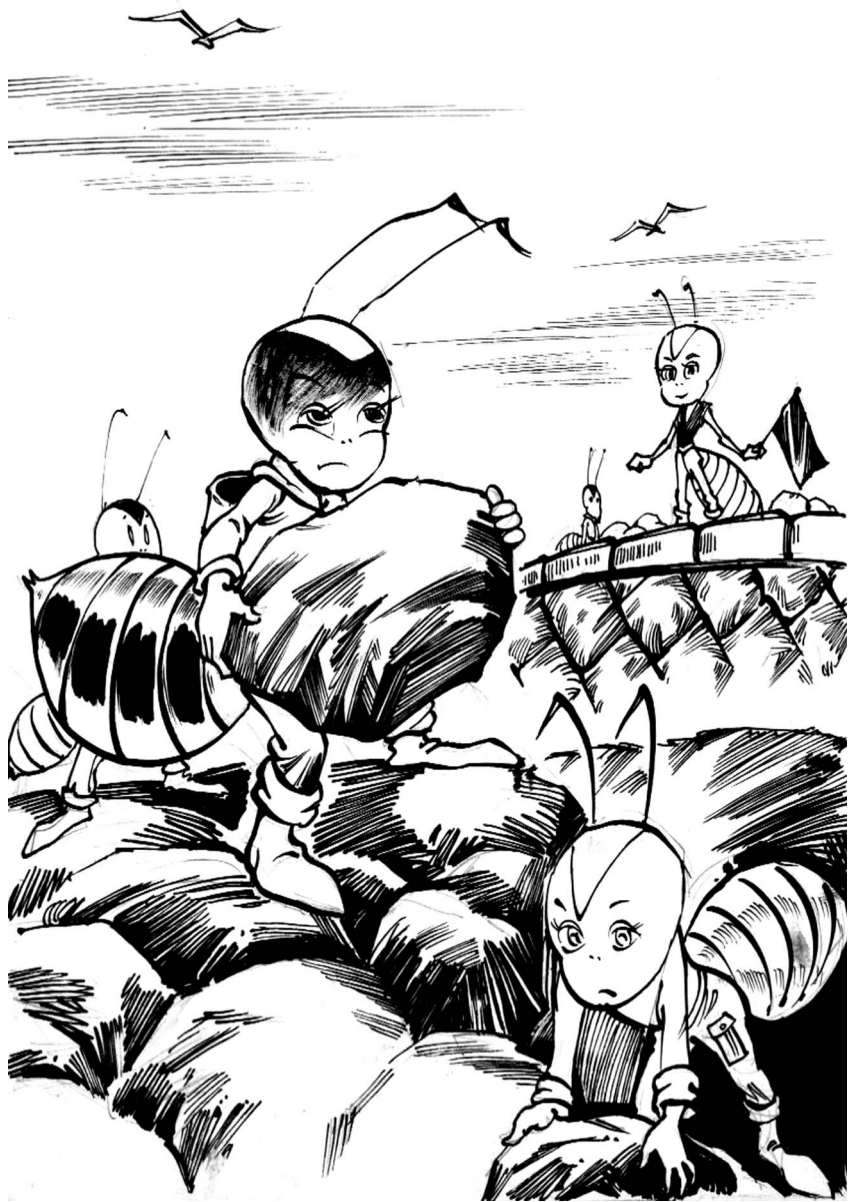
어제일쯤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달룩형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더니 래일 큰비가 오게 된다누나. 비가 오면 우리 동산옆을 흐르는 개울이 넘어날수 있대. 어제 염소떼가 지나가면서 형님들이 쌓았던 뚝을 밟아놓아 뚝이 몹시 낮아졌단다. 그래서 오늘 그 뚝을 마저 쌓아 높이기로 했단다. 저녁전에 끝내야 하니 어서들 일어나야겠다.》

어느새 형제들이 모두 일어나 달룩형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줄을 지어 식당에 가니 맛있는 장수꿀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릇마다 찰찰 넘치게 담겨져있었습니다. 입맛이 산뜻한 앵두화채도 있었습니다.

아침을 배불리 먹고나니 새힘이 부쩍부쩍 솟아났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달룩형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벌써 올록이형이 맡은 1조의 형제들은 줄을 지어 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달룩형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빨리 가자. 저 언덕너머에 있는 흙과 돌들을 날라다 동뚝을 올려쌓아야겠다.》
형님말이 떨어지기바쁘게 버섯조 개미들은 와-하고 흩어져갔습니다.
걸음이 빠른 빨룩이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제일 큰 모래돌을 들고 올라섰습니다.
달룩형은 동뚝우에 서서 물어오는 흙과 모래를 적당한 곳에 부리도록 지휘하고있었습니다.
《빨룩이! 역시 빨룩이가 제일 먼저 오는구나.》
달룩형은 빨룩이의 일솜씨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했습니다.
《그 모래돌이 네 몸의 다섯배는 되겠다.》
모두 그런 빨룩이를 보고 그처럼 큰 돌을 가져오고싶어했습니다.
노랑이는 욕심스레 큰 돌을 가지고오다가 끝내 도중에서 떨어뜨리고말았습니다.
작은 모래알도 개미들에게는 큰 바위와 마찬가지였거든요. 게다가 노랑이는 남들보다 약했습니다. 그러니 모래알을 안고도 끙끙거릴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빨룩이가 제법 형님처럼 《몸에 맞게 일해. 덮어놓고 욕심부리지 말구.》라고 말하며 떨어뜨린 돌을 집어올리자 노랑이는 고집스레 돌을 그러안았습니다.
《내가 마저 나를테야.》
빨룩이는 할수없이 그 돌을 놓고 다시 언덕너머로 갔습니다.
그가 두번째로 더 큰 돌을 물고와 동뚝에 내려놓고 돌아설 때야 노랑이는 도착했습니다.
《요 이악쟁이, 그래야 해. 자기 몫은 제가 해버릇해야 한다. 그래야 힘도 커진다.》
아까부터 노랑이를 여겨보았는지 달룩형이 얼른 노랑이에게서 돌을 받아 내려놔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랑이가 《이크, 저게 뭐야?》 하고 놀란 소리를 쳤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본 빨룩이도 놀랐습니다.

괴상하게 생긴 커다란 곤충이 엉금엉금 그들쪽으로 기여오고 있는것이였습니다.

빨룩이의 눈에는 마치 시커먼 바위가 기여오는것처럼 보였습니다.

달룩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장수집게벌레다!》

《뭐, 장수집게벌레?》

꼬마개미들은 일시에 머리를 들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수집게벌레는 이름처럼 집게뿔이 또 얼마나 억세고 무섭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집게뿔은 차돌바위도 단번에 박살내고 아름드리 쏙새풀도 순간에 썩둑 잘라버릴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옆에서는 그보다 좀 작으나 그렇게 흉물스레 생긴 놈들이 따라오고있었습니다.

그놈들은 개미들이 쌓고있는 뚝을 향해 면바로 다가오고있었습니다.

모두들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하는데 달룩형님이 불쑥 나섰습니다.

《서라!》

그러자 제일 큰 놈이 툭 튀여나온 퉁방울눈을 뜨부럭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또 뭐야. 비키지 못해?!》

그러나 달룩형님은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여긴 우리가 일하는 곳이야. 일하는게 보이질 않니? 저쪽으로 에돌아가란 말이야!》

그러자 장수집게벌레는 스산하게 생긴 집게뿔을 척 들어올리며 화를 냈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고 에돌아가라 말라 하는거야?》

거센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달룩형님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장수집게벌레지!》

장수집게벌레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를 따라오던 놈들도 따라웃어대는데 한놈이 말했습니다.

《누구신지 알면서도 그래? 비켜라! 우리 장수집게벌레님은 너희들의 왕개미를 만나려고 오시는 길이란 말이다.》

《뭐, 왕개미엄마를?》

《그래, 장수꿀을 대접받으려고 오는 길이다.》

《뭐, 왕개미엄마가 너를 초청했다구? 엉터리소릴 그만두고 썩 물러가지 못해?》

그러자 제일 큰 놈이 으르렁댔습니다.

《야, 이 장수집게벌레님이 누가 초청해서 오는줄 알아? 내가 오고싶으면 오고 가고싶으면 가는거지. 어서 비키지 못해?》

장수집게벌레는 발을 넝큼 내짚었습니다. 그러자 애써 쌓은 뚝이 흠씰거리며 무너져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놈들도 으시대며 뚝에 올라섰습니다.

《아니, 저걸 어쩌나?!》

개미들이 아우성쳤습니다.

그러자 달룩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이놈은 나쁜 놈이다! 모두 달라붙어 몰아내자!》

달룩이는 먼저 장수집게벌레놈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개미들이 와—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순식간에 장수집게벌레의 몸은 개미들로 뒤덮여졌습니다. 그러자 그놈을 따라왔던 놈들이 겁에 질린듯 주춤주춤 멈춰섰습니다.

처음에 흠칠했던 빨룩이는 달룩형이 주저없이 장수집게벌레놈에게 달려드는것을 보고 또 다른 놈들이 겁에 질려 물러서는것을 보자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야, 우리도 형님처럼 싸우자!》

빨룩이는 큰소리로 웨치며 용감하게 장수집게벌레놈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집게벌레놈은 껍질이 어찌나 딴딴하고 매끈매끈한지 붙어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개미네 형제들이 까맣게 달라붙자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갑날개를 부르르 털었습니다.

순간 빨룩이와 개미네 형제들은 모두 저만치 나가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장수집게벌레놈은 《하하하》 하고 통쾌하게 너털웃음을 짓더니 이번에는 집게발을 쳐들어 휘둘렀습니다. 거기에 달라붙었던 개미들도 이리저리 나가떨어져 딩굴었습니다. 그러자 물러서던 놈들이 용기가 생긴듯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다시 와―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달룩형님이 먼저 그놈의 뒤다리관절에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일시에 달려들라!》

장수집게벌레놈은 여전히 코방귀를 뀌며 지껄여댔습니다.

《순순히 말할 때 물러서는게 좋아.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테다!》

《물러서라구? 우린 개미들이다. 우리 개미들이 나갈 때면 범이나 곰도 비켜선다!》

달룩이가 소리치자 형제들은 힘과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개미들이 더욱 기승스레 달라붙자 장수집게벌레놈은 좀 당황한듯 《아이구, 야, 날 호위하는 놈들은 다 뭘하는거냐?》 하고 소리치며 갑날개를 힘껏 퍼덕였습니다.

달라붙었던 개미들은 또다시 이리저리로 날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쯤한 일에 주저할 개미들이 아니였습니다.

개미들의 기세가 하도 사나우니 장수집게벌레를 따라왔던 놈들도 비슬비슬 눈치만 살피고있었습니다.

몇번이나 달라붙었다가 떨어진 빨룩이는 잠간 서서 그놈의 어디에 달려들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별로 크지 않은 가느다란 더듬뿔이 붙은 코등만은 감추려고 애쓴다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코등은 갑날개와 달리 별로 연해보였습니다.

《옳지. 저기다!》 하고 생각한 빨룩이는 그놈의 등을 타고 대가리쪽으로 기여가 나들거리는 더듬뿔이 붙은 코등에 매달리며 힘껏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장수집게벌레놈은 깜짝 놀라며 《아, 아이구!!》 하더니 골통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놔라. 아이구, 나 죽는다.》

빨룩이는 더 힘껏 깨물었습니다.

더 꽉 깨물려고 힘을 잠시 늦추자 장수집게벌레놈은 더듬뿔을 휘둘러 빨룩이를 떨궈버리고 불에라도 덴듯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집게벌레놈이 데리고왔던 놈들은 더 먼저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미처 따라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야! 도망쳤다!!》

《우리가 이겼다. 만세!!》

개미들이 기뻐서 환성을 올리는데 달룩형님이 말했습니다.

《애들아, 보았지? 우리의 힘은 이렇게 세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를 얕보고 덤벼들지 못하는거다. 자, 이젠 뚝을 빨리 마저 쌓자!》

《예!》

개미형제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목청껏 대답했습니다.

달룩형님은 그들을 둘러보다가 한곳에서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모두 기세충천하여있는데 빨룩이는 한쪽에서 시무룩해있었던 것입니다.

달룩형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빨룩아, 너 어데 상한게 아니니?》

《아니예요. …》

빨룩이는 어물어물했습니다.

그는 사실 어데 상한것이 아니였습니다. 그저 매우 불만스러웠을뿐이였습니다.

장수집게벌레놈을 물리치는데서 자기가 제일 큰일을 한것 같은데 그것을 몰라주고 모두가 다 함께 잘싸웠다고 하니 말입니다.

자기가 그놈의 더듬뿔에 면바로 달려들어 꼭 물어놓았으니 그놈

이 혼비백산하여 쫓겨간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공을 세운 자기를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으니 몹시 불만스러웠던것입니다.

사실 그때 모든 개미들이 장수집게벌레에게 달라붙었던지라 그들은 빨룩이가 그놈의 코등을 물었다는것을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빨룩이는 자기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빨룩아, 아프면 좀 쉬여라.》 하고 말한 달룩형님은 다른 개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빨리 일을 마저 끝내자!》

《예!》

대답소리에 동산이 쩡쩡 울렸습니다.

뚝은 눈에 띄게 쑥쑥 높아졌습니다.

모두들 점점 더 흥이 났고 일도 그만큼 더 빨리 자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빨룩이는 점점 더 일할 생각이 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어데론가 가버리고싶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로서도 왜 그런지 알수 없었습니다.

동뚝막기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강구니 조장인 달룩형님과 노랑이가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랑아, 힘들지 않았니?》

《아니, 일없어요.》

노랑이는 조장형님앞이여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힘이 안드는지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빨룩이는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큰 공로는 자기가 세웠는데 그런 물음은 자기에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것입니다.

조장형님의 말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노랑아, 이걸 받아. 아까 내가 한알 얻은건데 볼룩조장과 절반씩 나눠가졌다. 이걸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힘도 난단다.》

《야,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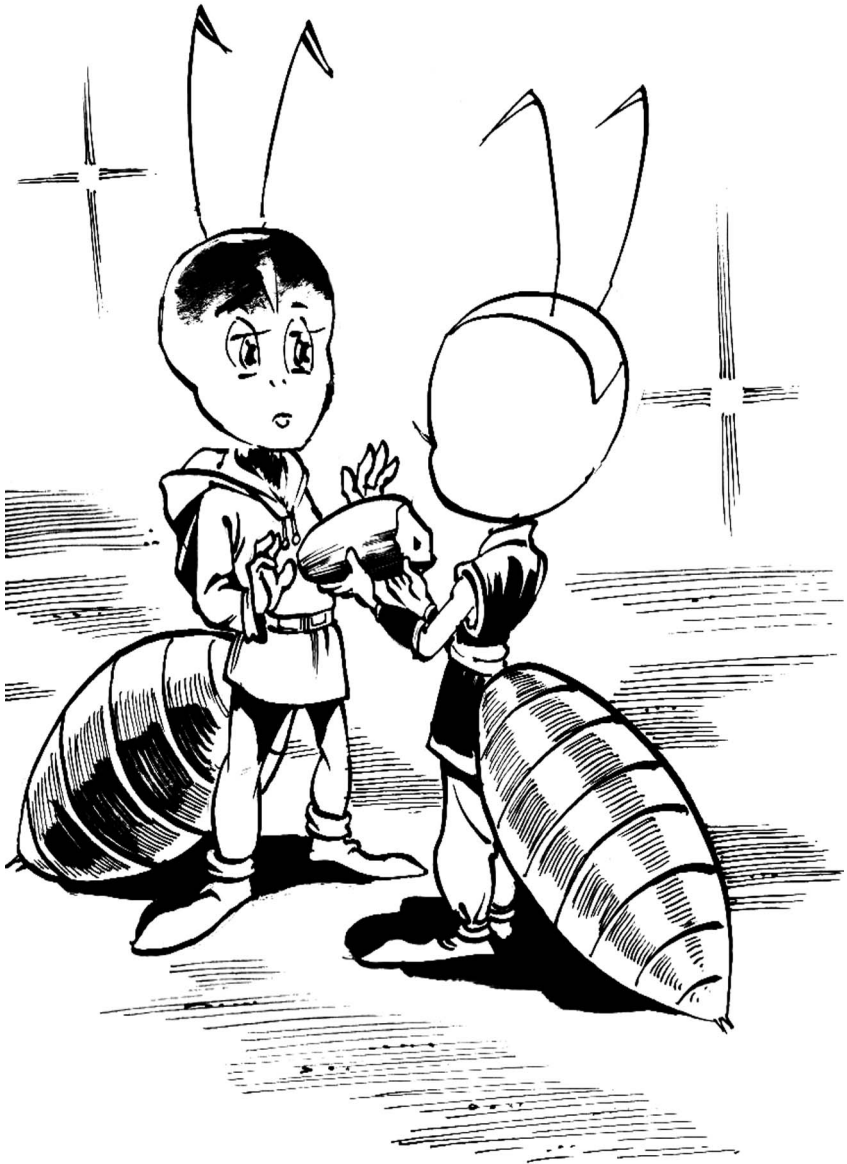
노랑이는 《흠흠》 하고 냄새까지 맡아보더니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이, 고소해. 형님 고마와요.》

《오냐.》

달룩형은 대렬 맨뒤로 갔는지 더 말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야, 나도 노랑이처럼 몸이 약했더라면 저런 사랑을 받는건데…난 왜 몸이 튼튼하게 태여났을가.)

그때 노랑이가 빨룩이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룩아.》
《…》
빨룩이는 대답하고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랑이는 자기가 부러우라고 조장형님이 준것을 자랑할테니까요.
《이것 봐.》
아닐세라 빨룩이의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할수없이 흘깃 바라보니 참깨 반쪽이였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몰몰 풍겼습니다. 저도모르게 군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이걸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힘도 난대.》
《…》
그런데 뜻밖에도 노랑이는 그것을 빨룩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네가 먹어.》
빨룩이는 닁큼 뛰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싫어. 너 준건데 왜 내가 먹는단 말이냐?》
노랑이의 목소리는 더 상냥했습니다.
《넌 남보다 일도 많이 하는데 네가 먹어야 해. 난 조금 맛봤어.》
노랑이는 억지로 참깨알을 그의 손에 쥐여주었습니다. 도로 받게 될가봐 두려운지 앞으로 뽀르르 달아났습니다.
남보다 일도 많이 한다는 말에 빨룩이는 노여움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노랑이는 정말 마음이 고운 애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입 깨물어 먹어보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만큼 맛있었습니다. 혼자서 다 먹어도 냠냠할것 같았습니다.
이때 여물이가 다가왔습니다.
《뭘 먹니?》
빨룩이는 한입 먹은 참깨를 내밀어보였습니다.
《참깨야, 이걸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참 좋대. 마저 먹어.》

여물이는 펄쩍 뛰며 사양했습니다.
《됐어, 네게 차례진건데 네가 먹어.》
《아니야, 난 한입 먹어봤어.》
빨룩이는 남은 참깨를 여물이에게 주고는 저만치 앞서나갔습니다.
(여물이도 나처럼 노랑이와 달룩형님이 나눈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지? 속이 좋지 않았을거야. 남은 참깨를 주기 잘했어.)
이때 보모개미가 큰 꿀통을 가지고와 장수꿀을 한고뿌씩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빨룩이에게도 여느 애들과 꼭같이 한고뿌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그가 오늘 세운 공로에 대해서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고뿌나 먹을 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고뿌 더 주었더라면 무척 기뻤을것입니다. 동무들앞에서 우쭐거릴수 있으니까요.
개미형제들은 여기저기서 소곤거리기도 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낮에 쫓겨간 장수집게벌레놈을 두고 이야기들을 나누고있었습니다.
빨룩이도 생각할수록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달룩형은 그렇게 큰 장수집게벌레놈에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들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달룩형이 용감하게 맞서는것을 보고 빨룩이도 다른 형제들도 용기를 내서 달려들었던것입니다. 정작 대들어보니 조금도 무섭지 않았던것입니다.
(달룩형은 정말 담이 커.)
생각할수록 감탄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코등을 물었을 때부터 그놈은 바빠서 도망쳤어. 그걸 다들 봐야 하는건데. …)
빨룩이는 생각할수록 서운했습니다.
여물이와 노랑이가 이마를 맞대고 소곤거립니다.
《난 사실 처음엔 무서워서 혼났어!》
여물이의 말에 노랑이도 대꾸했습니다.
《나두…》

그리고는 누가 들었나 해서 주위를 살피다가 빨룩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노랑이는 멋적은듯 빙그레 웃으며 빨룩이에게 물었습니다.

《빨룩아, 넌 무섭지 않던?》

《흥, 무섭긴 뭐가 무서워.》

빨룩이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말았습니다.

여물이가 말했습니다.

《얘, 빨룩인 아까부터 어디 아픈것 같애. 가만 누워있게 놔둬.》

그때 달룩형님이 왔습니다.

형님의 손에는 참깨 반쪽이 쥐여져있었습니다.

빨룩이는 깜짝 놀라 일어나앉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노랑이에게서 받은 그 참깨였습니다. 한입 먹어보고 여물이에게 준 그 참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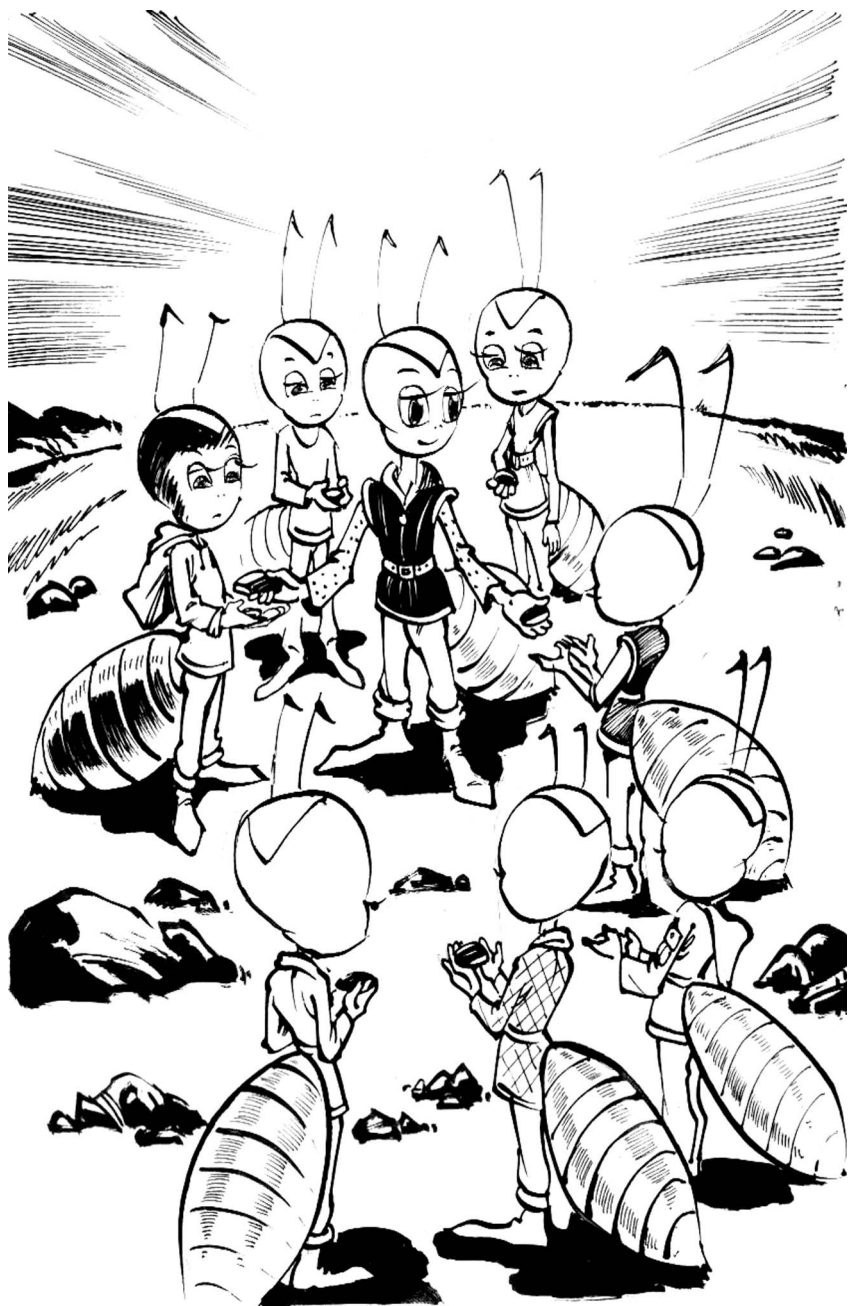
그런데 어떻게 달룩형님이 가지고있을가요? 노랑이도 어리둥절해서 빨룩이를 바라봅니다. 빨룩이가 얼른 여물이를 보니 그 애는 씩 웃으며 다른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빨룩이가 중얼거리는데 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난 오늘 정말 기쁘구나. 이 참깨는 사실 오늘 내가 얻어서 볼룩형에게 반쪽 나눠주고 남은것이였다. 그리고 우리 조에서 제일 몸이 약한 노랑이에게 주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노랑이는 먹지 않고 빨룩이에게 주고 빨룩이는 여물이에게 주고 여물이는 잘룩이에게 주고 이렇게 돌고돌아 나에게 다시 왔구나. 얼마나 훌륭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좋은것을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란다. 자기에게 차례진 좋은 음식, 좋은 자리, 좋은 일을 남에게 양보하는것, 이것은 아름다움중에서도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 이런 훌륭한 마음들이 뭉친 집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단다. 그래서 우린 오늘 뚝쌓기도 빨리 끝내고 장수집게벌레도 물리쳐버린것이다. 사랑스런 나의 동생들아!…》

달룩형님은 목이 메는지 말을 뚝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까지 맺혀있었습니다.

빨룩이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뜨끔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참깨에는 자기가 한입 먹은 이발자리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는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나두 괜히 한입 먹었는데…)

빨룩이는 은근히 후회하였습니다.

형님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벌써 이런 고운 마음을 지니고있구나. 나는 이 고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이 참깨 반쪽을 꼭같이 나누어먹자는걸 말하고싶다.》

《야!》

개미들의 감동에 젖은 탄성이 조용히 터져올랐습니다.

달룩형님은 참깨 반쪽을 잘게잘게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한점씩 나누어주었습니다. 빨룩이에게도 한점이 차례졌습니다.

웬일인지 그 참깨 한점이 빨룩이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가. …) 하고요.

빨룩이는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괴로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가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달룩형의 목소리가 귀가에 울렸습니다.

《기상! 볼룩이네가 큼직한 늦벌레를 끌고온대. 무척 힘들게 가져온다는 소식이 왔어.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누워있던 개미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빨룩이도 일어나려는데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빨룩인 다치지 말아. 아파서 그래.》

노랑이가 얼른 맞장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그렇구나, 아까 몸이 아프다고 했댔지.》

(뭐, 아프다구?)

그러고보니 아까 기분이 나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안했더니 저희들끼리 아파서 그러는것 같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우물우물하는 사이 개미형제들은 모두 나가버리고 방안에는 빨룩이 혼자 남았습니다.

빨룩이는 잠이 말짱 다 달아났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으나 정신은 더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나가볼가.)

그런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벌써 돌아왔나?)

가만히 실눈을 뜨고 보니 동무들이 방안으로 들어오고있었

습니다.
《야, 그 늦벌레가 굉장히 크던데!!》
《그래두 우리가 다 달라붙으니 미끄럼타듯 줄줄 끌려왔어.》
《정말 우리의 뭉친 힘이 제일이야!》
동무들은 사기가 나서 오구작작 떠들었습니다.
빨룩이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돌아누워 자는척 했습니다. 아프다고 했으니 아픈 시늉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그의 곁에 와서 다정히 물었습니다.
《얘, 빨룩아, 너 아프다지? 어디 아파서 그러니?》
목소리를 들으니 달룩형님이였습니다.
《배가… 아팠댔어요.》
어떻게 이 말이 튀여나갔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보니 신통한 대답처럼 생각되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진작 말해야지. 그냥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니? 혼자서 끙끙 앓는건 나쁜 버릇이야.》
《잘못했어요.》
달룩형님은 근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몹시 아프니? 웃배냐? 아래배냐?》
《저… 이젠 다 나았어요.》
빨룩이는 당황하여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좀 보자.》
달룩형님은 그의 배를 여기저기 꾹꾹 눌러보고나서 한참이나 쓸어주었습니다.
《좀 어때?》 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후 다시 들어온 달룩형님은 빨룩이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슬그머니 무엇을 쥐여주었습니다.
《이건 뭐나요?》
《산삼씨알이다. 네가 배가 아파한다고 왕개미엄마에게 말했더니 이 산삼씨알을 주더구나. 우리 동산에 몇개 안되는 귀한거라더라.》
속이 뜨끔하였습니다.

《이걸 몸에 지니고있으면서 자주 향기를 맡으면 아픈것도 낫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했어. 그러니 소중히 건사해라. 나도 처음 본다.》

《?!》

《우리 동산 장수감이 앓아서야 안되지.》

웬일인지 그 말에 눈물이 쑥 나왔습니다.

달룩형은 어느새 다른 동무들에게로 갔습니다.

빨룩이는 형님에게 품었던 불만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라도 거짓말을 했다고 솔직히 말할가?)

그러나 그런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동산에 알려지면 모두들 그를 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할게 아닙니까.

산삼씨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그는 소르르 잠들고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사시간이였습니다.

동무들의 식탁에는 맛난 딸기즙과 장수꿀이 차례졌지만 빨룩이의 앞에는 쑥즙과 돌버섯묵이 놓여있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했으니 별수 없었습니다. 먹을수도 없고 안먹을수도 없어 빨룩이는 이마를 찡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맛나게 먹는 꼬마들을 돌아보고 달룩형님이 빨룩이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룩아, 맛이 없어도 먹어야 해. 약이야. 그래야 빨리 낫는다.》

빨룩이의 잔등을 다독여주던 형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넌 오늘 배도 아픈데 나가지 말고 푹 쉬여라. 네 몫까지 우리가 다 할테니.》

《아니…》

《미안해할게 없다. 빨리 낫기만 해라. 동무들도 다 걱정하는데…》

《…》

이윽고 동무들은 다 일하러 나갔습니다.

방안에는 그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자니 심심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니 더 갑갑했습니다.

빨룩이는 슬그머니 방을 나와 굴길에 나섰습니다. 혼자서 한번 바깥세상에 나가보고싶었습니다.

가고싶은데도 가고 보고싶은것도 실컷 보고 꽃대들마다에서 흐

르는 여러가지 꿀물도 실컷 맛보고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어느새 그는 굴밖에 나와있었습니다. 캄캄한 굴에서 갑자기 나오니 눈이 새그러웠습니다. 동무들의 냄새향이 풍겨왔습니다. 냄새향을 맡으니 동무들은 오른쪽으로 간 모양이였습니다.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빨룩이는 얼른 왼쪽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왼쪽길에서는 동무들의 냄새향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는 누구도 가지 않은것 같았습니다.
깽깽이풀이며 짚신나물이 가득 돋아있는 언덕이 나졌습니다. 그곳에는 꽃도 없고 단물나는 풀대도 없었습니다. 좀더 가니 하얀꽃과 노란꽃이 함께 핀 금은화덩굴이 나타났습니다. 참 고운 꽃이였습니다. 한 꽃대에서 작은 나팔꽃처럼 생긴 금색과 은색의 꽃이 나란히 피는것이 신기했습니다.
해는 점점 더 따갑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여문 제비꽃풀들이 까맣게 익은 씨앗을 《파팍》하고 터치고 있었습니다.
발앞에 떨어진 씨앗을 하나 먹어보니 아직 채 익지 않아 그런지 고소한 맛이 없었습니다.
엉겅퀴꽃이 나졌습니다. 어제 꿀빨아먹던 생각이 나서 부지런히 기여올라갔습니다.
꽃대밑에 단물이 흐르고있었습니다.
역시 맛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시간가는줄 모르고 빨아먹다가 너무 배가 불러 먹을수 없어서야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가니 넙적한 잎사귀들이 한벌 덮인 멍석딸기덩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빨간 열매가 꽃이 피듯 맺혀있었습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맛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습니다.
딸기열매꼭지에 기여올라간 빨룩이는 입으로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딸기가 땅으로 톡 떨어져 때그르 굴러가다가 어느 풀대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빨룩이는 재빨리 달려가 딸기물을 조금 빨아 먹어보았습니다.
어찌나 달콤새콤하고 맛있는지…
빨룩이는 저도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까짓 버섯이나 뜯으라고 하지 말고 딸기나 뜯어오라고 하지.》

참깨 반쪽도 나누어먹었는데 이 딸기 한알이면 온 개미동산이 맛보고도 남을것 같았습니다.

빨룩이는 동산으로 굴려가고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룩이형님도 왕개미엄마도 굉장히 큰일을 했다고 칭찬할것 같았습니다.

빨룩이는 딸기를 굴려가려고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나 끔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잎이 길둥근 모양을 가진 노루발풀밑에서 좀 쉬였습니다.

쉬면서 둘러보니 주변이 온통 노루발풀천지였습니다.

잎이 노루발처럼 생긴 풀나무들이 여기저기에 숲을 이루어 자라고있었습니다.

빨룩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풀구경, 꽃구경도 하고 또 마음대로 먹기도 하고 앉아 쉴수도 있으니 혼자 있는것이 참 편리했습니다. 아마 다른 애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더 있고싶어도 못있고 가고싶어도 그냥 기다려야 했을것입니다.

해가 하늘높이 떠있었습니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간듯 했습니다.

《에라, 좀더 밀어보자.》

그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크게 하고 딸기를 향해 한발자국 떼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코앞의 흙바닥이 흐물거리더니 흙덩어리들이 우로 움씰움씰 올라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앗!》

빨룩이는 너무 놀라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얼른 일어나 흙더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사이 흙은 계속 부풀어올라와 큰 언덕의 봉우리처럼 되였

습니다.

빨룩이는 무작정 도망치려고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잎이 껄껄한 한삼덩굴이며 찔레덩굴이 엉키여있어 도무지 방향을 잡을수가 없었습니다.

한자리에서 그냥 뱅뱅 도는데 그의 등뒤에서 뜻밖에도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헤헤, 넌 뭐가 무서워서 그러니?》

《아이쿠나!》

빨룩이는 더욱 놀라 홱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웬 커다란 곤충이 서있었는데 개미들이 한 쉰마리가 모여도 그의 몸집보다 작을것 같았습니다.

잘룩한 허리며 불룩한 엉뎅이는 개미들의 몸매와 신통히 비슷했습니다.

갈색비로도옷을 맵시있게 차려입은데다가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이 떠돌고있었습니다.

그닥 무서워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룩이는 그가 입은 비단옷에 눈이 갔습니다.

어찌나 멋있는지 도저히 눈길을 뗄수 없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빨룩이는 용감하게 큰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수집게벌레와 당당히 맞서던 달룩형이 생각났던것입니다.

또 개미형제들이 단번에 왁 달라붙으면 이따위가 무어랴 하는 배심도 생겼습니다.

그 키다리곤충은 여전히 얼굴의 웃음을 지우지 않은채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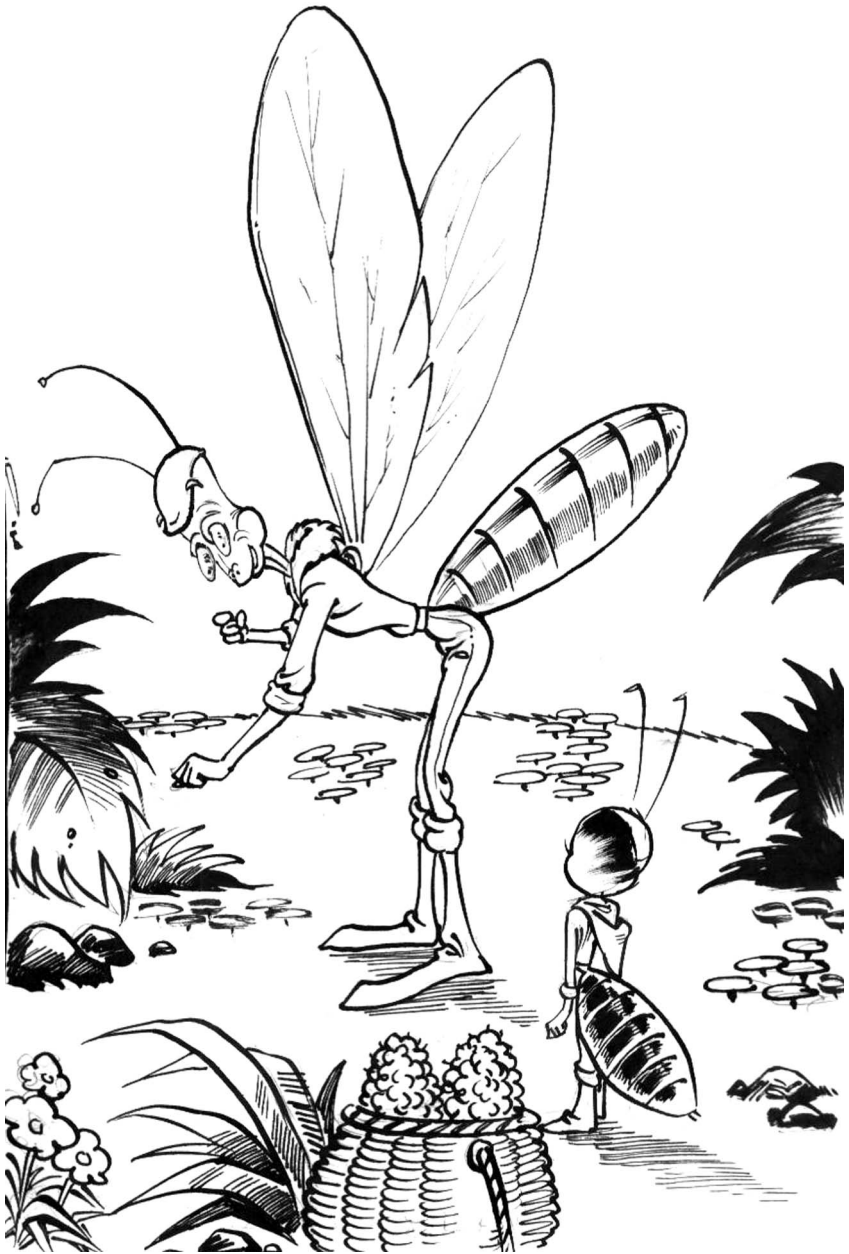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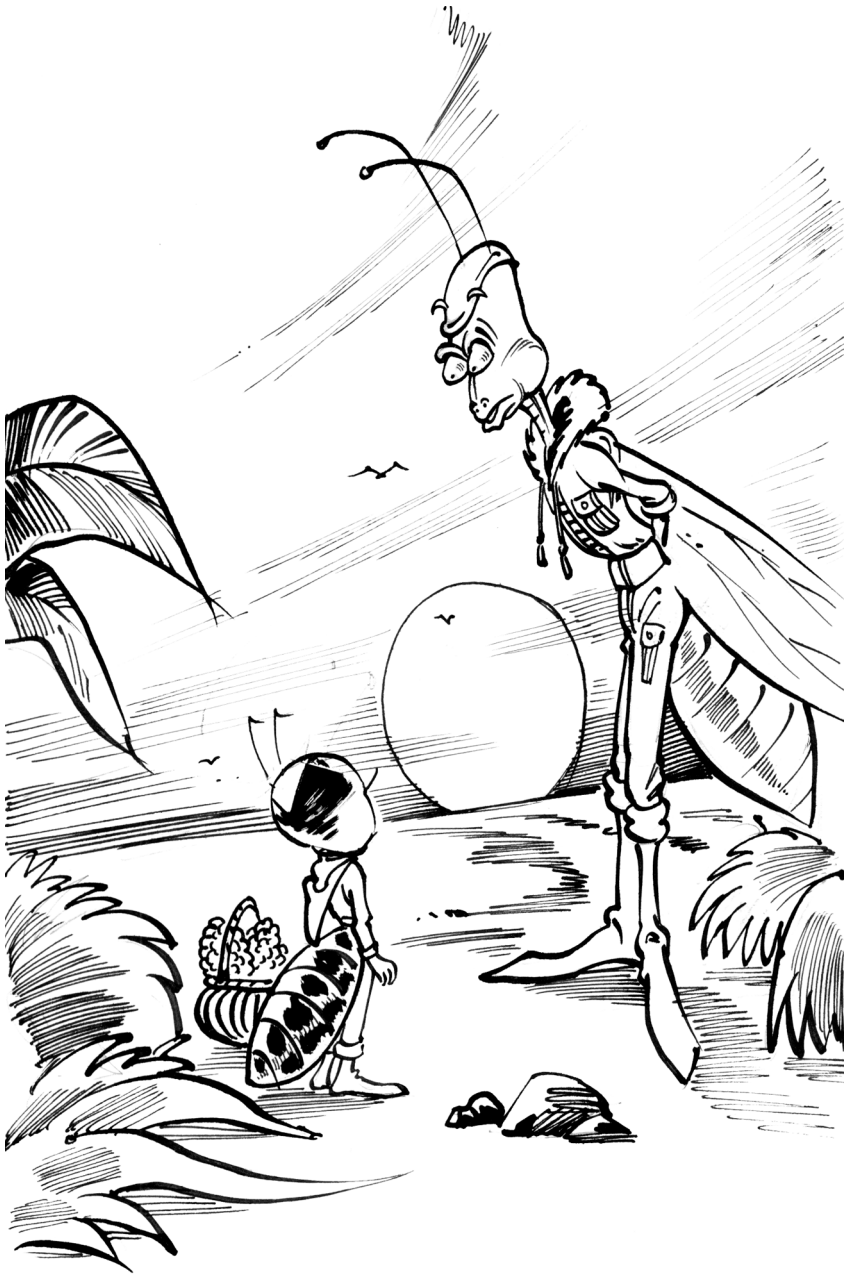
《난 메뚜기와 4촌형제인데 도루래라고 해.》

《뭐, 도루래? 하하하.》

빨룩이는 배를 그러쥐고 깔깔 웃었습니다.

《왜 웃니?》

도루래는 눈이 올롱해서 빨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름이 너무 별래서 그래, 도루래? 도루가라는 뜻은 아니냐?》

《도루래가 어떻다구 그러니. 얼마나 부르기 쉽고 듣기 좋니. 그런데 네 이름은 뭐냐?》
빨룩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난 빨룩이야. 빨랑빨랑해서 왕개미엄마가 그렇게 지어줬어. 숱한 형제들중에서 내가 제일먼저 까나왔거든.》
《그러니 개미구나. 빨룩이?… 이름이 정 나쁘진 않은것 같다. 그러나 그닥 좋은편도 아니야. 좀 까다로워. 내가 다시 지어줄가?》
《싫어, 안돼.》
빨룩이는 딱 잡아뗐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에 대한 긍지가 넘쳐있었습니다.
빨룩이는 도루래를 보며 이렇게 큰 곤충의 집은 어떻게 생기고 형제는 몇이나 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집은 어디냐? 어디서 사니? 이 땅속이냐?》
《아니, 난 저 강건너에 있는 할미꽃동산에서 살아.》
《할미꽃동산? 세상에 그런 동산도 있니?》
《있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래? 그 동산은 여기서 얼마나 머니?》
《음… 너희네 개미걸음으로는 한 백날 걸릴거야.》
《아이구, 그렇게 먼데서 여긴 왜 왔니?》
《난 날개가 있으니까 잠간이면 올수 있어. 놀고 가려구 왔지 뭐.》
《놀고 가려구? 일은 안하구?》
《일이야 하고싶을 때 하는거지 아무때나 하나? 내 다리, 내 날개로 다니는데 내 맘대로지 뭐.》
《내 맘대로?》
빨룩이는 잠시 얼떨떨한 기분으로 도루래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땅속엔 왜 숨어있었니?》

《그저… 숨어있고싶으니까 있었지 뭐. 지금은 나오고싶어 나왔구. 난 뭐나 다 나 하고싶은대로 하면서 살아.》

빨룩이는 도루래의 말이 뿌연 안개속처럼 알쏭달쏭한게 뭐가 뭔지 잘 리해가 안되였습니다.

《그럼 그 할미꽃동산이라는데선 언제 일하구 어떻게 먹고 사니? 그곳에선 제 맘대로 놀고 일하며 사니?》

《그럼! 우리 할미꽃동산은 그런데야. 우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그래?》

빨룩이는 놀랐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곤충들은 모두 자기들, 개미들처럼 사는줄로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맘내키는대루 살아간다니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게 생각되였습니다.

《그 할미꽃동산이란데서는 누구나 그렇게 사니? 너처럼?》

《그렇다는데! 우리 동산에선 다 나처럼 살아. 그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는것도 없구 노래부르고싶으면 노래부르고 춤추고싶으면 춤추고 또 먹고싶으면 먹고 자고싶으면 자고!》

《그래? 그것참!》

빨룩이는 부러운 눈길로 도루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구. 너같이 까시시해서 밤낮 버섯따고 열매따고 모으고, 쉴새없이 돌아쳐서야 그게 사는거니? 고생하는거지! 눈알만 좀 굴리면 먹을것은 사방에 굴러다녀서 발길에 채울 정도야.》

도루래는 신이 나서 자랑했습니다. 보매 그는 빨룩이네들의 생활을 잘 알고있는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빨룩이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우리 왕개미엄만 이 세상에서 우리 개미들이 제일이라고 했어. 학교에서 선생님도 우리 개미들처럼 부지런해야 먹을것도 많아지고 화목하게 산다고 했어.》

《피— 그건 그들이 우리 할미꽃동산에 못와봐서 하는 소리야. 난 너희 동산은 생각만 해도 숨가빠서 못살것 같다얘. 그러고보면

너희 개미들은 참 용해.》
《뭐?》
빨룩이는 불끈 화가 났습니다.
도루래의 말이 《개미들은 바보들이야.》라는 말로 들렸던것입니다.
그런데 도루래는 그냥 빙글거리며 이죽거리는것이였습니다.
《너희들 개미들은 다른 세상을 알지 못해서 그래. 굴속에서 태여나 밤낮 줄을 지어 다니니 그게 제일인줄 알지?
그러나 세상이란 다 그런게 아니야. 제 맘대로 사는게 세상이란 말이야. 제 맘대로 살려고 태여나는거구. 너두 할미꽃동산에 한번 가보면 좀 눈이 밝아지게 될거야. 너같이 날래고 똑똑한 애가 모를리 없지. 너 어제도 장수집게벌레를 쫓아버리는데서 한몫 크게 했지?! 그렇지만 그걸로 얻은게 뭐니? 너희 동산에선 너같이 똑똑하고 날랜 애들덕을 보려 한단 말이야. 너같은 애는 제 맘대로 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해!》
빨룩이는 도루래가 장수집게벌레놈과 싸운 일을 잘 알고있는것이 놀라왔고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춰주고 할미꽃동산에 대하여 하는 달콤한 소리에 그 의문은 곧 잊어버리고말았습니다. 도루래의 말이 정말 그럴듯했던것입니다.
어제 혼자서 그런 위훈을 세운것은 사실인데다 오늘은 또 혼자 나온 덕분에 이렇게 먹고싶은것을 마음대로 먹으며 실컷 놀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빨룩이가 눈만 깜빡거리고있는것을 본 도루래는 더 신명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난 네가 불쌍해. 그 좋은 재간을 가지고 떨떨한것들을 쫓아다니자니… 그곳에서 훌떡 나와봐. 세상을 한번 보란 말이야. 눈을 크게 뜨고! 내가 그걸 보여주겠어! 할미꽃동산에 한번 가보잔 말이야. 내가 데려다 구경시켜줄테니 아무때고 구경할 생각이 나면 이 콩제비꽃나무밑으로 와서 날 찾아라.》
도루래는 심장모양으로 생긴 잎이 엇가로 매달린 덩굴풀인 콩제

비꽃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빨룩이는 할미꽃동산이라는데가 정말 그런델가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무때라도?》
《응, 아무때든 여기 와서 내 이름을 세번 불러. 도루래, 도루래, 도루래야 하고 말이야.》
《알겠어.》
시간이 퍼그나 흐른듯싶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해가 기울고있었습니다.
벌써 수풀이 우거진 주위는 어둑어둑해왔습니다.
《아이구, 저녁전에 가야겠는데. 이걸 어쩌나. 늦었어. 또 말듣게 됐구나.》
빨룩이는 울상이 되였습니다.
그러자 도루래가 자기가 나온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혀를 쯧쯧차며 말했습니다.
《참 힘들게도 사는구나. 고만큼두 맘대로 못해서야 어떻게 사니. 난 그렇겐 하루가 아니라 한시간도 못살것 같다얘.》
도루래는 빨룩이의 앞에 와서 넙적 엎디였습니다.
《내 등에 타라. 데려다줄테니…》
빨룩이는 너무나 고마와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정말 고마와. …》
빨룩이는 그의 등에 닁큼 기여올랐습니다.
그때 자기가 따놓은 딸기가 눈에 띄였습니다.
《저 딸기도 가지고갔으면 좋겠는데…》
빨룩이가 중얼거리자 도루래는 얼른 딸기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뒤이어 날개를 활짝 펼치고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거 정말 미안하구나. …》
빨룩이는 그가 정말 고마왔습니다.
눈깜박할 사이에 그는 나리꽃동산에 와닿았습니다. 낯익은 깽깽이덩굴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 다 왔지?》

《야, 네 날개가 참 보배구나!》

빨룩이는 너무 신기해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이쯤한걸 가지구 뭘그래.》

도루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마음도 참 곱구나.》

《난 쬐쬐하지 않아. 어서 이 딸기도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데 너 날 만났었다는 말은 말아. 경을 칠수 있어.》

《왜?》

빨룩이는 눈이 올롱해서 되물었습니다.

《질투한단다. 똑똑히 알아두 안보고 나쁜 놈하구 다녔다구 덮어놓고 널 몰아댈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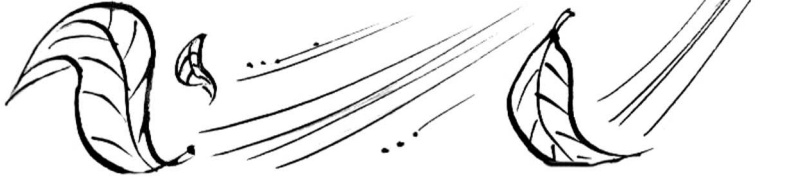
《그—래?》

《음, 두고보렴. 에— 날도 더운데 땅속으로나 가볼가.》

도루래는 서있던 자리를 주둥이와 발로 파더니 눈깜박할 사이에 땅속으로 쑥 들어가버렸습니다.

빨룩이는 퀭한 눈으로 그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얼른 굴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솔씨통과증을 꺼냈습니다.

11. 억울한 눈물

빨룩이가 굴앞으로 다가가는데 보초를 서던 형님개미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섯!》

《통과증이 있어요.》

빨룩이는 재빨리 솔씨통과증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빨룩이가 내든 솔씨통과증을 본척도 않고 물었습니다.

《너 어데 갔다 이제 오니?》

《난 딸기따러 갔댔어요.》

《누가 너보구 혼자서 딸기따러 가라고 했니?》

《…》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때문에 달룩형님이랑 너의 조 형제개미들이 얼마나 안타까와했는지 아니? 넌 오늘 쉬게 되여있었다더구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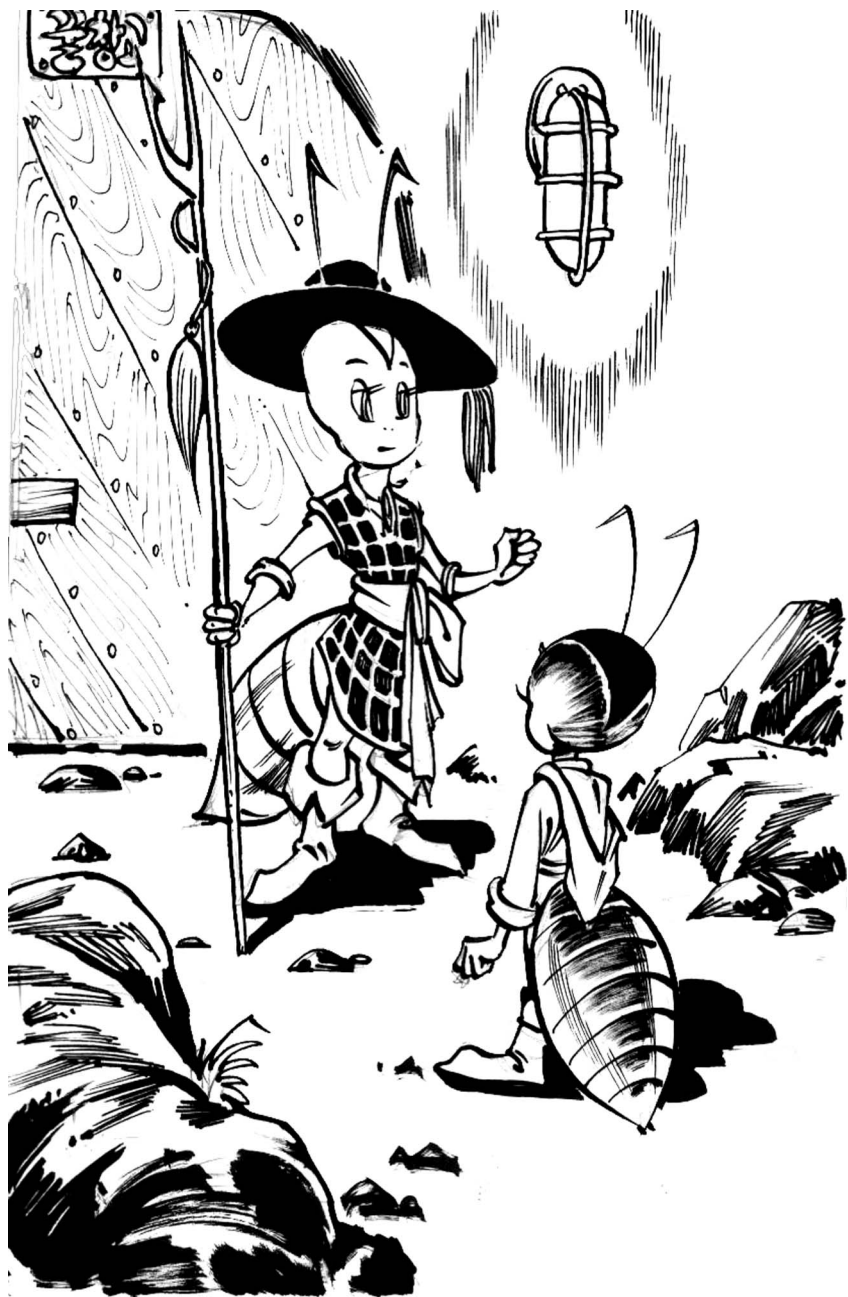
《어서 들어가 잘못이나 잘 말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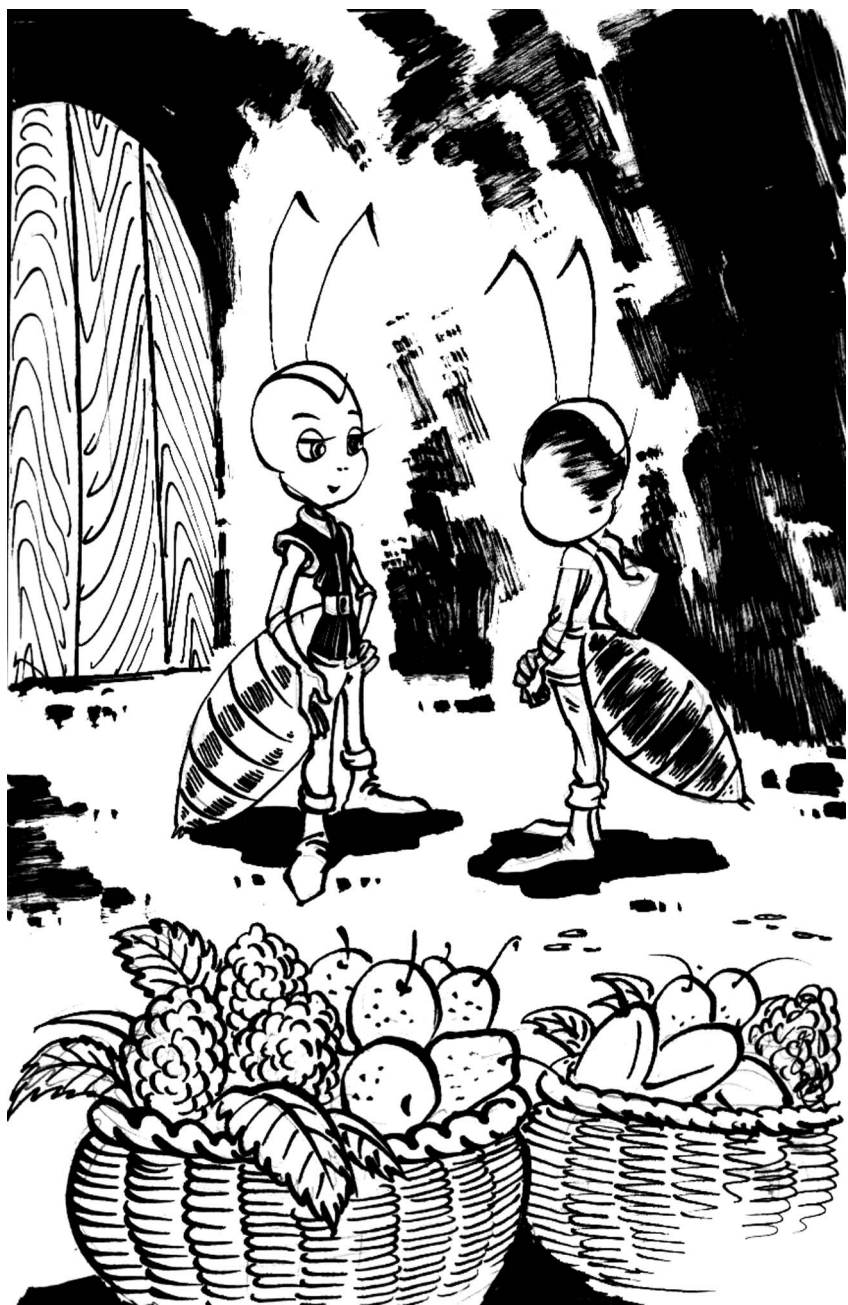
《누구한테요?》

《…》

빨룩이는 풀이 죽어 스적스적 걸어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죽끓듯 했습니다.

(쳇, 이건 만나자마자 욕이야. 정말 재미없구나.)

《가만! 얘!》
형님보초가 또 부릅니다.
《왜 그래요?》
《따왔다던 딸기는 어데 있니?》
《저기 깽깽이덩굴밑에 있어요.》
《그건 왜 그곳에 두었니?》
《너무 커서 끌고들어올수가 없어서요.》
《그럼 그곳까진 어떻게 가져왔어?》
정말 까근까근한게 막 죽을맛이였습니다.
《굴려왔지요 뭐. 병풍언덕이 내리막이 아니나요.》
《그—래?》
보초개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엇을 더 물어볼듯 하더니 마지못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방문을 여니 웬일인지 형제개미들이 서성거리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는것이 보였습니다.
문소리에 돌아본 누군가가 《빨룩이다!》하고 소리치자 《빨룩이?》하며 개미들이 삽시에 문가로 오구구 모여들었습니다.
달룩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빨룩이가 돌아왔구나. 됐다. 다들 제자리에 앉자.》
그러자 형제개미들은 일시에 흩어지며 모두 제자리들을 차지하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아마 빨룩이가 나타나지 않아 술렁대고있었던것 같았습니다. 웬일인지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척 하고 제자리로 걸어들어가려 했습니다.
순간 달룩형님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습니다.
《빨룩이, 거기 좀 서라.》
빨룩이는 우뚝 멈춰섰습니다.
《너 오늘 어데 갔댔니?》
《저… 혼자 있기가 갑갑해서 좋은 일이라도 하려구 딸기따러 갔

댔어요.》
《좋은 일? 어디로?》
《노루발풀숲에…》
《뭐? 노루발풀숲까지? 그래 딸기를 땄니?》
《예.》
《어디 있니?》
《언덕아래 깽깽이덩굴앞에 놔두었어요.》
《그래? 혼자서 예까지 굴려왔니?》
《예, 그래서 늦었어요.》
달룩형님은 빨룩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픈것은 다 나았니?》
빨룩이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예…》
《빨룩아, 여길 봐라.》
형님은 빨룩이에게 그가 서있는 반대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빨룩이는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딸기며 물앵두, 참깨, 들깨, 조팝나무열매, 냉이씨 등 별의별 맛난 열매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릇이 놓여있었습니다.
《저건?…》
《저건 오늘 동무들이 앓고있는 너의 입맛을 돋구어주려고 구해온것들이다. 하루일을 끝내고나서 좋은 일을 했지. 아침에 입맛이 없어하는 너를 보고 다들 속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빨룩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동무들을 마주볼수 없었습니다.
이런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루종일 놀러다닌 자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빨룩이는 저도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것을 알겠니?》

《…》
빨룩이는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달룩형은 더욱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두다 하루일을 끝내고나서 땀을 빨빨 흘리며 맛난 열매들을 구해가지고 오니 글쎄 네가 방에 없지 않겠니. 우린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 모두 근심에 잠겨 저녁들도 먹지 않고 널 기다렸단다. 굴속엔 어디에도 없지.… 모두들 널 찾으러 떠나자고 하던 참이였어.》
빨룩이는 저도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여물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빨룩아, 넌 정말 나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동무들이 얼마나 걱정해주었니. 그런데 지금 보면 아픈것 같지 않구나. 말도 없이 제 맘대로 밖에 나가 돌아다녀서 동무들을 근심시키구.》
이번에는 노랑이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놈이라도 만나면 어쩔려구 그러니.》
(나쁜 놈? 도루래같이 좋은 동무만 만났는데…)
빨룩이는 목구멍까지 튀여나온 이 말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동무들의 실망어린 소리가 귀청을 울렸던것입니다.
《정말 제멋대로야.》
《한심해.》
《개미답지 않아.》
빨룩이의 얼굴에는 송골송골 땀방울까지 돋아났습니다. 미안하던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나도 저희들을 위해 딸기를 따왔는데… 이렇게 망신시켜? 여물이, 어디 두고보자. 노랑이, 너도 두고보자. 비들비들하는 주제에…)
그러자 불쑥 도루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라면 아마 이러쿵저러쿵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다 제 맘대로 한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아마 《좋아, 좋아.》했을것입니다.

달룩형님이 빨룩이의 어깨우에 손을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생각은 어떻니?》

《…》

《동무들의 말을 곰곰히 새겨봐. 다 널 위해서 한 말들이다. 우린 절대로 혼자 다녀선 안돼. 우린 함께 있으면 가장 강한 부대가 되지만 혼자 있으면 가장 연약한 곤충이 된다. 그건 너도 겪어보았으니 잘 알테지. 장수집게벌레를 물리친 날을 생각해보렴.》

빨룩이의 눈에서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뚤렁 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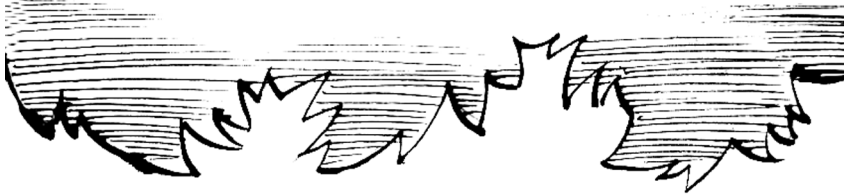
그러나 그것은 뉘우치는 눈물이 아니였습니다. 억울한 눈물이였습니다.

자기를 몰아주기 위해 다들 짜고드는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 나쁜 놈이 그렇게 많은것 같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도루래는 그를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딸기까지 날라다주지 않았습니까. 괜히 떠들어대는것 같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억울한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12. 사라진 달룩이형님

방에 들어와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만났던 도루래가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가 하던 말도 귀에 쟁쟁했습니다.

《우리 동산에서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 놀면서도 맛있는것을 실컷 먹을수 있구 놀구싶으면 놀구 일하고싶으면 일하구 자고싶으면 자구 먹고싶으면 먹구… 난 제 맘대로 사는게 제일 좋아!》

그의 말대로 하면 할미꽃동산이라는데는 아직 한번도 맛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들이 어데 가나 가득하고 누구 하나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 꽃이 활짝 핀 숲속에서 곤충들이 평화롭게 사는 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리꽃동산보다는 못할거야.) 하고 빨룩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만 여물이와 노랑이가 이러쿵저러쿵하는것이 싫었을뿐이였습니다.

그리고 달룩이형도 좀 딱딱해보였습니다.

동무들에게는 인정미가 넘치는데 자기에게만은 딱딱하게 대하는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소르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일어들 나, 기상! 기상!》

깜짝 놀라 깨여나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는데 뜻밖에도 볼룩형님이였습니다.

(벌써 기상이야?)

더 자고싶었습니다. 더듬뿔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우리 조장형님은 어디 가고 볼룩이조장이 와서 깨울가?)

빨룩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볼룩이가 말했습니다.

《너의 조장형님이 없어졌다. 모두 일어나 빨리 찾으러 나가자.》

빨룩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장형님이 없어지다니. … 그건 무슨 말이야?)

리해되지 않았습니다.

《보초가 그러는데 잠간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누나.》

《뭐라구요?》

온몸의 피가 꺼꾸로 솟는듯 했습니다. 다음순간 별의별 생각이 한꺼번에 다 떠올랐습니다.

(길을 잃었나?… 어디서 잘못되였을가?)

빨룩이는 저도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보고는 혼자서 다니지 말라고 항상 말하댔는데 형님은 왜 혼자 나갔나요?》

《글쎄, 무슨 사연이 있겠지. …》

볼룩형님도 안타까이 말했습니다.

모두들 침울해서 서있었습니다. 쿨쩍거리며 우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볼룩형님은 당황한듯 소리쳤습니다.

《자, 어서 나가 찾아보자. 형님이 어디 쓰러져있는지 알게 뭐냐. 밥먹기 전까지 제꺽 찾아 업고들어오자.》

해님은 떠오르지 않았으나 날은 훤했습니다. 이른새벽이였습니다. 1조 개미들도, 3조 개미들도 보였습니다. 아니, 온 동산의 개미들이 다 떨쳐나선것 같았습니다.

《달룩형님!》

빨룩이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어디서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빨리 찾아보자. 멀리 가려면 꼭 짝을 지어가거라!》
볼룩형님이 소리쳤습니다.
개미형제들은 사방으로 흩어져갔습니다.
빨룩이는 달룩형님의 냄새향내가 어디서 나지 않는가 하여 여기저기로 더듬뿔을 휘저었습니다.
아무리 가고가도 냄새향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짐승이나 곤충들한테서 공격받을 때 내뿜게 되여있는 경보향내가 나는가 하여 더듬뿔을 휘저어보았으나 그런 냄새도 없었습니다.
초롱꽃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에 들어섰습니다.
조금 더 가니 깽깽이풀과 바구니나물, 깨풀이 뒤엉킨 풀숲이 나졌습니다.
그는 꽃나무나 풀대들사이를 요리조리 샅샅이 다 훑어보았으나 아무데도 달룩형님은 없었습니다.
(그럼 형님이 죽었단 말인가.)
빨룩이는 개미들이 죽을 때 내보내는 향내라도 나지 않는가 하여 또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냄새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새모래덩굴이 시작되였습니다.
빨룩이는 그속으로 들어가 더듬뿔을 들썩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냄새향내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데선가 금방 내뿜는 경보향내가 확 풍겨왔습니다. 이것은 모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엉? 이게 뭐야. 달룩형을 찾은 모양이구나.》
빨룩이는 경보향내가 풍기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희망으로 들먹거렸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개미들이 경보향내를 맡고 벌써 오구구 모여들고있었습니다.
볼룩형이 보였습니다.
《찾았나요?》

빨룩이는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며 볼룩형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니, 찾지 못했어.》
《한데 왜 모이라고 했나요?》
《달룩이의 흔적을 찾았기때문이야.》
《뭐라구요? 어디서요?》
《가만, 내가 다 모인담에 말해주마.》
빨룩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형제개미들이 다 모여들었고 안타까이 소리치고있었습니다.
《다 모였으니 어서 알려주세요.》
《동무들!》
볼룩이가 모여든 개미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노루발풀숲에서 달룩이 냄새향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그가 하늘로 올랐는지 땅으로 잦았는지 없어졌어요.》
볼룩이의 말에 빨룩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요?》
그곳은 자기가 바로 딸기를 땄을 때 앉아쉬던 곳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음씨 후한 도루래를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빨리 가보자요!》
빨룩이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달룩형님은 왜 거기로 갔나요? 우리보군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개미들이 와작 떠들어댔습니다.
《가만, 조용들 해요. 지금 가야 달룩형님은 거기 없어요. 그러니 인차 아침밥을 먹고 맡은 일을 하러 갑시다. 빨룩이만은 여기 남아서 나하고 함께 가고.》
볼룩이가 조용하나 힘있게 말했습니다.
개미들은 모두 줄을 서서 동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빨룩이가 우두커니 서있는 곳으로 볼룩이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딸기를 어디서 땄니?》
《노루발풀숲에서요.》

《그것봐. 어딘가 이상하지 않아? 사실 달룩형님은 빨룩이 혼자서 딸기를 따가지고 깽깽이덩굴까지 날라온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댔어. 그러더니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나갔댔거든.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했단 말야. 그런데 노루발풀숲에서 달룩이흔적이 사라졌어.》
《…》
《뭔가 이상하지 않아?》
웬일인지 가슴이 후두둑 뛰였습니다. 그러나 도루래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뭐 이상한 일이 없었니?》
빨룩이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딸기는 정말 혼자서 예까지 날라왔니?》
《예.》
《그런데 창고지기 개미가 그 딸기에 이상한 자리가 있다고 해. 도루래의 냄새가 난다고 해.》
가슴은 더욱 세차게 높뛰였습니다. 아마 도루래가 입에 물고 온 그자리가 아닌지 몰랐습니다.
《도루래는 나쁜 놈인가요?》
《나쁜 놈이 아니구. 할미꽃동산에서 사는 놈이다.》
《할미꽃동산은 나쁜데나요?》
《그럼.》
《어떻게요?》
《저 하나밖에 모르는 놈들이 모여사는 세상이란다. 또 어떤 놈들은 저는 일 안하고 놀고먹으면서 남을 부려먹구…》
《그래요?》
도루래의 말과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딴 딸기에 도루래의 이발자리가 있었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후에야 그는 머리속에서 겨우 변명할 말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갖다놓은걸 그놈이 물고가려고 했던게 아닐가요? 아니면 이발자리가 있는걸 내가 땄는지…》

《그놈은 열매보다 뿌리즙을 더 좋아하는데…》

볼룩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하여튼 혼자 다니지 말아. 이상한 일이 많아. 죽은 놈이지만 늦벌레도 나타났댔지.》

볼룩이는 유심히 그를 보며 말했는데 무엇을 알아내려는듯한 눈초리였습니다.

빨룩이는 속이 켕기였습니다.

빨룩이는 그 눈길을 피해 머리를 푹 숙이며 덮어놓고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어느새 아침해가 둥실 떠올랐습니다.

동산앞에 이르니 아침밥을 먹고나온 동무들이 하나 둘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도 어서 들어가 아침을 먹자.》

볼룩형은 빨룩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빨룩이의 머리속에서는 달룩형님의 다정한 모습이 줄곧 떠나지 않았습니다.

빨룩이는 노루발풀숲에 가보고싶었습니다.

달룩형님의 냄새향내도 직접 확인해보고싶었습니다.

정말 달룩형님이 거기서 사라졌다면 도루래를 찾아서 알아볼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놈이 나쁜 놈이라면 형님이 없어진것이 자기때문이라고 생각되여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그 도루래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 시원히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라면 왜 자기는 다치지 않고 달룩형님만 잡아갔겠습니까. 리해할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나서 다시 달룩이를 찾는 조가 무어졌습니다.

다른 조들은 다 일하러 가고 달룩형님네 조인 빨룩이네만 찾게 되였습니다.

혼자서 다니지 말고 둘이상 짝을 무어다니도록 했으나 그는 한창 조를 짜줄 때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어쩐지 혼자 가보고싶었습니다.

잘못하다간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날수 있기때문이였습니다. 혼자 가서 슬그머니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어느덧 그의 앞에 잎이 길둥근 모양의 노루발풀이 나타났습

니다.

《에쿠, 벌써 다 왔구나. 정말 달룩형님의 냄새향내가 나는구나.》

그는 저도모르게 중얼거리며 우뚝 멈춰섰습니다.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풀대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달룩이 형님 냄새는 그냥 몰몰 났습니다.

빨룩이는 그 냄새를 따라 그냥 걸어갔습니다.

어떤 풀나무밑에까지 오니 달룩형님의 냄새가 그곳에서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풀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잎이 심장모양으로 생긴 콩제비꽃이였습니다.

빨룩이는 놀랐습니다.

(콩제비꽃나무? 아니 여기야 도루래와 내가 약속한 곳이 아닌가. …)

빨룩이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상하였습니다.

어제 도루래가 자기를 만나려면 세번 부르라고 알려주던 곳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달룩형의 냄새가 사라졌을가?)

빨룩이는 더 생각할 사이없이 도루래의 이름을 세번 불렀습니다.

《도루래, 도루래, 도루래야!》

그러자 갑자기 그가 서있는 땅앞의 흙덩이가 부실부실 깨여지며 우로 솟아올라왔습니다.

잠시후에 털이 보르르한 비단옷을 입은 도루래가 불쑥 땅우로 나타났습니다.

《빨룩아, 그래 우리 동산에 가볼려구 결심을 했니?》

도루래는 빨룩이의 손을 덥석 잡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도루래가 나쁜 놈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가 아니야.》
빨룩이는 방금전까지 그를 의심했던것이 미안해서 떠듬거렸습니다.
《그럼 왜 날 찾았니?》
《우리 달룩형님이 여기서 없어져서 그래. 넌 알지 못하니?》
《아니 대체 누가 없어졌다구?》
《우리 조장형님인 달룩이말야.》
《언제?》
《어제.》
《난 보지 못했어. 어제야 너와 내가 만난 날이 아니냐?》
《응,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없어졌어.》
《그가 저녁에 왜 혼자 나왔대? 너희들은 혼자 다니면 안된다면서?》
도루래는 빨룩이보다 더 속상해하였습니다.
빨룩이는 시무룩이 대답했습니다.
《나때문이야. 내가 혼자서 딸기를 따서 날라온것이 이상하다며 나갔다가 안돌아왔거든!》
도루래는 코웃음쳤습니다.
《흥, 그러니 널 의심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아니야. 내가 걱정돼서 그랬지뭐. 날 사랑해주던 형님이였어.》
도루래는 번득이는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빨룩이는 그냥 혼자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데. 여기까지 와서 달룩형님 냄새가 온데간데 없어졌거든.》
그러나 아무리 왔다갔다 하며 찾아봐도 더 이상 달룩이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를 어정거리며 오가던 도루래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참, 그게 아니였을가?》
《뭔데?》
《오늘 새벽에 말야. 내가 너무 오줌이 마려워서 밖에 나왔댔는

데 글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막 날려갈것 같더구나. 그래 오줌도 못누고 도루 들어가려는데 내 머리우에서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겠니? 살려주세요— 하고말야.》

《그래서?》

빨룩이는 가슴이 철렁해서 도루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아무것도 안보이고 그저 나무잎들만 막 날려가더구나.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했지 뭐.》

《그 나무잎들이 어느쪽으로 날려가던?》

《저쪽으로.》

도루래는 턱짓으로 할미꽃동산쪽을 가리켰습니다. 빨룩이의 가슴은 쿵쿵 방망이질을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달룩형의 목소리였을거라고 생각되였습니다. 여기서 흔적이 끊어진것으로 보아 분명했습니다.

《그 나무잎들속에 달룩형이 있었구나.》

빨룩이가 확신어린 어조로 말했습니다.

도루래가 손벽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하.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구나. 글쎄 내가 잘못 들었을리 없지. 그때 난 큰 곤충만 찾아보려구 두리번거렸댔어. 개미라는걸 생각 못했댔구나. 분명 그건 달룩이 목소리였어.》

도루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어떻게 할래? 달룩이를 찾으러 가야 하지 않겠니? 내가 도와주겠어. 이 두눈으로 나무잎들이 날려간 곳을 똑똑히 보았으니까.》

《…》

대답이 없는 빨룩이를 힐끔 바라보던 도루래는 이렇게 씨까슬렀습니다.

《넌 겁쟁이로구나. 난 개미들은 다 용감하다고 들었는데.》

《뭐?》

그 말에 빨룩이는 그만 발칵 성이 났습니다.

《내가 뭐 무서워서 그러는줄 알아?》

《그럼 왜 그러니?》
《말을 안하고 내 맘대로 가는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지. 난 거기에 범이 있다고 해도 무섭지 않아!》
《하하, 그래?!》
도루래는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럼 가보겠니?》
《가보자, 까짓것! 난 달룩형을 꼭 찾아야겠어. 달룩형을 찾아만 오면야 말 안하고 갔던것도 용서되겠지뭐.》
《용서되지 않구. 이제 동산에 가서 말하구 오느라면 달룩형은 더 멀리 날려갈지도 몰라. 그럼 동산에선 오히려 널 보구 답답이라고 말할수 있어. 빨룩이가 아니라 답답이라구 말야. 급할 땐 정황판단두 잘해야 돼.》
《옳아, 빨리 가자. 달룩형이 더 멀리 날려가기 전에.》
그러던 도루래가 갑자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안놓인다. 좋은 일하고 또 너를 욕먹히면 어떻게 하니. 너 어제 딸기를 따가고 욕먹었지?》
빨룩이는 시무룩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 욕하던?》
《뭐 제맘대로 했다나.》
《그것 봐. 그런데 또 제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니. 난 매번 너를 도와주구 나쁜 놈이 될게고. 얘얘 싫다. 난 그만두겠다.》
도루래는 갈것처럼 돌아서기까지 하였습니다.
빨룩이는 속이 달았습니다. 그는 도루래의 앞을 막으며 사정하였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달룩형을 찾는 일과 딸기를 딴것과 어떻게 같니.》
《글쎄… 그럴가?》
《그렇지 않구.》
그 말에 도루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얘, 이렇게 하면 어떻니? 이 콩제비꽃나무잎에 써놓고 가잔 말

이야. 〈나 빨룩이는 바람에 날려간 달룩이를 찾으러 갑니다.〉하고 말이야.》
정말 훌륭한 생각이였습니다. 빨룩이는 환성을 올렸습니다.
《야, 멋진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돼! 좋아, 좋아. 넌 정말 지내볼수록 좋은 동무구나.》
좋아서 어쩔줄 모르는 빨룩이를 보며 도루래는 시틋이 대꾸했습니다.
《뭐 그쯤한거야 보통이지 뭐.》
마침내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심장모양의 파란 잎이 나풀거리는 박주가리며 긴 수염을 잔뜩 드리우고있는 산마늘숲도 지났습니다.
도루래는 요리조리 풀대들을 에돌면서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빨룩이는 그뒤를 따라갔습니다.
빨룩이는 한번 날면 순식간에 멀리 가는 도루래가 왜 풀대밑으로 기여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달룩이를 빨리 찾겠습니까.
빨리 달룩형을 찾고싶은 마음에 빨룩이는 조급해서 물었습니다.
《얘, 도루래야, 왜 날 업고 공중으로 휙 날아가지 않니?》
《혹시 너희 동무들이 날 보고 떠들어댈가봐 그래. 널 랍치해간다고말이야.》
《랍치해가다니. 달룩형을 찾으러 가는데, 일없어. 빨리 날아가자, 내가 말할게. 차라리 동무들을 만나는게 더 좋아.》
《이 철딱서니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들이 길을 막고 왕개미엄마의 승낙을 받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공연히 시간만 보내지 않니.
그리고 또 왕개미엄마가 네가 아니라 다른 개미를 보낼수도 있지 않니. 그럼 넌 공을 세울 기회마저 놓치게 돼. 난 다 너를 생각해서 그래.》
그럴듯한 말이였습니다.
확실히 도루래는 궁냥도 깊었습니다.

《으응, 그럼 그냥 가자.》
그들이 백리향꽃나무밑에 다달았을 때였습니다.
문득 《얘, 빨룩아 너 혼자 어데로 가니?》 하는 소리가 파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응?》
빨룩이는 소리나는 곳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붉은 빛갈의 꽃송이가 아름답게 피여난 백리향꽃속에서 꿀을 따던 봉봉이가 묻고있었습니다.
《아, 실습날 만났던 봉봉이형님!》
빨룩이는 반가이 소리쳤습니다.
《난 지금 달룩형을 찾으러 가고있어요!》
《어디로?》
《바람에 날려갔어요. 이제 찾아봐야 해요.》
《아니, 너 혼자 간단 말이냐?》
봉봉이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도루래가 성이 나서 대들었습니다.
《야, 넌 무슨 참견이야?》
《난 빨룩이에게 하는 말이야. 빨룩아, 절대로 혼자서 어데든 다니면 안돼.》
빨룩이는 웃어보였습니다.
《일없어요. 너무 걱정말아요. 그리구 이분은 마음이 좋은분이예요.》
《동산에선 네가 혼자 가는걸 알고있니?》
《예, 콩제비꽃나무잎에 써놓고 왔어요.》
《흥, 우린 할걸 다하고 떠났다.》
도루래가 등이 달아 소리쳤습니다.
안절부절하던 그는 빨룩이의 손을 덥석 잡더니 자기 등에 올려태웠습니다. 그리고 훨 날아올랐습니다.
뒤에서 《빨룩아!》 하고 부르는 봉봉이의 소리가 들리다가 멀어졌습니다.

태여날 때부터 멀리 날지 못하는 도루래는 얼마쯤 가다가 땅에 내려섰습니다.

《아이구 팔이야, 아이구 날개죽지야.》

그는 연신 비명소리를 냈습니다.

봉봉이는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좀 걸어가다가 또 날아가자. 힘들어 죽겠다.》

빨룩이는 미안하여 입속말로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도루래는 봉봉이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고건 말이야,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면서…》

하지만 빨룩이는 봉봉이가 결코 밉지 않았습니다.

《봉봉인 내가 걱정스러워서 그랬던거야.》

《글쎄, 남의 일에 무슨 참견인가 말이야.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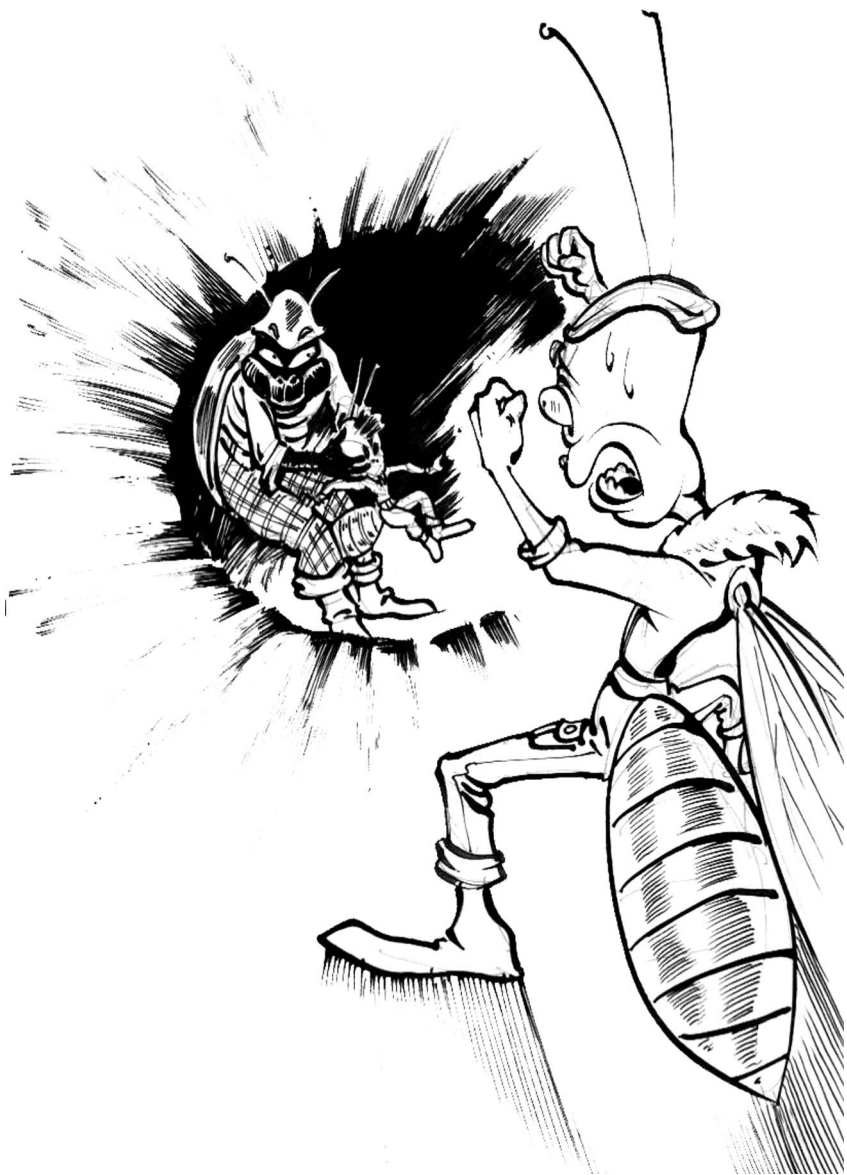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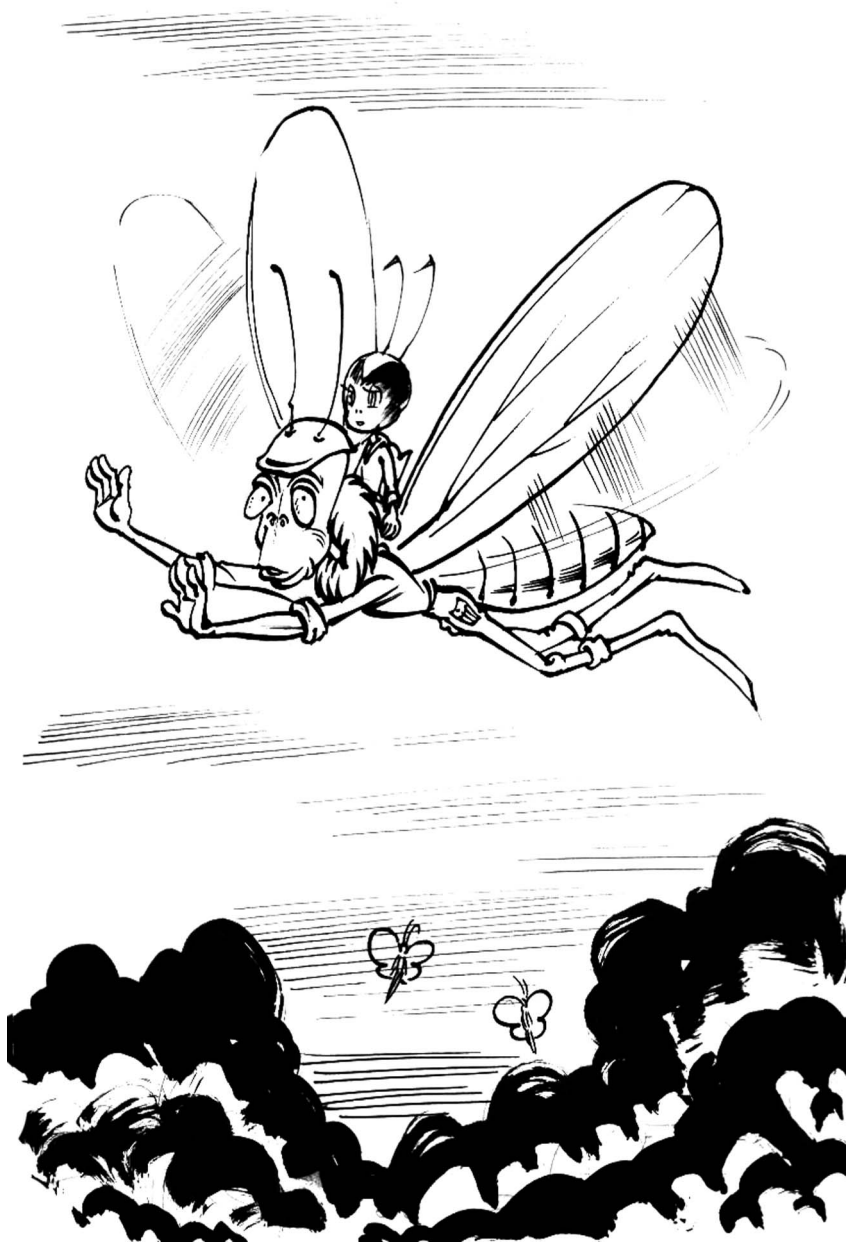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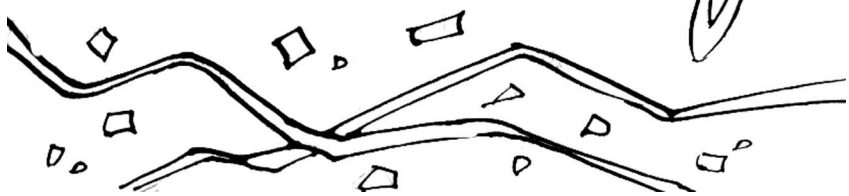
빨룩이는 잠자코있었습니다.

도루래의 도움을 받으며 가는 길인데 기분나쁘게 할수 없었던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쯤 걷느라니 풀 한대없는 모래불이 나졌습니다. 멀지 않은 앞에 강이 흐른다는것을 말해주는 모래불이였습니다. 걷기가 한결 쉬웠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도루래는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아이쿠!》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빨룩이가 자지러진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래?》
도루래가 뒤를 돌아보니 빨룩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룩아, 어데 있니? 빨룩아!》
《나 여기 있어… 여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을 내려다보니 함정이였습니다.
모래경사가 급해서 그냥 미끄러지며 기여오르질 못하고있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모래에 온몸이 거의 다 묻혀버려 겨우 머리만 나와있었습니다.
《흐흐흐, 빠져나가지 못해.》
뜻밖에도 함정속에서 웬놈이 몸을 흔들며 껄껄 웃었습니다.
만만이였습니다. 만만이는 모래속에 숨어있다가 개미를 함정으로 끌어들여 잡아먹는 흉악한 놈이였습니다.
그러나 빨룩이는 아직 만만이가 얼마나 교활하고 흉악한 놈인지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놈은 빨룩이의 한쪽 뒤다리를 잡고 통쾌하게 웃어댔습니다.
도루래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그앨 놓아주지 못하겠니?》
만만이는 들은척도 안했습니다.
《왜 놔줘? 내가 잡은건데!》
도루래는 머리끝까지 성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 그러단 단단히 경을 칠줄 알아!》
《흥, 난 배가 고프단 말이야. 요놈은 아직 어린 놈이여서 만만하고 더 맛이 있을거야.》
빨룩이는 와들와들 몸이 떨려왔습니다.
도루래는 안절부절하더니 만만이에게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얘, 이리 좀 나와. 내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글쎄 나오라니까. 내 말부터 듣고 네 맘대루 하란 말이야.》

《얼른 먹어치운 담에 들으면 더 좋겠는데?》
《야, 너 정말 내 말을 안듣겠니? 내 말이 누구 말인지 몰라?》
도루래가 성이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른듯 냅다 소리질러서야 만만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모래불속에 묻혀있는 빨룩이는 겨우 숨을 쉬며 어쩔바를 모르고있었습니다.
도루래는 만만이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만만이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이거 정말! 너 정말 이러겠어?》
《아, 알만해.》
만만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루래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한몫 주겠지?》
《아, 그야 물론이지.》
만만이는 함정을 터치고 빨룩이를 놓아주었습니다. 빨룩이는 겨우 함정밖으로 기여나왔습니다.
죽을번한 빨룩이는 속이 한줌만 하여 허둥지둥 만만이가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멀리 와서야 빨룩이는 겨우 말했습니다.
《도루래야, 정말 고맙다.》
《고맙긴, 뭐. 그쯤한 일이야…》
빨룩이는 아까 만만이가 도루래에게 하던 마지막말이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그놈이 너에게 한몫 내라던데… 넌 뭘 주어야 되니?》
《응?》
도루래는 왜서인지 당황한 기색이였습니다.
잠시후에야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 너를 놔주면 대신 값을 내라는거지 뭐… 그건 왜 묻니?》
《아니 그저—》
빨룩이는 말했습니다.
《나때문에 네가 값을 낸다면 내가 미안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없겠나 해서…》

《오— 그래서?—》
도루래는 긴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값은 무슨 값? 그따위놈, 내가 언제 또 만나겠다구…》
《응? 그래도 되니?》
《되지 않으면! 내 맘대로지 뭘.》
그러고보면 제 맘대로라는것이 참 편리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웠습니다.
《우리 좀 자고 가자.》
《응.》
도루래는 풀숲에 자리를 잡았고 빨룩이는 잠간사이 땅을 파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빨룩이가 만든 집을 본 도루래도 얼른 그옆에 흙을 좀더 파고 집을 만들어 그들은 땅속 움집에서 같이 쉬였습니다.
《넌 이런데서 자기가 불편하지 않니?》
빨룩이가 묻자 도루래는 대답했습니다.
《좀 불편은 해도 네가 걱정스러워서 그래. 만만이같은 놈들이 언제 어떻게 덤벼들지 모르거든.》
정말 고마운 도루래였습니다. 도루래는 어느새 코를 골기 시작하였습니다.
빨룩이도 피곤했으나 불안해서 얼른 잠들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몸이 떨렸습니다. 개미동산에선 어떤 불안도 없이 자군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자려니 불안해서 마음놓고 잘수 없었습니다. 빨룩이는 처음으로 집이 그리워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어찌나 피곤했는지 정신없이 잠들었다가 깨여나니 벌써 해가 떠있었습니다.
《아,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되였나.》
빨룩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이면 응당 장수꿀을 한그릇씩 먹군 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 장수꿀생각이 나누나.》
《그래?》

도루래는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만들어 먹을순 없니?》
빨룩이는 픽 웃었습니다.
《그건 나 혼자 만드는게 아니야. 온 동산의 개미들이 따온 여러가지 꿀을 모아 오랜 날을 묵여서 만든다고 했어.》
《그래—》
《아무 단물이라도 좀 빨아먹어야겠는데.》
빨룩이는 이 풀대, 저 풀대를 보았으나 신통한 꿀을 내는 꽃대도 없는데다가 아직 단물이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꽃나무들도 밤에는 잠을 자는구나.) 하고 빨룩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자, 빨리 가자.》
도루래는 이렇게 말하며 빨룩이를 등에 업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하늘에 오르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빨룩이는 우쭐해졌습니다.
그와 같이 태여난 개미들은 누구 하나 이렇게 하늘로 날아보지 못했을것입니다. 이제 날아다니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부러워들 하겠습니까. 달룩형까지 찾으면 더 우러러볼수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불안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고 아침을 못먹어 배는 좀 고팠지만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것만은 무척 좋았습니다.
《다 좋을수야 없지 뭐!》 하고 빨룩이는 철학가라도 된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달룩형만 찾으면 형과 함께 장수꿀도 실컷 먹고 이야기도 실컷 나누며 푹 쉬게 될것입니다.
《그래, 빨리 달룩형을 찾아야 해.》
빨룩이는 다시한번 중얼거리고는 도루래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잎이 날아간 곳이 아직 멀었니?》
《다 왔어.》
도루래가 대답했습니다.

제 2 장

할미꽃 동산에서

도루래가 땅우에 내리자 갑자기 환한 불빛이 눈부시게 비쳐들었습니다.

찬찬히 보니 수십마리의 반디벌레들이 꽁지에 불을 켜들고 그를 환영하러 나와있는것이였습니다.

밤이면 더욱 화려했을 풍경이였습니다.

쿵챙쿵챙 징소리, 둥둥 북소리까지 울렸습니다.

《응? 이거 무슨 소리니?》

빨룩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루래가 히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할미꽃마을 친구들이 즐거운 려행길에 오른 너를 환영하여 연주하는 취주악대소리야.》

《아니 뭐 할미꽃동산?》

빨룩이는 당황해졌습니다.

《달룩이가 날아간 곳을 대주겠다더니 날 이리로 데려왔니?》

《그 나무잎이 이쪽으로 날아왔으니까 그러지.》

《정말?》

《정말 아니믄 내가 뭣때문에 널 이리로 데려오겠니. 힘들어 죽겠다야. 너두 꽤나 무겁더구나.》

빨룩이는 당황해졌습니다.

《이거 야단났구나.》

《야단은 무슨 야단. 한번 오기두 힘든데… 좀 푹 쉬고 대접

두 받아보면서 천천히 달룩이를 찾자.》

《뭐라구? 너 무슨 소리를 하니. 난 빨리 달룩이형을 찾아야 해.》

도루래는 그냥 빙글거렸습니다.

《어쨌든 가자.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배를 내밀어, 네 활개를 저으면서. 자, 쪼꼬만 개미라고 우습게 보지 않게!》

도루래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러자 징소리가 쿵챙쿵챙 더 요란해지고 나팔소리며 북소리가 귀를 멍멍하게 했습니다.

길 량쪽에서는 여러 곤충들이 손에손에 꽃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빨룩이는 도루래의 꽁무니를 붙잡았습니다.

《싫어, 난 이리로 안가겠어.》

《걱정말아. 이건 우리 동산의 례의범절이야. 또 풍습이구. 달룩이를 찾으러 왔건 그냥 놀러 왔건 우리 동산에 찾아오는 손님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환영을 한다. …》

《그래?!》

그 말에는 조금 마음이 진정되였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고 모여선 곤충들을 둘러보던 빨룩이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별나게 생긴 곤충들이 다 있다는걸 처음 알게 되였던것입니다.

《저건 다 누구들이니?》

그러자 도루래는 《아차, 넌 모두 처음보겠구나. 내가 소개해주지.》 하고는 톱날처럼 울툭불툭 날이 선 긴 집게뿔을 가진 벌레들을 가리켰습니다.

《집게벌레야.》

그런데 집게벌레들도 형형색색이였습니다.

굉장히 큰 놈이 있는가 하면 보잘것없이 작아보이는 놈도 있었고 얼럭덜럭한 옷을 입은 놈이 있는가 하면 푸르거나 번들거

리는 옷을 입은 놈도 있었습니다.

수수하게 까만옷을 입은 놈도 있구요.

빨룩이가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자 도루래는 《이들은 다 사촌간이야.》 하고 더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컴컴한 갈색옷을 맵시나게 차려입고 몸뚱이보다 더 긴 수염을 기른 친구들앞에 이르자 《귀뚜라미!》 하고 소리쳤고 머리는 작고 납작한 갑옷만또를 입은 곤충들이 나타나자 《노린재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쥐며느리, 모기, 벼룩이, 송장벌레 등 별의별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각기 제 모양대로 생긴 곤충들이 한데 모여 살고있는것이 한없이 놀라왔습니다.

빨룩이는 이제껏 자기와 꼭같은 개미들속에서 살았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줄 알고있었으니까요.

28점벌레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들고있다가 빨룩이에게 안겨주며 류창하게 말하였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제 맘대로 동산〉에 찾아온 빨룩씨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빨룩이는 얼결에 꽃다발을 받았으나 너무 무거워 땅바닥에 툴렁떨구었습니다.

그것을 도루래가 얼른 집어 제 머리에 꽂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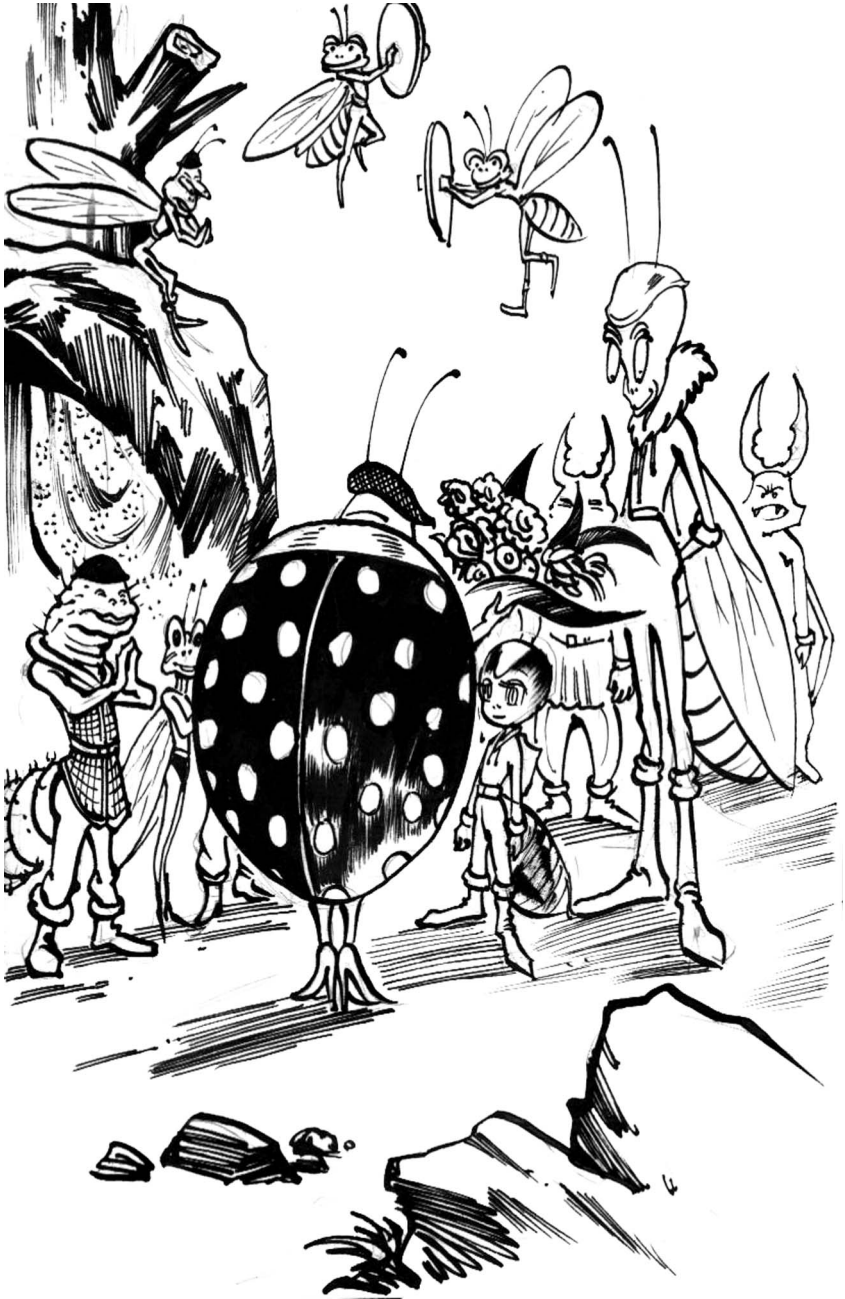
푸접좋은 귀뚜라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빨룩이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환영해주고 꽃다발까지 안겨주니 어떻든 고맙습니다.》

귀뚜라미는 갑자기 앞다리를 빨룩이의 입가까이로 쳐들어올렸습니다.

빨룩이는 자기의 입을 발로 차려는줄 알고 깜짝 놀라 뒤로 냉큼 물러섰습니다.

도루래가 그 모양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얘, 귀뚜라미는 앞다리 관절마디에 귀가 있어 저렇게 해야 네 말을 잘 들을수 있단다.》

《그래?》

빨룩이는 공연히 놀란 자신의 행동이 쑥스러워 멋적게 웃었습니다.

《먼길을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이제부터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 말에 빨룩이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예요. 난 놀러 오지 않았어요. 난 빨리 달룩형을 찾아야 해요. 어제 센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는데 당신은 나무잎들속에서 달룩형을 못보았나요?》

그러자 귀뚜라미는 닁큼 뛰며 말했습니다.

《보았지요. 나무잎들이 한무더기가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그 속에서 〈살려주세요ㅡ〉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내가 날아가 그 소리나는 나무잎을 탁 잡으려는 순간 더 멀리로 날아가지 않겠어요? 아, 어찌나 아쉽던지. 그런데 그게 달룩이란 개미였군요.》

《그래요!》

빨룩이는 등이 달았습니다.

《그럼 저와 좀 같이 찾아봐주세요.》

《아, 찾아봅시다. 찾아보지 않구요.》

귀뚜라미는 빨룩이를 닁큼 들어 자기 목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곤충들사이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빨룩이가 당황하여 소리치자 귀뚜라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덕이 없군요. 남의 동산에 와서 주인한테 인사도 안하려나요? 우리 주인들은 당신을 성의껏 맞이하고있는데 당신은 인사도 없이 달아나겠다는거군요? 우리 서로 례의범절을 지키고나서 달룩이를 찾아도 찾읍시다.》

그 말에 빨룩이는 마음이 좀 진정되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

습니다.
얼마후 울긋불긋 색칠을 한 묘하게 생긴 6각집이 나타났습니다.
그 둘레로는 노린재의 등껍데기같은 방패모양의 울타리가 빙 둘러쳐있었고 문앞에는 얼럭얼럭한 옷을 입은 꽃풍뎅이가 창을 들고 서있었습니다.
빨룩이를 목마태운 귀뚜라미가 도루래와 함께 문앞으로 걸어가자 창을 든 보초가 길을 막았습니다.
《섯!》
《음, 풍뎅이보초병인가.》
도루래가 안주머니에서 까만 열매를 꺼내보였습니다.
보초병은 그것을 보자 막았던 창을 얼른 걷어들이고 빳빳이 섰습니다.
《귀뚜라미야. 넌 돌아가봐. 빨룩아, 들어가자.》
귀뚜라미는 빨룩이를 내려놓더니 《달룩이를 찾을 때 다시 만납시다!》라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도루래와 빨룩이는 보초병을 지나 문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또 얼룩얼룩한 누런 갑옷을 위풍있게 입은 보초병이 까딱않고 서있었습니다.
그는 까만 분지알같은 눈과 자그마한 한쌍의 더듬뿔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섯!》
그가 분지알같은 두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응, 벼메뚜기로구나. 자, 특별통과증이야.》
도루래가 주머니에서 또 그 까만 열매를 꺼내자 벼메뚜기도 더듬뿔을 하늘로 쳐들고 빳빳이 섰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이 귀한 손님을 잘 돌봐야 해.》
도루래가 벼메뚜기에게 말하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그들은 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자 문

은 저절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집안에는 커다란 식탁이 놓여있었는데 거기에는 빨룩이가 처음 보는 굉장한 음식들이 가득가득 쌓여있었습니다.

벽에는 반짝거리는 보석을 박은 벽지를 붙이였고 높다란 천정에는 진주구슬같은 무리등이 매달려 방안을 대낮처럼 밝히고있었습니다.

방구석에는 폭신폭신한 침대가 놓여있었습니다.

빨룩이는 이 모든것을 놀라움에 차서 바라보았습니다.

도루래가 물었습니다.

《어떻니?》

《정말 굉장해!》

빨룩이는 자기가 달룩이를 찾으러 왔다는것도 잊고 감탄어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루래는 벌쭉 웃으며 빨룩이의 잔등을 툭 쳤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널 데리고 온거야. 이젠 내 말이 믿어지지?》

도루래는 그를 식탁으로 떠밀었습니다.

《자, 이건 다 너 먹으라고 차려놓은거니 어서 마음껏 먹어. 난 어디 좀 갔다올게.》

도루래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빨룩이는 하얀 알부터 손에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기가 막히게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빨룩이의 입에 꼭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먹음직스러워보이는 빵그릇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것 역시 꿀맛이였습니다.

풀뿌리로 만든 생채들은 좀 꿋꿋했으나 즙은 맛이 희한했습니다.

열매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빨간 열매, 까만 열매, 노란 열매…별의별 이름모를 열매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음식들은 하나같이 개미동산의 음식들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개미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빨룩이는 어느 음식 하나 제대로 축낼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저것 핥아보고 깨물어보았을뿐입니다.

어떻든 식탁우의 음식을 절반도 맛보지 못했는데 벌써 배가 불러왔습니다.

식탁에서 물러난 빨룩이는 도루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빨룩이는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습니다.

빨룩이가 식탁의 음식들을 맛보는 사이 도루래는 으리으리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침대우에 폭신폭신한 이끼주단을 펴고 누워서 큰 집게로 담배를 꼬나물고있던 장수집게벌레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량옆에 두마리씩 붙어서서 불을 밝혀주고있던 반디벌레중 한마리가 대답했습니다.

《도루래입니다.》

《음, 흐흐…》

작은 머리에 어울리지 않게 큰 두눈알이 량옆으로 삐여져나온 장수집게벌레가 몸을 덮고있는 큰 만또같은 검은 날개를 들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기분좋을 때 하는 버릇이였습니다.

《그래 개미놈을 또 한마리 잡아왔단 말이지?》

《예.》

《바로 내 코등에 붙어 날 혼쌀낸 그놈이라면서?》

《예. 그놈을 면바로 잡아왔지요. 헤헤.》

《그때 그놈만 아니래도 내 그 개미동산에 쳐들어가 장수꿀을 먹고오는건데 그만… 이번엔 그놈에게 단단히 값을 받아낼테다. 나리꽃동산략도만 그려내게 해라. 우리 온 동산이 쳐들어가 그 개미굴을 뒤집어엎자.》

열이 오른 그놈이 긴 집게발을 흔들어대는것을 본 도루래는 저도모르게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
장수집게벌레는 갑자기 도루래에게 달려들더니 집게발로 도루래의 목을 꽉 조였습니다.
깜짝 놀란 도루래는 숨넘어가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 장…장수집게…벌레님… 왜, 왜 그러십니까?…》
장수집게벌레는 집게발을 높이 쳐들어 집게끝에서 버둥거리는 도루래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털썩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개미놈들은 악질이란 말이야. 내 이 집게발도 무서워하는것 같지 않거든…》
그는 얼혼이 나가 목만 쓸어만지는 도루래를 씁쓸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에 오는 도중에 다른 일은 없었나?》
《말도 마십시오. 오다가 만만이놈에게 떼울번한것을 겨우 빼냈습니다.》
《하하, 그놈이 감히 그러더란 말이냐?》
《예. 모두 장수꿀에 눈이 뒤집혔으니까요. 장수꿀을 못먹을바엔 장수꿀먹은 개미라도 잡아먹어야겠다고들 야단입니다.》
《흠, 모두 오래 살고싶겠지. 그담엔 또 없었나?》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건 동산을 떠날 때 봉봉이란 놈이 달려들어서 가지 말라고 냅다 훼방을 놓는데… 참. 그때 아뜩하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섬찍합니다요.》
《헤헤헤, 좌우간 좋다! 그놈을 잘 구슬려서 무조건 나리꽃동산의 략도를 손에 넣어야겠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야. 어제 끌고온 놈보다는 만만하겠지? 그놈은 정말 악질이야.》
도루래는 얼른 머리를 열심히 끄덕거렸습니다.
《예, 요놈은 태여난지 며칠 안되니까 아직 세상물정을 잘 모릅

니다. 만만이도 모르고 여기 와서도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코흘리개지요.》

《그래두 나한테 접어들 땐 아주 용감하던데…》

《분별없는 용감성이지요.》

《좋아. 잘해봐라. 성공하면 네 공으로 쳐주겠다. 부두령자리쯤 줄수도 있어.》

《고맙습니다.》

《너는 허리가 잘룩한게 겉모양이 개미와 비슷하고 털도 부드럽고 목소리도 좋고 또 날기도 하고 땅속에서도 살고 여러모로 개미들과 상대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에 그놈들을 꼬일 임무를 맡겼는데 잘 수행했어. 두놈씩이나 붙잡아왔으니. … 이젠 입을 열게 하는 일만 남았다. 요놈이야 코흘리개라니까 잘만 구슬리면 입을 열겠지. 마지막까지 단단히 한몫 하거라. 지금 고놈의 기분은 어떤가?》

《환영도 잘해주고 상도 잘 차려줘서 좋아합니다.》

《음-》

칭찬을 받은 도루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리꽃동산략도를 손에 넣을수 있을것 같았고 그러면 장수집게벌레가 자기에게 한몫 단단히 줄것이였습니다.

끝까지 잘해보아야 했습니다.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말없이 물끄러미 천정을 올려다보던 장수집게벌레가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그놈들은 정말 운이 좋단 말이야. 그렇게 작은 놈들이 5년, 10년을 살다니. 세상두 불공평하지.》

장수집게벌레는 또 한번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이제 나리꽃동산략도만 손에 넣으면 장수꿀을 먹고 우리도 오래 살수 있습니다.》

도루래는 연신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음- 오래 살아야지. 개미따위가 10년을 사는데 내가 겨우 3년밖에 못산다는게 말이 되는가?》

(3년이면 굉장하지. 난 도무지 2년을 사는데…) 하고 생각하

면서도 도루래는 입으로는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두 풍뎅이, 매미따위들이 40일밖에 못사는데 비하면 3년이 작습니까 뭐.》

《야, 그따위들에게 나를 대비해? 난 이 동산의 왕 장수집게벌레란 말이다. 그런데 올해가 나한테서 마지막해인 3년째 해다!》

도루래도 한숨을 쉬였습니다.

《나도 올해가 2년째 되는 마지막해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죽어야겠는데 죽을 생각을 하니 아뜩합니다.》

《야 이놈아, 죽는다는 소린 왜 자꾸 하는거냐? 이제 그것들을 10년이나 살게 해주는 장수꿀만 빼어내여 먹게 되면 우리도 10년은 더 살게 될거란 말이다.》

《예, 예, 꼭 성공해보겠습니다. 아니,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장수집게벌레는 도루래를 가까이 불러다놓고 한동안 공론을 했습니다.

끄덕끄덕 졸던 빨룩이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음에 저도모르게 눈이 떠졌습니다.

순간 그는 놀랐습니다. 자기가 먹던 식탁우에서 노란딱장이들 여러놈이 달라붙어 게걸스레 먹고 마시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쉬임없이 재깔거렸습니다.

《야, 맛있구나. 오늘 무슨 날이냐?》

《손님이 왔대.》

《그런데 그 손님은 왜 하나도 안먹었나?》

《알게 뭐야, 우리 먹으라고 안먹었는지…》

보아하니 며칠 굶은 꼴들이였습니다. 헤덤벼치며 먹다가 어떤 축들은 음식그릇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좀 잡아줘.》

《혼자 나오렴, 큰 그릇도 아닌데 우는소리야. 날 못먹게 하려구 그러지?》

빨룩이는 저도모르게 웃음이 나서 《호호.》 하고 웃었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딱장이들은 순식간에 휙 날아올랐습니다. 천정이며 담벽에 붙어서 동정을 살피다가 아무일 없으니 다시 식탁에 내려앉아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먼저 배를 불린 여윈 딱장이 한놈이 이것저것 핥아보며 중얼

거렸습니다.

《내가 말했다.》

빨룩이가 턱을 고이고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에 여윈 딱장이뿐아니라 열심히 음식을 먹어대던 딱장이들까지 일시에 고개를 들고 빨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그들이 물었습니다.

《난 너희들이 말하는 손님이다.》

빨룩이는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덧붙여 물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프니? 몇끼 굶었니?》

《너무 많이 굶어서 생각이 안나.》

《너희 동산은 먹을게 많다던데…》

《흥, 누가 그런 허튼 나발 불어?》

빨룩이는 잠시 얼떨떨해졌습니다. 어디까지 진담이고 어디까지 롱담인지 분간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너흰 일 안하니?》

《일? 아이 끔찍해. 우린 일하기 싫어.》

빨룩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놈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건달군들이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도루래가 들어왔습니다.

도루래를 본 딱장이들은 또 후닥닥 날아올랐습니다. 도루래도 그들을 보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야, 이 버릇없는 놈들아, 춤노래를 부르라고 끌어들였더니 도적질을 해? 이 더러운 놈들아, 당장 나가라!》

딱장이들은 도루래가 열어놓은 문으로 쏜살같이 빠져나가며 대꾸질하였습니다.

《흥, 우리 춤노래는 뭐 공짜래?》

《뭐라구?》

도루래는 분을 삭이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빨룩이를 보고는 입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만 아니면 저것들을 다 잡아 혼쌀내주는건데…》

도루래는 식탁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왜 남겨가지고 저놈들이 탕치게 만드니? 맛이 없니?》
빨룩이는 머뭇거렸습니다. 성의를 무시하는것 같아 미안했던 것입니다.
《배가 불러…》
도루래는 씩 웃었습니다.
《하긴 너희들의 배란 내 한입보다 더 작을거야.》
도루래는 휘—익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멋있는것을 보여줄게. 우리 기분전환 해보자.》
도루래의 휘파람소리에 이어 한쪽 벽의 문이 열리였습니다.
알락달락한 색동옷을 입은 범나비가 나오더니 나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할미꽃동산에 찾아온 빨룩씨를 축하하여 우리들이 준비한 유쾌한 춤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들의 춤이 있겠습니다.》
빨룩씨라는 말에 빨룩이는 듣기가 거북하여 중얼거렸습니다.
《빨룩씨가 뭐야. 난 아직 쪼끄만데…》
흰나비, 노랑나비, 알락나비, 큰 오색나비들이 줄레줄레 나타나더니 빨룩이의 앞에서 빙빙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나풀나풀 춤을 추는가 하면 날개를 접고 뱅그르르 돌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쫓겨간 딱장이들도 이런 춤노래에 참가하러 왔다가 음식냄새를 맡고 들어왔던 모양이였습니다.
난생처음 이런 춤을 보는 빨룩이는 입을 헤— 벌리고 정신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야, 정말 춤을 잘 추는데…》
그러다가 꼬리를 홰홰 휘두르기도 하고 허리를 배배꼬며 까불딱거리는 장면이 펼쳐지자 보기가 좀 쑥스러워 저도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그래. 어서 보라.》

도루래가 계속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응.》

빨룩이는 대답하면서도 고개는 들지 못하고있다가 귀뚜라미의 목소리가 들려서야 눈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미꽃동산을 찾아온 빨룩씨를 축하하여 제가 노래 한곡조 불러드리겠습니다.》

빨룩이는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빨룩씨래.》

《일없어. 그건 널 존경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야. 우린 우리 동산을 찾아온 너를 모두 존경한단다.》

도루래가 빨룩이의 등을 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귀뚜라미의 청맑은 노래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라라라 귀뚤 귀뚤…》

그뒤로는 모기가 하르르한 옷을 입고나와 《앵앵》소리로 간드러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시말하면 가무였습니다.

매미들의 합창도 있었는데 말매미와 참매미, 애기매미, 풀매미, 기름매미들이 방안이 좁다하게 꽉 들어차 자기 소개를 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합창이 터져나오자 빨룩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나 소리가 큰지 집이 떠나갈듯 했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골이 지끈거렸습니다.

그렇다고 귀를 막으면 실례될것 같아 안절부절하고있는데 노래는 언제 끝나겠는지 끝이 없었습니다.

도루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빨룩이의 얼굴을 흘깃 보고나서 매미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소란스럽던 합창소리가 뚝 끊어지고 매미들은 주르르 퇴장해버렸습니다.

《이젠 노랜 그만해. 다른것을 보여줘. 말거미네 교예같은것 말야.》

도루래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바쁘게 네쌍의 다리를 어기적거리며 말거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빙그르르 한바퀴 돌고나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빨룩씨가 우리 세상에서 자유롭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인기교예배우가 출연하겠습니다. 내 막내동생인 애기줄거미의 거미줄치기입니다.》

애기줄거미가 무대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배에서 끝없이 거미줄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다각형의 겉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속에다 눈깜박할 사이에 촘촘한 거미줄을 친 다음 날아가던 하루살이가 걸리자 단번에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빨룩이는 너무나 신기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것이 태여나서 처음 보는것이라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참 희한한데… 배에서 실이 나오다니…》

그는 몇번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도모르게 끄덕끄덕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저녁은 너무 피곤하여선지 업어가도 모르게 곯아떨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여 잠을 깬 빨룩이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곁에는 동무들도 없고 여물이와 노랑이도 없는 아주 낯선 곳이였기때문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침대우에서 이리저리 딩구는데 무엇인지 잔등에 배겼습니다. 만져보니 산삼씨였습니다.

그러자 문득 산삼씨를 주던 달룩형님이 떠올랐고 자기가 달룩형님을 찾으러 나왔다가 도루래를 만났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해가 둥실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쿠, 내가 여기 온지 벌써 하루가 지났구나.)

빨룩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구나. 달룩형을 찾아본다는게.)

어제는 하도 환대해주는데 홀리워 까맣게 잊고있었던것입니다.

동산에서 그를 찾느라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루는커녕 잠간만 자리를 떠도 제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온 동산이 걱정하군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도 없이 하루가 지났으니 큰일이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물론 콩제비꽃나무잎에 써넣고 오긴 했지만 그건 승낙이 아니였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하니 모든것이 싫어졌습니다.

도루래는 어디 갔는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 같이 달룩형을 찾아봐줄것처럼 하더니… 빨리 찾아봐야 할텐데. 달룩형이 없어진데다가 나까지 없어졌으니 동산에서 얼마나 야단들 할가. …)

그때 벼메뚜기가 음식그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흘깃 보니 장수꿀도 없고 버섯료리도 없었습니다. 빨룩이의 입에 맞는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울긋불긋한 장미꽃접시들에 담겨진 음식들은 화려한데 구미는 조금도 당기지 않았습니다.

음식그릇을 다 차려놓은 벼메뚜기는 나가버렸습니다.

빨룩이는 일어나 벼메뚜기가 나간 문을 슬며시 밀어보았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바깥과 통해있었습니다. 보초가 서있는 몇개의 대문을 통과하여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던것과는 판판 달랐습니다.

아마 뒤문인 모양이였습니다.

빨룩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안간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빨룩이는 속이 울컥거려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맨 더러운 오물천지였습니다.

앞대문은 화려한데 뒤문은 더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길바닥에 올라서니 저쪽 길목에 곤충들이 오구구 모여있는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저기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 모양이구나. 혹시 달룩형이 쓰러져있는것은 아닐가?)

빨룩이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작 가까이 다가갔으나 몸집이 큰 곤충들이 어깨성을 쌓고있어서 도무지 안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안에서는 째지는듯한 비명소리와 《잘한다! 잘한다!》 하는 고함소리가 엇갈아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일가?)

더럭 근심이 난 빨룩이는 큰 곤충들의 다리짬사이로 겨우 빠져서 맨 앞줄까지 나갔습니다.

순간 빨룩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몸집이 큰 두마리의 풍뎅이가 이마빽에 삐죽 나온 외뿔을 휘두르며 힘내기를 하고있었던것입니다.

하나는 회색풍뎅이고 하나는 검은풍뎅이였습니다.

구경군들은 통쾌한 경기를 보는듯이 제 마음 내키는쪽을 응원하며 《야! 야!》 소리지르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빨룩이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힘내기가 아니라 싸움이였습니다. 그것도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싸움이였습니다.

뒤로 밀리던 회색풍뎅이가 뿔이 꺾어져나가며 넘어졌습니다.

《저런!》

빨룩이는 누가 말리지 않나 하고 이 곤충, 저 곤충 바라보았으나 그들은 더욱 흥이 나서 《검은풍뎅이 잘한다!》 하고 떠들뿐이였습니다.

더욱 승이 난 검은풍뎅이는 넘어진 회색풍뎅이를 밟고 올라가 그의 가슴을 물어뜯었습니다.

《아이구나, 저런!》

빨룩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넘어진 회색풍뎅이는 《아이구, 아이구, 나 죽는다ㅡ》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겁이 덜컥 난 빨룩이는 얼결에 《저 회색풍뎅이가 죽어요. 어서 싸움을 말려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들은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색풍뎅이는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헐떡이고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은풍뎅이는 계속 그를 물어뜯었습니다.

검은풍뎅이를 응원하던 곤충들은 계속 잘한다고 소리지르고 회색풍뎅이를 응원하던 곤충들은 슬그머니 빠져 가버리고있었습니다.

안절부절하던 빨룩이는 맨앞에 서서 재미있게 구경하고있는 자벌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왜 말리지 않아요? 예? 어서 말려야지요!》

그러나 자벌레는 시끄러운듯이 몸을 발딱 일으켜세우더니 《이건 어떤 녀석이 와서 훼방이야? 흥이 깨지게.》 하며 긴몸뚱이로 그를 탁 밀쳐뿌렸습니다. 그바람에 빨룩이는 저만치나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구정물이 고인 물웅뎅이였습니다.

뜻밖의 봉변을 당한 빨룩이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푸 어푸—》

그러나 모두들 들은척도 본척도 안했습니다.

빨룩이는 꼴깍꼴깍 구정물을 먹었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질식될것 같았습니다.

풍뎅이들이 싸우던 곳에서는 검은풍뎅이가 《이겼다!》 하고 웨치는 소리가 들리고 회색풍뎅이는 숨이 넘어갔는지 길복판에 너부러져 꼼짝도 않고있었습니다.

구경하던 곤충들이 흩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룩이는 계속 숨가삐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곤충들은 그를 보면서도 구원해줄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우적거리는 빨룩이의 모습을 한참이나 서서 지켜보다가 시시덕거리며 손가락질을 하더니 그대로 지나가버리는 축들도 있었습니다.

아, 동산에 있었더라면! 갑자기 동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라면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것을 보고만 있지도 않았을것이고 물에 빠진 그를 이렇게 버려두지도 않았을것이였습니다.

아, 난 이렇게 썩은 물웅뎅이에 빠져죽는구나. 동산의 동무들도 모르게, 왕개미엄마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니 기가 막히기만 하였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며 버드나무잎이 하나 날아와 물웅뎅이에 떨어졌습니다.

버들잎은 물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더니 다행히도 빨룩이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룩이는 급히 버들잎에 기여올랐습니다.

《아, 살았구나.》

다시는 볼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저도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버들잎도 그의 마음을 알았던지 기슭으로 동동 떠갔습니다.
빨룩이는 마침내 기슭으로 해서 땅으로 기여오를수 있었습니다. 큰길에 나서니 죽은 회색풍뎅이가 보였습니다. 회색풍뎅이가 길 한복판에 죽어 넘어져있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가고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달룩이를 찾아보자던 귀뚜라미가 흰수염을 맵시있게 휘두르며 저쪽에서 걸어왔습니다. 빨룩이는 반가와 그에게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회색풍뎅이가 죽었어요. 검은풍뎅이가 죽였어요.》
귀뚜라미는 어제와 달리 무뚝뚝해서 회색풍뎅이의 시체를 흘깃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왜 시끄럽게 굴어. 회색풍뎅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쩌라는거야? 회색풍뎅이는 싸움에서 졌으니 죽어버린건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막 죽이면 돼요? 그리고 죽은 시체라도 묻어주어야 하지 않겠나요?》
《그걸 왜 하필 내가 한단 말야? 죽이고싶어서 죽인거고 내버려두고싶어서 내버려두는건데. 상관하지 말아. 여긴 제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야.》
빨룩이는 들을수록 어이없는 그의 말에 정신이 뻥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밸이 불끈 치밀어 당돌하게 대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제 날 보고 례의가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영딴판이군요.》
《흥, 어젠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귀뚜라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달룩형을 함께 찾아보자던 약속은요?》
《흥, 달룩인지 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라구요?》
빨룩이는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룩이는 약이 올라 내쏘았습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흥, 아무렇게나 말해도 좋아.》

귀뚜라미는 이러며 어디론가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제 마음대로 사는 세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였습니다.

빨룩이는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쑥 빨리 동산으로 돌아가고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굴속에서 형제들과 함께 꿀도 먹고 맛있는 버섯료리도 먹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불현듯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굶었던것입니다.

방안으로 들어온 도루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빨룩이가 없어졌던것입니다.

《얘, 빨룩아, 빨룩아—》

대답소리는 어디서도 없었습니다. 음식상도 다치지 않은채로입니다.

《그럼 어제밤에?》

그런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잠자리에는 빨룩이가 잔 흔적이 있었던것입니다.

《얜 말도 없이 어딜 갔나?》

부리나케 밖으로 나와 또 소리쳐불렀습니다.

《빨룩아— 빨룩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루래는 6각집대문앞에 서있는 벼메뚜기보초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벼메뚜기!》

《옛!》

벼메뚜기는 두날개를 옆구리에 딱 붙이고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너 어제 나와 같이 들어온 빨룩이라는 개미 못보았어?》

《아침에 내가 밥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있었는데요?》

《그래? 그후에 나가는것을 못보았나?》

《이리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벼메뚜기의 태도를 보니 거짓말하는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마당끝 대문앞에 서있는 꽃풍뎅이보초에게 물었습니다.
《야, 꽃풍뎅이!》
《옛!》
꽃풍뎅이도 등실등실한 몸집을 바로하고 눈이 퀭해서 대답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너 그리로 개미새끼 내보내지 않았어?》
《아닙니다. 하루살이 한마리 얼씬 안했는데요.》
이상했습니다.
도루래는 급히 장수집게벌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방 잠에서 깨여난 장수집게벌레가 풀미끼의 안마를 받다가 물었습니다.
《저, 개미놈을 처리했습니까?》
《아니.》
장수집게벌레는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했습니다.
《왜? 그녀석이 없어졌나?》
《예. 6각집안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뭐야?》
장수집게벌레의 상통이 대뜸 이지러졌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놈을 놓쳤어? 집안에 있는 놈도 놓친단 말이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면 다야?》
장수집게벌레는 화가 독같이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고아댔습니다.
《그놈을 당장 찾아내라. 못찾아내면 네 목을 뎅겅 자르고말테다!》

《걱정마십시오. 뛰여야 벼룩이지요. 일부러 뛴게 아니라 실수로 나간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망가지는 않았고 인차 나타날겁니다.》

도루래는 이렇게 주어섬기고 급히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을가?》

다시 방으로 들어온 도루래는 한바퀴 빙 둘러보다가 뒤문이 빠금히 열린것을 보았습니다. 얼른 달려가 밀어보니 쉽게 열렸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에이.》

코를 싸쥐고 밖을 내다보니 큰길이 바로 눈앞에서 바라보였습니다.

《이리로 빠졌구나.》

도루래는 성이 나서 벼메뚜기를 불렀습니다.

《야, 네가 이 문으로 드나들었지?》

벼메뚜기는 얼떨떨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문건사도 바로 못하는 너같은 놈은 6각집보초 자격이 없어.》

《잘못했습니다.》

도루래는 벼메뚜기에게 또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잘못했다면 다야? 당장 나가라. 모가질 분질러놓기 전에 썩 사라져—》

벼메뚜기는 황황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동안 골을 싸쥐고있던 도루래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뛰여야 벼룩이지. 할미꽃동산에서 제가 어쩐단 말이야. 어디서든 나타날거야.》

빨룩이는 먹을것이 없나 하여 이곳저곳 살폈습니다.

나리꽃동산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있는 꽃도 여기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이 있다는 할미꽃만이 여기저기에 우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피여있었습니다.

어디에 버섯이나 꿀물이라도 빨아먹을 풀대가 없는가 하여 두리번거렸으나 온통 잎이 껄껄한 한삼덩굴이나 쑥새풀따위들이였습니다.

도루래가 화려하게 그려보이던 할미꽃동산과는 영 딴판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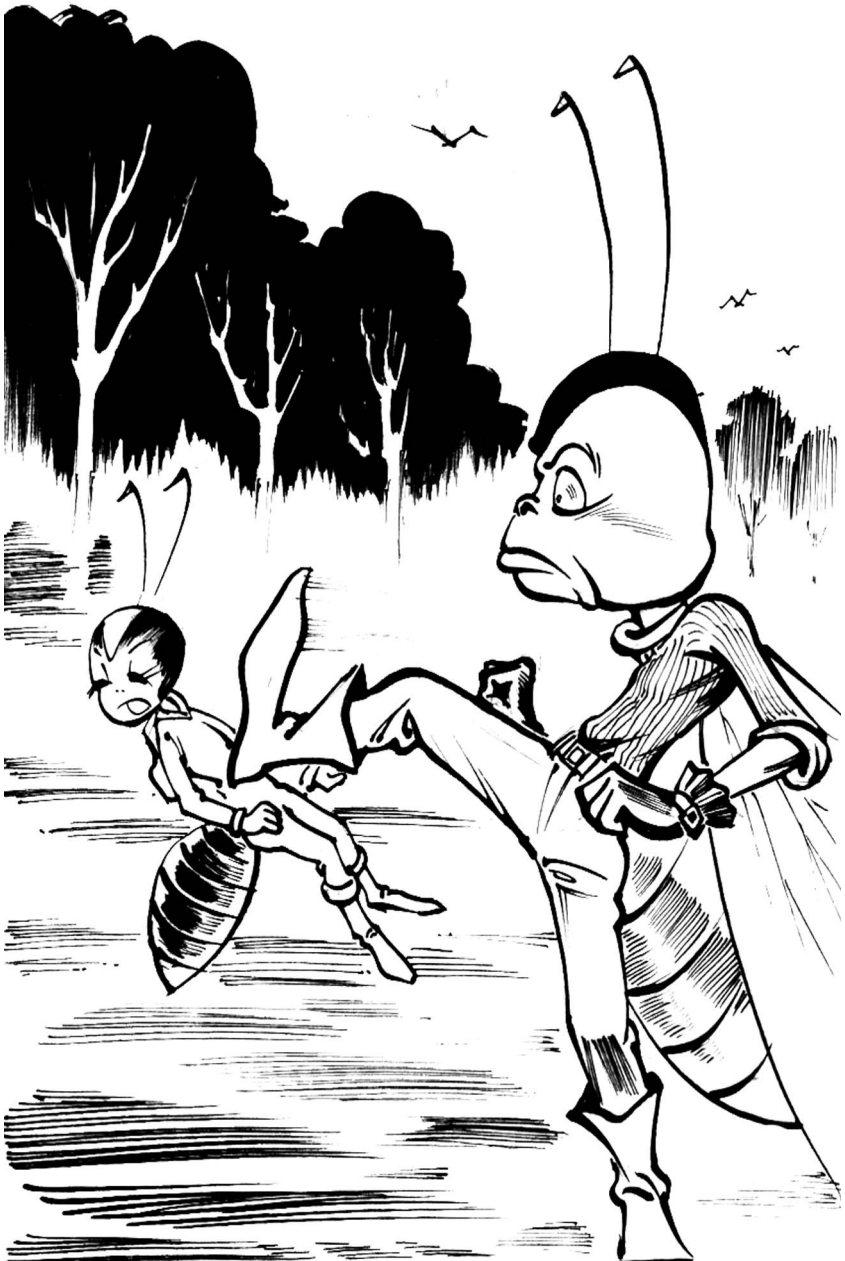
문득 저쪽길로 도루래와 비슷한 곤충이 걸어가고있는것이 보였습니다.

《도루래야, 도루래야.》

빨룩이는 그의 뒤를 따라 부리나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루래는 자기를 피하는것 같았습니다. 빨룩이가 따라갈수록 더 빨리 걷는것이였습니다.

그래도 빨룩이가 그냥 따라가자 우뚝 서더니 휙 돌아서 마주왔습니다.

《넌 왜 시끄럽게 날 따라와?》 하고 깩 소리치기까지 하며 말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도루래가 아니였습니다. 빨룩이는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안됐어요. 도루랜줄 알고…》
《난 노린재야. 신성한 내 몸에 기분나쁘게 아무 이름이나 막 갖다붙이지 말아. 난 지금 큰 곤충네 집 보초로 뽑히여 가는 길인데 네가 지체시켰단 말야. 무엇으로 보상할테냐?》
《보상?》
빨룩이는 얼떨떨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나요?》
《무슨 뜻? 챠, 요게 시침을 딴다?》
빨룩이의 아래우를 한참 훑어보던 노린재는 《쯧, 아무것도 가진게 없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밸풀이라도 해야지 널 그냥 놔줄순 없어.》 하며 그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아이쿠.》
빨룩이는 비명도 지를새없이 언덕으로 날아내려 떨어졌습니다. 이 돌부리에 부딪치고 저 돌부리에 부딪치며 나떨어진 빨룩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말았습니다.
한참만에 정신을 차리고보니 온몸이 성한데없이 얼얼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었습니다. 도루래와 헛갈려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게 제 맘대로 사는 세상인가?)
빨룩이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서 이놈의 세상을 벗어나고싶었습니다.
(달룩이를 찾으러 왔으니 어쨌든 나 혼자서라도 빨리 달룩형을 찾아보아야겠어.)
배에서는 연방 꼬르륵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을 완전히 굶은데다 두번씩이나 봉변을 당하고보니 막 어질어질했습니다.
이러다간 달룩형을 찾기는커녕 도루래도 못만나고 죽을것 같았습니다.

겨우 일어난 빨룩이는 언덕을 톺아올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려 걸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벼메뚜기가 들여온 아침을 억지로라도 좀 먹는건데…)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겨우 길에 올라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데 앞에서 번들거리는 갑옷을 입은 줄집게벌레가 큼직한 버섯같은것을 물고 마주오는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니 더욱 배가 고파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빨룩이는 급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노린재에게 이름을 잘못불러 경을 친것이 생각나 될수록 조심히 부드럽게 말하면서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줄집게벌레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저, 당신이 메고가는 그것이 버섯이 아닌가요?》
《응? 버섯?》
줄집게벌레는 자기가 메고오던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룩이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난 아침부터 온종일 굶었어요. 미안하지만 그 버섯을 한쪼각만 줄수 없나요?》
그 말에 줄집게벌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하하. 네가 온종일 굶었건 열흘을 굶었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말 별꼴 다 보겠구나. 저리 비켜라.》
《정말 못견디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한입만 주세요.》
빨룩이는 그의 앞길을 막고 사정사정하였습니다.
연방 애걸하는 빨룩이를 내려다보던 줄집게벌레는 별안간 빨룩이를 눈여겨보더니 얼굴에 웃음을 띄웠습니다.
《그럼 한번 선심을 써볼가? 한데 이걸 주면 나한테 뭘 주겠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신세를 갚겠습니다.》
《이놈 봐라. 날 반편으로 아는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걸 공

짜로 선사하란 말이지? 그건 안돼!》

그는 뿔처럼 삐쭉 나온 집게로 빨륵이를 훌 밀어버리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바람에 나가넘어진 빨륵이는 모래바위에 부딪치며 무엇이 몸에 배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에 걸고있던 산삼씨알이였습니다.

빨륵이는 얼른 산삼씨알을 벗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집게벌레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그럼 이 산삼씨알을 드리겠어요.》

《뭐, 산삼씨?》

줄집게벌레는 멈춰서더니 산삼씨를 빨륵이에게서 받아쥐고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풍겨오고 기분이 맑아졌습니다.

《이건 어디 쓰는거야?》

《산삼씨입니다. 이걸 몸에 지니고있으면 앓지 않는답니다.》

《그래?!》

줄집게벌레는 대뜸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건가? 그렇다면 꽤 쓸만한것이란 말이지. 에라, 밑지는셈치고 바꾸어볼가. …》

줄집게벌레는 제가 메고오던것을 통채로 빨륵이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가지게. 난 쬐쬐하지 않아.》

빨륵이는 버섯을 받아들자 너무도 고마와 허리를 굽히고 몇번이나 절을 하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줄집게벌레는 헤벌쭉거리며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빨륵이는 배고픈김에 얼른 버섯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이겠습니까. 버섯은 깨물어지지 않고 굳고 단단한 차돌처럼 이발에 딱딱 부딪쳤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즙이라도 빨아보려 했으나 어찌나 말랐는지 습기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가?》
그는 버섯을 입에서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버섯이 아니라 딱딱한 마른 나무쪼각이였습니다.
(속았구나.)
결국은 먹지도 못할 나무쪼각을 산삼씨와 바꾼셈이였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나무와 버섯도 가려보지 못한것이였습니다.
당황해진 빨룩이는 줄집게벌레가 사라진쪽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날까지 어두워져 줄집게벌레가 간 곳을 찾을수 없었습니다.
맥이 탁 풀렸습니다.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속히우다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앞일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은 어둠조차 무시무시하였습니다. 능쟁이풀들조차 비릿한 냄새로 굶주린 그의 배속을 메슥메슥하게 휘저었습니다.
그때 어둠속에서 웬 곤충이 걸어왔습니다. 그 곤충은 빨룩이를 보자 대뜸 큰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길목에 자빠져있으면 어쩌자는거야?》
빨룩이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너무 맥이 없어 그럽니다.》
그는 찬찬히 빨룩이를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아, 처음보는 친구군. 그래 임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인가?》
《저는 나리꽃동산에서 바로 어제 이곳으로 온 빨룩입니다.》
《뭐 나리꽃동산?》
순간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나리꽃동산에서 온 개민가?》
《예.》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구요.》

《여긴 누구와 같이 왔나?》

《도루래하구요.》

《도루래와… 흠 도루래와 같이 왔단 말이지?》

빨룩이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루래를 아나요?》

《알지 않구. 협잡군이지!》

《뭐라구요?》

《됐어. 걸을수 없으면 내 등에 업히게. 우리 집에라도 가서 뭘 좀 먹자구. 음, 그놈에게 걸렸구만.》

그는 등을 돌려댔습니다.

빨룩이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여기에도 고마운 곤충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목이 메도록 고마왔습니다.

그래서 빨룩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어제아침 큰 바람에 날려온 개미를 못보았나요?》

《못봤어.》

《분명 이쪽으로 날려왔다던데요.》

《그를 찾으러 왔나?》

《예.》

《누가 그래? 이리로 날려왔다고?》

《도루래가요.》

《또 도루래로군. 흐흐흐, 넌 속히웠어. 그놈은 협잡군이야. 어제아침에 큰 바람은커녕 작은 바람도 안불었다.》

모를 소리였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도루래가 아니였던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자, 어서 내 등에 오르라는데…》

그는 등을 돌려댄채 독촉했습니다.

빨룩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성함이라도 알고싶습니다. 후에라도 신세를 갚을수 있게…》

그러자 그는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 이름은 돌드레라고 하네.》

빨룩이는 놀랐습니다.

도루래란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였으니까요.

《그래요? …돌드레라면 도루래와 친척간인가요?》

《음, 이름은 비슷해. 하지만 우린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야. 그 협잡군은 땅속에서 살지만 나는 나무에서 살거든. 그리고 우리 이름의 유래를 따지면 돌도 들수 있는 힘장수라고 해서 돌드레라고 부른다네. 어서 업히라는데. 자, 내 이 다리를 타고 등에 오르게.》

돌드레는 실한 다리를 땅에 눕혔습니다.

빨룩이는 그의 다리를 사다리로 하여 든든한 잔등으로 기여올라갔습니다.

참으로 편안했습니다. 돌드레는 성큼성큼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가더니 커다란 참나무앞에 멈춰서서 빨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집일세. 들어가세.》

돌드레는 밝고 깨끗해보이는 참나무밑둥집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참나무밑둥속에 지은 넓고 큼직한 그의 집안에서는 싱그러운 참나무의 향기가 넘쳐났습니다.

《여기 좀 누워있게.》 하고 돌드레는 그를 남겨두고 어디론가 나갔다가 싱싱한 나리꽃을 꺾어들고 들어왔습니다.

《야! 나리꽃, 돌드레선생님도 나리꽃을 좋아하시나요?》

빨룩이는 싱싱한 나리꽃을 보자 동산에 돌아온듯한 기분이 들어 환성을 올렸습니다.

《아, 그럼. 난 나리꽃이 참 좋아. 첫여름에 제일먼저 꽃을 피우면서 오래오래 신선한 모습으로 세상을 단장하는 나리꽃을 보면 저도모르게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지.》

《할미꽃동산에도 나리꽃이 있군요.》

《그럼.》

빨룩이는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돌드레는 어디선가 버섯 한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네들은 버섯을 좋아하지. 이거라도 요기하고 푹 쉬게나.》
《정말 고마워요.》
빨룩이는 너무 배가 고팠던 참이라 눈깜짝할사이에 버섯 한덩이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돋아난지 오랜듯 싱싱한 맛은 없었지만 그런대로 먹을만 했습니다. 배가 고팠다가 많이 먹어서인지 인차 졸음이 왔습니다.
《마음놓고 자게나.》
돌드레는 끄덕끄덕 졸고있는 그를 보고 푹신한 풀이파리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신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신세는 무슨 신세.》
돌드레는 걸걸한 목소리로 어서 자라고 독촉하면서 폭신폭신한 이불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빨룩이는 피곤하여 인차 잠에 곯아떨어졌습니다.

× ×

한참후에 돌드레가 빨룩이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든 빨룩이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흥, 이놈이 나리꽃동산의 개미라지.》
빨룩이의 주위를 빙빙 돌아가며 그는 연방 《흠흠》 하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뭐, 이놈을 꼬여서 장수꿀을 먹는다구? 어리석은 놈들, 난 언제 장수꿀을 기다릴새가 없어. 난 장수꿀 먹은 이놈의 피를 빨아먹을테다!》
이렇게 뇌까린 돌드레는 나무즙을 빨아먹는 삐죽한 주둥이를 그의 꽁무니에 쿡 박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그의 꽁무니속에 있는 피를 쭉쭉 빨아먹었습니다.
《흐흐흐, 이젠 조금이라도 오래 살겠지. 정말 기운이 나는데. 참나무즙에도 대비할수 없는 좋은 맛이군.》 하고 중얼대던 그는 정신을 잃은 빨룩이를 문밖으로 훌 집어던져버렸습니다.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이 겁불처럼 가벼워진 그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온몸이 추워오고 떨려와서 빨룩이는 잠에서 깨여났습니다.

새벽이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쌀쌀한 바람이 그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깜짝 놀란 빨룩이는 눈을 번쩍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간 그는 머리가 핑— 돌아 다시 털썩 쓰러지고말았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기운이 쏙 빠진게 몸을 가눌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던 그는 눈앞이 캄캄하여 《앗!》하고 또다시 픽 쓰러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온몸이 홀쭉해져있었습니다. 몸은 껍질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눌수가 없었던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기가 어디야?)

사방을 둘러보니 깜깜한 어둠속이여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드레의 참나무밑둥집같지는 않았습니다.

딱딱한 돌이 만져졌습니다. 돌드레가 깔아준 포근한 풀이파리포단도 없었고 덮고자던 이불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였습니다.

《돌드레님! 돌드레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영양분이 다 빠져버렸으니 무슨 힘이 있어 소리가 나겠습니까.

맥이 없어 입을 하— 벌리고 누워있는데 날이 차츰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신히 목을 돌려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가 들어있던 돌드레의 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몸은 돌들이 삐죽삐죽한 바깥에 던져져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참나무집은 사라지고 보이는건 낯선 풍경이였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였습니다. 게다가 몸은 껍질만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보니 침자리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구멍이 펑 뚫려있었습니다.

(무서운 판이구나. 그러니 그놈이 나를?…)

빨룩이는 너무나 억이 막혀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북받쳐올랐습니다.

설음이 목구멍까지 꽉 찼습니다.

《흐흑－》

뜨거운 눈물이 그의 두볼로 쉴새없이 굴러내렸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도와주는줄 알았던 돌드레가 이런 무서운 놈인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허리가 쿡쿡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빨룩이는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앞이 막막하여서 울었습니다.

아침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룩이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수 없지, 한발자국이라도 가자. 그럼 도루래를 만나든 달룩이를 만나든 하겠지.)하고 중얼거리며 발자국을 떼던 빨룩이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만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빨룩이는 어디에선가 신음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음소리같기도 하고 비명소리같기도 한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바로 자기옆에 늙은 점벌레 하나가 배를 뒤집고 누워있었습니다. 기운이 진해서인지 다리도 바둥거리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있으면 숨이 지고말것 같았습니다. 빨룩이는 깜짝 놀라 자기의 아픔도 잊고 그 점벌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점벌레할머니, 왜 이렇게 되였나요?》

빨룩이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물었으나 점벌레할머니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빨룩이는 점벌레할머니를 뒤집어 바로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수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빨룩이는 자기의 잔등을 할머니의 잔등밑에 밀어넣고 힘을 썼습니다.

할머니의 잔등이 들썩들썩 들렸습니다.

《야, 되누나.》

빨룩이는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를 밀었습니다.

한옆으로 기우뚱하고 일어선 할머니는 《쿵!》하고 바로 눕게 되였습니다.

그제야 점벌레할머니는 숨소리가 고르로와지더니 한참만에 눈을 떴습니다. 빨룩이를 보고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너였구나, 고맙다. 그런데 괜한 노릇을 했구나.》

《괜한 노릇이라니요?》

할머니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시무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날 여기 그냥 둬두고 네 갈길이나 가거라.》

점벌레할머니는 그이상 더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안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한 빨룩이는 더욱 다정히 물었습니다.

《할머닌 길을 잃었나요?》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상해 걸을수가 없나요?》

점벌레할머니는 고개를 가로 저었는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있었습니다. 필경 무슨 사연이 있어보였습니다.

《점벌레할머니,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드리겠어요.》

빨룩이는 가위턱으로 점벌레할머니를 끌고 한걸음한걸음 무작정 걸었습니다.

《날 놔둬라. 날 놔둬.》

점벌레할머니는 발버둥을 쳤으나 빨룩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새의 주둥이에 물려가다 떨어지지 않은 이상 여기 가까운 곳 어디에 집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에는 새의 주둥이에 물렸던 자리도 없었습니다.

정말 얼마 안가서 점벌레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점벌레할머니는 집가까이로 갈수록 더욱 불안해하는것이였습니다.

젊은 점벌레가 집안에서 밖으로 들락날락하는것이 보였습니다.

점벌레할머니를 잃어버리고 속상해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빨룩이는 마지막힘을 다해 집가까이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점벌레아저씨, 할머니를 데리고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기뻐할줄 알았던 점벌레가 발칵 성을 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야, 내다버린걸 도로 데리구 오다니?》
빨룩이는 처음 어리벙벙했습니다.
《아니 내다버리다니요, 뭘말이예요?》
《뭐긴 뭐야, 네가 끌고온것이지.》
빨룩이는 까무라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이 점벌레는 할머니점벌레를 두고 하는 말이였습니다.
《아니, 할머니를 내다버렸다구요?》
빨룩이가 너무나 놀라 버럭 소리를 지르자 젊은 점벌레는 더 큰 소리로 고아댔습니다.
《내가 내다버리고싶어서 내다버렸는데 넌 무슨 참견이야?》
빨룩이는 성이 나서 대들었습니다.
《대체 할머니가 무얼 잘못해서 내다버렸는가요? 마음씨도 고운 할머니예요.》
그 말에 하는 대답은 더욱 리해할수 없었습니다.
《흥, 귀찮아서 내다버렸다. 왜? 네가 끌고왔으니 이젠 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놓으라.》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황해진 빨룩이는 꽁지가 빳빳해서 도망치듯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딜 가는거야? 제자리에 가져다놓으라는데.》
등뒤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룩이는 그가 잡으러 오는것만 같아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점벌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빨룩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에서는 계속 점벌레의 목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빨룩이는 맥이 탁 풀려 그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불쌍한 점벌레할머니를 생각하니 눈물만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제 맘대로라 한들, 어떻게 자기의 부모를 내다버릴수 있담. 뭐 귀찮아서 그랬다구? 아니 어떻게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귀찮을수 있담. 그런짓은 정말 제 맘대로 못하게 해야 돼.)

그러나 어디 가서 하소연할데도 없었습니다.

문득 동산이 떠올랐습니다. 참깨 반쪽도 혼자서 안먹고 서로 양보하던 정다운 동산이였습니다.

아, 그리운 동산, 보고싶은 동무들, 어서 동산에 가고싶었습니다.

그러자면 빨리 달룩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룩이는 힘을 내여 일어섰습니다.

몇걸음 옮기지 않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쏴쏴, 벅벅벅, 버지럭, 버지럭… 뭐라고 딱히 가늠할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릴가?》

소리나는 곳으로 가까이 가보니 풍뎅이, 쥐며느리, 반디벌레, 노래기 등 수십수백의 곤충들이 모여 썩은 나무잎을 헤집고있었습니다. 무슨 보물이라도 찾는듯한 모습들이였습니다.

빨룩이는 앞에 있는 쥐며느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 어제아침 센바람이 불 때 이리로 날려온 개미를 못보았니?》

그러나 쥐며느리는 들은척도 않고 계속 가랑잎만 뚜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디벌레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들은척도 안했습니다.

빨룩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썩은 가랑잎속만 헤집고있었습니다.

대답도 안하는데 그냥 물어보는 자기가 싱겁기 그지없어 빨룩이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한무리의 풍뎅이들이 다가오며 주고받는 말이 들렸습니다.

《빨리 가자, 그녀석들이 찾아내기 전에. 벌써 시작한지 오랬니?》

《오래지 않구. 그런데 아직 찾았단 소린 못들었어.》

《그래, 야, 우리가 찾으면 좋겠다. 그 보물만 찾으면 한생을 놀고먹을수 있다고 했지?》

《그렇지 않구, 그런데 왜 그런 보물을 거기 묻었을가?》

《보물일수록 험한데 묻어두는거야.》

《100년전에 산 풍뎅이가 묻었다지?》

《노래기들은 또 저희 조상이 묻었다고 그래.》

《됐어, 누가 듣겠다.》

《들으면 어때? 무슨 소리하는지 알게 뭐야.》

《왜 몰라, 보물찾는 놈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좋니?》

《아참, 그렇구나.》

빨룩이는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곤충들이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하고 허겁지겁 가랑잎만 헤집던것이 리해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무엇을 보고 놀고먹을수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 썩은 가랑잎속에 놀고먹게 하는 보물이 있을상싶지도 않았습니다.

또 빨룩이로서는 놀고먹는것이 좋은일같지도 않았습니다.

(놀고먹는게 무슨 재미람, 꽃도 따고 꿀도 따서 장수꿀 만드는 재미가 얼마나 즐겁다고.)

빨룩이는 보물을 찾는다고 썩은 가랑잎을 헤집는 곤충들이 참으로 가소롭게 생각되였습니다. 정말 별난 생각을 가지고 별나게 사는 곤충들이였습니다. 얼마쯤 올라가니 동뚝이 있었는데 동뚝너머는 물이 출렁거리는 호수였습니다.

그 동뚝밑에서 깜장도루래가 무엇인가 열심히 파고있었습니다. 빨룩이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애, 너 어제 센바람에 이리로 날려온 개미를 못보았니?》

그는 대답대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뭘하는가 보니 무슨 풀뿌리같은것을 캐고있었습니다.

무척 굵은 풀뿌리였는데 그것을 캐느라고 동뚝에 구멍이 크게 뚫어지고 물이 조금씩 솔솔 슴배여나오고있는것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이제 그 굵은 풀뿌리만 뽑아놓으면 동뚝밑에 구멍이 펑 뚫어지고 물이 콸콸 쏟아져내릴것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밑에서 보물을 찾는다며 가랑잎속을 뚜지던 곤충들이 몽땅 물에 떠내려갈 판이였습니다.

빨룩이는 그런 생각이 들자 소스라쳐 놀라 깜장도루래에게 말했습니다.

《애, 동뚝이 터지면 어쩔려구 그래? 저밑에 곤충들이 많아.》

깜장도루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다구? 곤충들이 죽는데두?》

《난 그런거 몰라, 이건 메싹뿌리인데 얼마나 달콤한지 아니? 난 이렇게 굵은 메싹뿌리는 처음 봐.》하며 깜장도루래는 계속 뚝

을 뚜졌습니다.
그가 구멍을 넓힐수록 물은 점점 더 많이 슴배여나왔습니다.
《그러지 마, 그러단 동뚝이 터져.》
빨룩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거나말거나 깜장도루래는 메싹을 뽑아내고야말았습니다.
《캐냈다!》 하고 소리치는 순간 뚝은 구멍이 펑 뚫어지고 물이 콸콸 쏟아져내렸습니다.
《앗!》
빨룩이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불이며 모래알들, 흙덩이들을 밀어내며 물은 아래로 쏟아져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곤충들의 아우성소리,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푸어푸 물을 먹은 곤충들이 물우에서 허둥지둥 갈팡질팡하고있었습니다. 물은 점점 그들을 휩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구, 아이구.》
《살려주시오ㅡ》
《나 좀 건져주ㅡ》
아우성소리, 비명소리가 어울리는 속에 물살은 더욱 세지며 사정없이 그들을 밀고 사품쳐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후 곤충들이 《보물》을 찾던 곳은 완전히 물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거나말거나 깜장도루래는 동뚝 한옆에 앉아 열심히 메싹즙을 빨아먹고있었습니다.
몸서리쳐졌습니다.
(이런게 제 맘대로 동산이야? 남은 죽든말든 생각안하고 저만 생각하는 동산이로구나.)
갑자기 공포가 밀려들었습니다.
빨룩이는 가슴을 꼭 그러안았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앞길에도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것만 같은 예감이 들며 가슴이 불안으로 떨려왔습니다.

이래저래 빨룩이는 기분이 더 울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무슨 일에 맞다들려도 참견하지 않고 못본척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부지런히 그자리를 떠나 걸으니 등나무숲이 나졌습니다.

언덕을 타고 끝없이 뻗어간 등나무숲은 가도가도 끝이 있을상싶지 않았습니다. 긴 이파리들이 엉킨 숲속은 해별도 비쳐들지 않아 낮인지 저녁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쪽이 어느쪽이고 서쪽이 어느쪽인지 가려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오가는 곤충도 없으니 물어볼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빨룩이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속에 달룩형이 쓰러져있지 않나 하여 눈을 밝히고 걸었습니다.

점점 잎이 성글어지고 덩굴이 어설퍼지더니 끝이 나고 해가 비쳤습니다. 앞이 환해졌습니다.

빨룩이는 숲속을 빠져나와 언덕우에 올라섰습니다.

그때 빨룩이의 눈에는 큰 바위 한옆에 곤충들이 오구구 모여 떠들고있는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못본척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불쑥 《산삼씨》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룩이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삼씨?)

빨룩이는 그리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뭐래? 뭐라고 해?》

까만 옷을 입은 조그마한 곤충이 제앞에 서있는 벼룩이에게 열심히 물어봅니다. 앞에 큰 곤충들이 몰켜있어서 그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수 없어 그런것 같았습니다.

벼룩이는 후닥닥하고 높이 뛰여올랐다가 툭 떨어지더니 말했습니다.

《줄집게벌레가 무슨 산삼씨인지 뭔지 하는걸 자랑하고있어.》

순간 빨룩이는 더듬뿔이 곤두서며 온몸이 긴장해졌습니다.

그냥 지나칠수가 없었습니다. 빨룩이는 곤충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발볌발볌 다가갔습니다.

(줄집게벌레, 혹시 그놈이 아닐가?)

그는 지팽이를 짚고 곤충들이 모여있는 짬사이를 겨우 빠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원쑤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바로 그 줄집게벌레가 산삼씨를 들고 한창 자랑을 하고있었습니다.

《자, 자, 이 냄새를 한번 맡기만 하면 태여날 때부터 걸린 체증도 다 내려가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산삼씨입니다.

일생동안 숲속에서 살아도 이 산삼씨를 구경조차 못하고 저세상으로 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명이 짧았던것도 이 산삼씨의 향기를 한번도 맡아보지 못했기때문이였습니다.

자, 이 향기를 한번 맡아보고싶은분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러자 여기저기서 떠들었습니다.

《봅시다!》

《나두 좀 봅시다!》

《아, 나두 맡아보자는데두요.》

긴 손, 짧은 손, 마디진 손, 가는 손, 파란 빛갈의 손, 재빛갈의 손, 누런 빛갈의 손 등 별의별 손들이 너도나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잔뜩 구미를 돋구던 줄집게벌레가 이번에는 산삼씨를 뒤

로 감추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아, 아, 다치지 마시오. 그렇게 막 보이는게 아닙니다. 참, 렴치들도 없지. 맨입으로는 안됩니다. 무엇이나 내시오. 무엇이나! 공짜로는 안됩니다!》

《뭐라구? 보기만 하는데도 무슨 값이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값이라니? 한번 맡아보면 명이 하루 길어지고 두번 맡아보면 이틀 길어지고 열번 맡아보면 열흘 길어지는데두? 흥, 싫으면 그만두시오.》

기가 막힌노릇이였습니다. 빨룩이한테서 협잡으로 빼앗은 산삼씨알을 가지고 제것처럼 내흔들고 또 그것으로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것입니다.

빨룩이는 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산삼씨는 내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온몸의 아픔도 다 잊었습니다.

《뭐라구?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나타났어?》

줄집게벌레가 당장 집게로 그의 몸을 썩둑 잘라버릴듯이 다가오며 을러멨습니다. 주위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습니다.

빨룩이의 뒤에 서있던 곤충들은 줄집게벌레의 집게손에 저희들의 몸이 다칠가봐 겁이 난듯 뒤로 와그그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빨룩이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성이 독같이 났던지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에는 오직 그놈이 쥐고있는 산삼씨만 보였습니다.

《당신이 어제저녁에 나무쪼각을 버섯이라고 속여서 나에게 주고 산삼씨를 빼앗지 않았나요. 어서 이리 내라요.》

그는 가슴을 내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러나 줄집게벌레는 도리여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뭣이 어쩌구 어째? 이것은 우리 거룩한 가문이 삼대를 내려오면서 물려받은 가보야. 지금도 묘지에 있는 우리 아버지몸에는 이

산삼씨를 지녔던 향기가 생생히 풍길거다. 이놈아! 그래서 우리 가문은 명이 길고 이처럼 건강하다.》

줄집게벌레는 산삼씨를 툭툭 치더니 팔다리운동까지 하였습니다.

빨룩이는 너무 어이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날 좀 도와주십시오. 저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 산삼씨는 왕개미엄마가 내가 앓을 때 준것입니다. 달룩형님이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곤충은 없었습니다. 동정의 눈길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볼품없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코웃음을 쳤습니다.

줄집게벌레는 더욱 크게 껄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하하, 거기에 또 뭐 왕개미와 달룩이라는 놈까지 끼들어? 그럼 이 산삼씨알을 주었다는 왕개미와 그 달룩이라는 놈을 당장 내 앞에 끌어와!》

《히히!》

《헤헤헤!》

《껄껄껄…》

곤충들도 따라웃었습니다.

빨룩이는 어쩔줄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까짓거 정 그러면 재판소로 가지 뭐!》

《재판소? 재판소란 무엇입니까?》

빨룩이는 영문을 모르고 물었습니다. 재판소라는 말을 처음 들었기때문이였습니다.

개미동산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것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바쁘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하하.》

《흐흐흐.》

《헤헤헤.》

여기저기서 제각기 제 모양대로 웃어댔습니다.

《왜들 웃나요?》

빨룩이는 당황해졌습니다. 그러자 웃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소똥구리는 배를 그러쥐고 대굴대굴 굴기까지 했습니다.

《재판소도 모르는 한심한 놈이구만.》

《무식하기 짝이 없어.》

《그러고도 뭐 산삼씨를 제것이라구?》

흰노린재가 엉금엉금 다가와 그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얘 꼬마야, 넌 곰방 태여났으니 그것두 모르누나. 재판소라는건 응? 옳고 그른것을 판결해주는 집이란다.》

그 순간 빨룩이는 (여기에 그런 곳이 다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힘껏 목청을 가다듬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재판소에 가겠습니다!》

그러자 흠칫할줄 알았던 줄집게벌레가 제편에서 떠들썩하게 고아댔습니다.

《가자! 내가 뭐 재판소를 무서워할줄 알아? 어서 가자! 여러분들도 함께 가서 증인으로 되여주시오!》

그들은 재판소로 밀려갔습니다.

길가던 곤충들도 희한한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모두 따라나섰습니다. 가는 도중 집에서 잠자던 곤충이며 나무나 땅속에서 먹이를 먹던 곤충까지 그 소식을 듣고 따라서는 바람에 행렬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윽고 일행은 《장수풍뎅이재판소》라고 쓴 집앞에 이르렀습니다.

방안은 넓었습니다.

빨룩이와 줄집게벌레는 맨 앞으로 나갔고 다른 곤충들은 적당한 곳에 자리들을 잡았습니다.

빨룩이는 먼저 장수풍뎅이가 앉아있는 책상을 향해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과 진실을 가르는 재판소가 있다는것을 저는 이 할미꽃동산에 와서 처음 알게 되였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재판소를 모르는데도 있다니.》

《참 믿기 어려운걸…》

《그럼 잘못은 누가 갈라주노?!》

빨룩이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 우리 동산에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것을 훔치는 일이 없었기때문에 난 재판소라는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동산에 와서 어제, 그것도 대낮에 억울하게 산삼씨를 도적당했습니다. 글쎄, 이 줄집게벌레가 내가 배가 고파하는것을 알고 나무쪼각을 버섯이라고 속여서 주고는 산삼씨를 가졌던것입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픈김에 앞

뒤를 가릴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먹으려고 보니 나무쪼각이 아니겠어요. 나를 깜박 속였지요. 줄집게벌레가 가진 산삼씨는 분명 제것입니다. 그러니 정당하게 판결해주실것을 바라는바입니다.》

그러자 곁에 앉았던 줄집게벌레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로 존경하여마지않는 재판관선생! 이 청청 마른날에 날벼락을 맞는 격이 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저 개미를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자리에서 목숨걸고 맹세하건대 오늘 처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의 산삼씨를 훔친단 말입니까.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잘 보살펴서 정확히 판결해주신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해봅시다. 다들 앉으시오.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주시오.》

장수풍뎅이는 말을 위엄있게 하더니 긴 더듬뿔을 손으로 몇번이나 매만졌습니다. 뿔처럼 긴 더듬뿔은 장수풍뎅이의 위풍을 더욱 돋구어주었습니다.

장수풍뎅이는 커다란 장부책을 펼쳐들고 빨룩이와 줄집게벌레에게 번갈아가며 이름과 나이, 출생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는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적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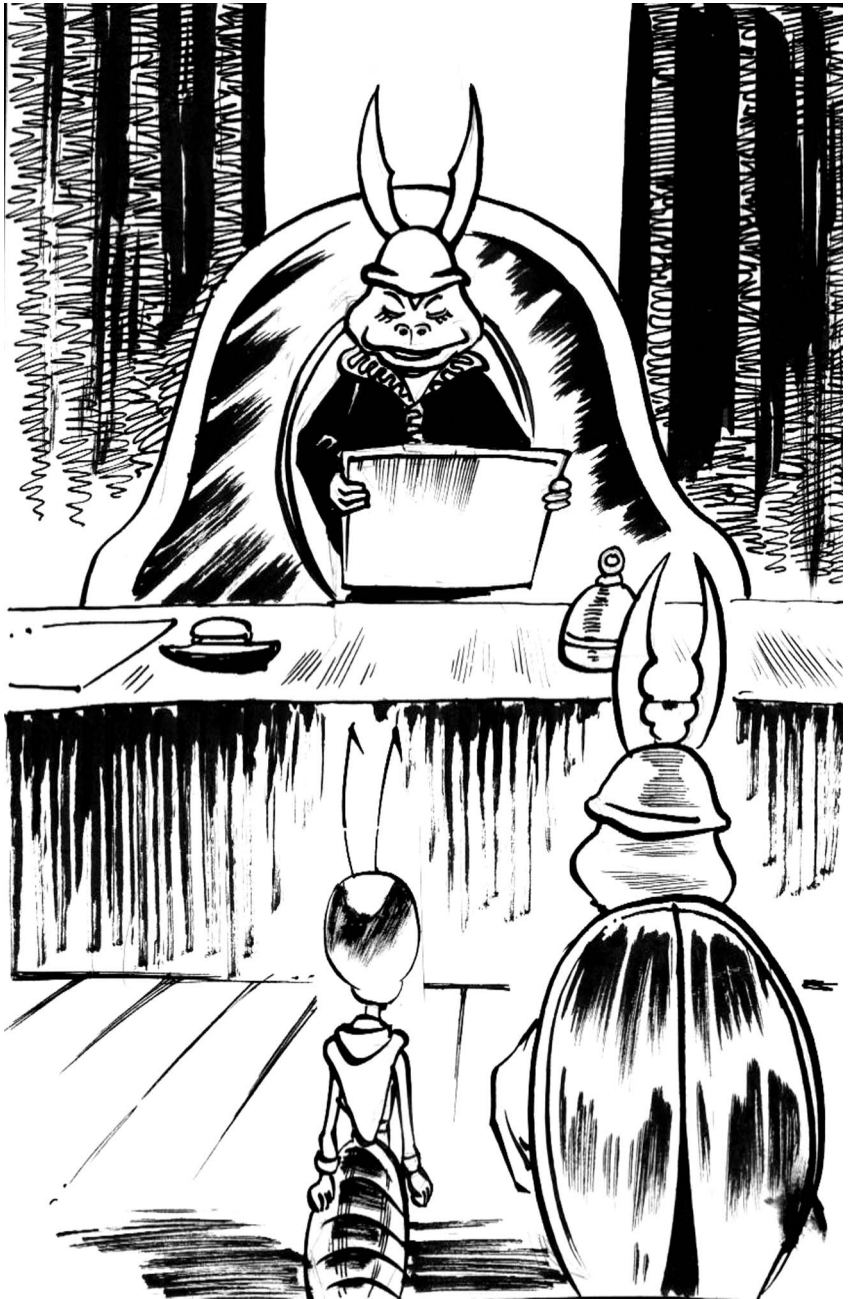
(역시 재판소라는데가 다르구나.)

빨룩이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합시다. 원고인 빨룩이부터 이야기해보시오. 법정에서는 허튼 진술을 하여 남의 인격을 모욕하였을 때에는 징역형을 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실그대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자, 어서 맹세를 하오.》

빨룩이는 의아하여 되물었습니다.

《어떤 맹세말인가요?》

《자, 이런, 〈법정에서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며 만약 거짓말로 남을 걸고들었을 때는 종신징역형을 받겠습니다.〉하고 말하란 말이요.》

빨룩이는 장수풍뎅이재판관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며 만약 거짓말로 남을 걸고들었을 때는 종신징역형을 받겠습니다.》

《좋소, 다음은 줄집게벌레!》

줄집게벌레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틀을 차리며 위엄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성한 법정앞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만을 인정하며 만약 거짓말로 남의 리익을 침해했을 때에는 나의 목을 뎅정 잘라도 좋다는것을 맹세합니다.》

그는 손으로 자기 목을 베는 흉내까지 냈습니다.

《좋소, 그럼 원고부터 말하오.》

빨룩이는 절룩거리며 법정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나 힘찬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조금도 주눅이 들게 없었던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제저녁에 며칠을 굶은채 길을 헤매고있었습니다.

그때 내앞으로 저 줄집게벌레가 다가왔는데 버섯같은것을 메고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그에게 버섯을 조금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저 줄수 없다, 무엇이든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루종일 굶은데다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저는 다른 방도가 없어 달룩형님이 나에게 준 산삼씨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버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다음에 먹으려고 하니 그것은 나무쪼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짜버섯과 산삼씨를 바꾼셈이였습니다.

서둘러 줄집게벌레가 간쪽으로 달려가보았으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길거리에서 많은 곤충들이 모여있기에 가보니 내 산삼씨를 협잡으로 빼앗은 저 줄집게벌레가 무엇을 받고 한번씩 이 산삼씨를 냄새맡게 하고있었습니다. 줄집게벌레는 이 사실을 인정안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정당하게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룩이는 말을 마치였습니다.
재판관인 장수풍뎅이가 《어험.》 하고 헛기침을 두번 하더니 줄집게벌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러자 줄집게벌레가 위엄있게 자리에서 일어나 모여앉은 곤충들을 빙 둘러보며 벌씬 웃더니 천천히 말을 하였습니다.
《지극히 존경하는 재판관선생님, 다정한 벗들과 사리정연한 여러분! 저는 입이 쓰거워 말이 안나갑니다. 아니, 말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수가 없구만요.
나는 어제저녁에 길거리에 나간적도 없으며 저녁부터 밤새껏 귀뚜라미네 집에서 노래를 감상하였습니다. 귀뚜라미, 그렇지?》
줄집게벌레는 한눈을 찡긋하며 물었습니다.
귀뚜라미는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대가로 그는 저 산삼씨를 매일 한번씩 공짜로 냄새맡을수 있게 될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귀뚜라미를 본 줄집게벌레는 말거미와도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이 산삼씨로 말하면 우리 가문이 3대를 내려오면서 쓰던 가보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말거미님도 이 사실을 알고계십니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은채로 귀뚜라미와 말거미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인 귀뚜라미와 말거미! 당신들은 법정앞에서 사실대로만 말하겠다는것을 맹세하오.》
귀뚜라미와 말거미는 저마다 사실대로만 말하며 만일 그것이 거짓말로 인정될 때에는 천만번 죽어도 하소연하지 않겠다고 조잘댔습니다.
《좋소. 귀뚜라미, 어제저녁에 저 피고인 줄집게벌레가 당신네 집에 와있은것이 사실인가?》
재판관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낮에는 소란스럽고 번잡하여 노래를 부르지 않고 조용한 밤에만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나의 아름답고 류창한 노래를 듣겠다고 숱한 손님들이 찾아오군 하지요.

이것은 자연히 음악회로 발전하여 계속되여오는데 어제저녁 손님들중에는 줄집게벌레도 있었습니다. 줄집게벌레는 맨 처음으로 찾아와 맨 앞자리에 앉아있었기때문에 제 눈에 얼른 띄였지요.》

장수풍뎅이재판관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말거미를 불렀습니다.

《자, 이번엔 말거미.》

말거미는 엉금엉금 앞으로 기여나왔습니다.

그는 먼저 줄집게벌레의 곁으로 가서 그의 귀에 대고 수군거렸습니다.

《귀뚜라미는 기껏 당신의 부재증명이나 했지만 난 이제부터 산삼씨가 당신의것이라는것을 진짜로 증명할테요. 그러니 보수도 두배를 줘야 하오!》

줄집게벌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수풍뎅이가 딸랑딸랑 종을 울렸습니다.

《자, 말거미, 조용해. 똑바로 서. 그래 당신은 저 줄집게벌레에게 있는 산삼씨를 언제부터 보았는가?》

말거미는 긴다리를 세개씩이나 쳐들어 허공을 쭉 가르며 말했습니다.

《3년전이였지요. 하루는 제가 줄을 쳐놓고 고추잠자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있는데 줄집게벌레가 나타나더니 자기 집으로 가자는것이였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구르는 돌에 치워 숨이 져가는데 어서 가서 좀 도와달라는것이였습니다.

혼자서 무섭다나요. 보기엔 저래도 맘은 약합디다. 그래서 냅다 뛰여갔지요. 아닌게아니라 가보니 그의 어머니가 금방 숨을 넘기는중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줄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만 대를 두고 물려오던 이 산삼씨를 줄테니 잘 건사하거라. 이것만 몸에 지니고있

으면 앓는 법이 없느니라.〉하고 말하더니 덜컥 숨을 넘기고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산삼씨가 탐이 나서 계속 달라고 조르는데 어디 줘야 어쩌지요. 한번 냄새를 맡아보았더니 열흘전에 범잡자리 잡아먹고 얻은 체중까지 다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곤충이든 거미줄에 걸린 놈은 다 잡아먹을수 있겠습디다요. 껍데기가 두꺼운 놈이든 무른 놈이든 말입니다.》

이러며 그는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산삼씨알이였지요. 나는 너무 탐이 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장수잠자리를 잡아가지고 줄집게벌레를 찾아갔지요. 산삼씨알과 바꾸자고요. 그랬더니 그는 코웃음을 치면서 자긴 뭐 그런 장수잠자리따위는 먹지 않는다나요. 그래서 헛탕치고 왔지요. 그로부터 몇달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수다.》

그러자 장수풍뎅이재판관이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됐소, 됐소. 거 말이 많구만. 그만하면 알만 하오. 당신의 말을 다 듣다간 며칠을 들어도 끝이 없겠소. 그러니 산삼씨가 줄집게벌레의것이라는거겠지? 그만하면 알겠소. 자. 원고 빨룩이, 이번엔 당신의 말을 증명할 증인을 부르시오, 있소?》

말거미와 귀뚜라미가 하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없어하던 빨룩이는 그 말이 떨어지자 불쑥 도루래가 생각났습니다.

산삼씨가 빨룩이의것이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것은 도루래였습니다. 빨룩이는 성급하게 웨쳤습니다.

《도루래예요. 도루래를 찾아주세요.》

왜 이제야 그 생각이 났는지 몰랐습니다. 빨룩이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도루래가 있습니다. 그는 나와 나리꽃동산에서부터 같이 왔기때문에 내가 산삼씨를 가지고있은것을 잘 압니다.》

《도루래?》

《예.》

빨룩이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루래를 꼭 찾아주세요. 그러면 모든것이 밝혀집니다.》

장수풍뎅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쪽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도루래를 불러오라.》
《네.》
대답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룩이는 도루래를 못찾아오면 어쩌나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문이 빠금히 열리고 도루래가 들어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빨룩이는 너무나 반가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빨룩이는 재판소라는것도 잊고 소리쳐불렀습니다.
《도루래야—》
그러나 목이 꽉 메여 소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뻤습니다.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이젠 됐구나, 됐어. 도루래가 나를 보증한 다음에는 동산으로 가야지. 그에게 데려다달라고 할테야. 오늘중으로 당장! 당장!)
도루래도 빨룩이를 알아보고는 손을 들어 딱딱 소리를 내며 벌쭉 웃었습니다.
그 눈빛, 그 웃음은 《조금만 참아.》 하고 말하는것 같았습니다.
빨룩이는 의기양양해서 좌중을 빙 둘러보았습니다.
(이 협잡군놈들아, 어디 혼나봐라.)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말입니다.
도루래는 들어오는 길로 장수풍뎅이에게로 가더니 무엇인가 한참동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는 도무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답답해. 무얼 저렇게 오래 말한담.》
빨룩이는 속이 타서 안절부절하였습니다.
한참후에야 이야기는 끝나고 장수풍뎅이는 종을 딸랑딸랑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잠간 휴식하겠습니다. 객석에 앉았던분들은 모두 나가서 휴식해주십시오.》
곤충들이 우르르 밀려나갔습니다. 삽시에 재판소안은 텅비고 빨룩이와 도루래만 남았습니다.

도루래가 다가왔습니다.

《빨룩아, 잘 있었니? 이제까지 어디 가있었니? 내가 널 얼마나 찾았다구…》

빨룩이도 기다렸던듯이 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런데 글쎄 저놈들이 내 산삼씨를 제것이라고 우기는구나. 잘 말해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여긴 막 끔찍한데야. 이런델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댔니? 이것봐, 난 피까지 다 빨렸어.》

빨룩이는 울먹이며 상처자리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도루래는 한순간 놀란듯 하더니 다시 벙긋 웃었습니다.

《이런 곳도 있고 저런 곳도 있지 뭐. 음달도 있고 양지도 있듯이 말이야. 그러나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빨룩이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음달이구 양지구 난 몰라. 난 그저 빨리 산삼씨를 찾아가지구 돌아가야겠어. 어서 나리꽃동산으로 가게 해줘.》

《달룩인 안찾구?》

《달룩인 없어. 모두 본 일이 없대. 큰바람조차 안불었다는데 뭐.》

문득 빨룩이는 도루래를 보고 협잡군이라고 하던 돌드레가 생각나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정말 달룩이목소리를 듣긴 들었니?》
《글쎄…》
도루래는 애매몽롱하게 대답하며 손으로 딱딱 소리를 내다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구는것들한테로 왜 다시 가겠다고 그러니?》
그의 말투가 별스레 이상해진것을 본 빨룩이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뭐 여기에서 살려고 왔니? 달룩형님이 이쪽으로 날려왔다고 해서 왔지. 난 가야 해.》
생각할수록 도루래의 말투가 불쾌하여 빨룩이는 다시한번 그루를 박아 말했습니다.
《넌 우리 동산에 대해 함부로 망탕 말하지 말아. 우리 동산은 그런 동산이 아니야.》
《흥》
도루래는 코웃음을 치며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가겠다면 보내줘야지 뭐. 그런데 그러자면 할미꽃동산에 좋은 일을 한가지 해야 해.》
《내가 왜 좋은 일을 해야 한단 말이야? 여기서 내가 얼마나 혼난줄 아니? 몽땅 나쁜 놈들만 살아. 여긴 정말 무서운 곳이야.》
《어쨌든 그저는 못가게 되여있어.》
《왜?》
《그건 한두마디로 설명할수 없어. 그러니 어서 대답이나 해. 좋은 일을 하지?》
빨룩이가 초조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란게 뭔지 어서 말해봐.》
《저… 너희네 나리꽃동산략도말이야.》
빨룩이는 갑자기 얼떨떨해졌습니다.
《나리꽃동산략도?》
《응, 그것만 그려주면 돼.》
《뭐라구?》

빨룩이는 가슴이 활랑거렸습니다. 세상에 태여나서 이처럼 가슴이 활랑거려보기는 처음이였습니다.

머리속엔 나리꽃동산이 환히 떠올랐습니다.

왕개미엄마의 방이며 개미학교며 애기개미들의 방이 말입니다. 또 꿀창고로 가는 길도 눈에 보이는듯 환했습니다.

첫 꿀따기날 형님개미들처럼 꿀초롱에 꿀을 가득 채워왔다고 창고지기 형님개미가 자기 이름까지 외웠던 그 길이였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잘못을 저질렀던 버섯창고로 가는 길도 잊을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달룩형이며 창고지기 형님개미가 왜 그토록 솔씨통과증을 귀중히 여겼는가를 가슴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불현듯 달룩형을 찾으러 나왔던 날 볼룩형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도루래는 할미꽃동산에서 사는 나쁜 놈이라고, 할미꽃동산은 우리가 만든 장수꿀이랑 공짜로 도적질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던 말을 말입니다.

빨룩이는 저도모르게 소리내여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이였구나.》

《뭐가?》

도루래가 눈이 둥그래 물었습니다.

빨룩이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되려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산략도는 왜 그려내라고 하니?》

도루래는 히물히물 웃었습니다.

《우리도 장수꿀먹고 너희처럼 오래오래 살고싶어서 그런다. 왜 오래 살면 안되니?》

《그럼 너희들도 장수꿀을 만들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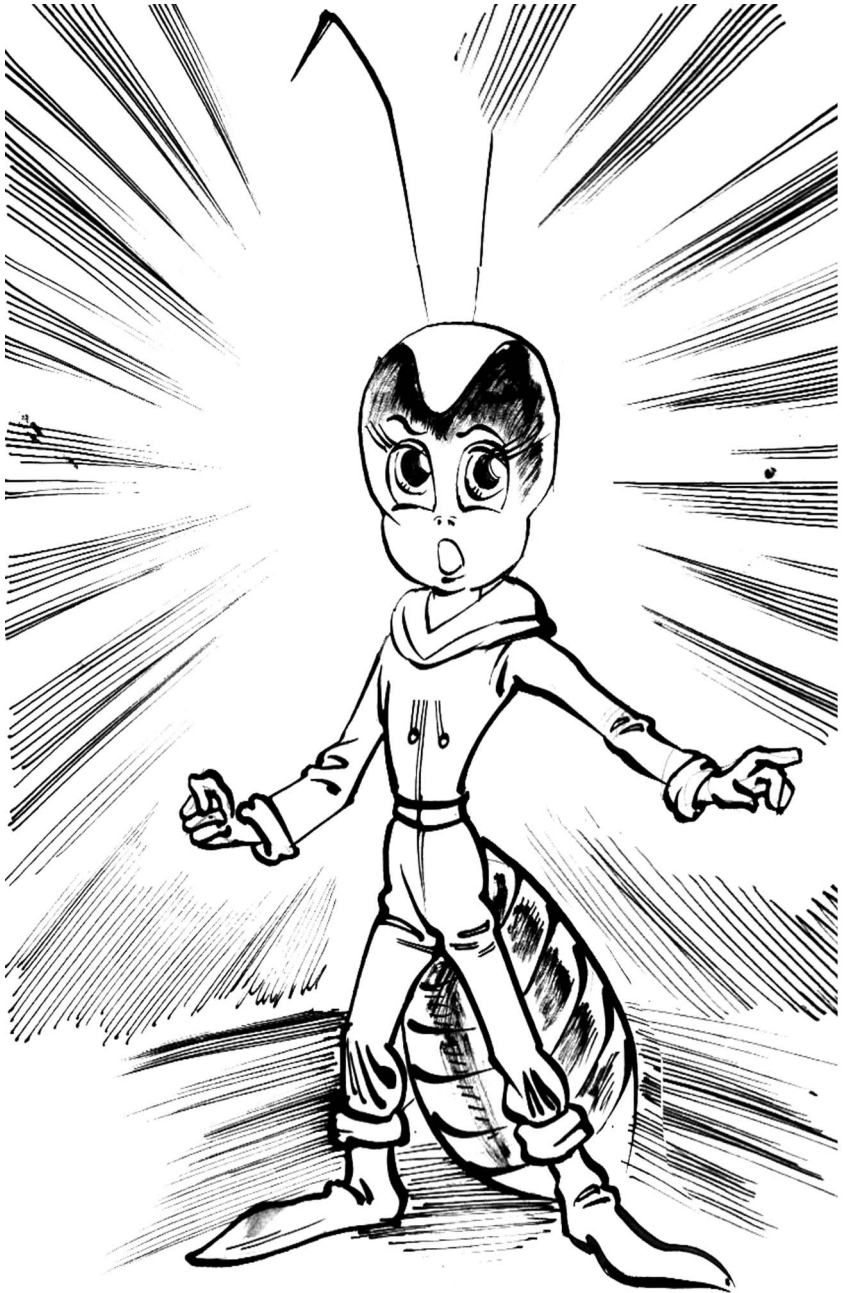
《우린 만들줄 몰라서 그래. 알면 너를 고생스레 데려다 동산의 략도를 그려내라고 하겠니?》

빨룩이는 문득 개미들은 장수꿀을 먹기때문에 10년이나 5년씩 오래오래 산다던 왕개미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알아내려구 날 속여서 데려왔구나? 대접도 해주구?》

《그렇지 않구. 그만큼 대접받았으면 신세갚음도 있어야지.》
그제야 빨룩이는 자기가 완전히 그놈에게 속히웠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놈에게 랍치되여온셈이였습니다. 제일 나쁜 놈인줄도 모르고 그놈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자신이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도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핫하하, 핫하하.》
빨룩이는 웃고 또 웃었습니다.
《왜 그래?》
도루래가 어리둥절해 물었습니다.
빨룩이는 웃음을 멈추고 도루래를 쏘아보았습니다. 내막을 안 이상 속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걸 안그려주면 어쩔테냐?》
빨룩이는 가슴을 쭉 펴고 물었습니다.
도루래는 느물느물 웃으며 내뱉았습니다.
《그럼 동산에 돌아가지 못하지 뭐, 영영. 산삼씨도 찾지 못하구.》
빨룩이는 분이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에익 나쁜 놈, 더러운 놈들, 난 대줄수 없다. 절대로!》
《흠, 이제 대주게 될거야. 다른 길은 없으니까.》
도루래는 계속 히물거렸습니다.
《뭐야?》
빨룩이는 너무도 격분하여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도루래와 싸우기에는 너무도 힘이 약한 빨룩이였습니다.
아, 빨룩이가 자기 형제들과 같이 있었으면 저 도루래같은 놈이 감히 히물딱거리며 놀려대지 못할것이였습니다. 장수집게벌레도 꽁지가 빳빳해 달아났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도루래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더욱 분했습니다. 그는 웨쳤습니다.
《대줄수 없어, 대줄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난 기어이 나리꽃동산으로 돌아갈테야!》
그러자 도루래는 픽 웃으며 시까슬렀습니다.

《넌 이제는 그곳으로 가지 못해. 내 등에 업혀왔으니 방향이나 알수 있어? 또 강은 어떻게 건느겠니?》
빨룩이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난 갈테다! 난 길을 찾을수 있어! 강도 건늘수 있어!》
도루래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건늘수 있단 말이지? 그래 건늘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넌 개미동산에 가면 죽어야 해.》
《뭐라구?》
《넌 이젠 못가. 네 몸에는 여기 할미꽃동산냄새가 푹 뱄단 말이야. 제 마음대로 사는 여기 냄새가 말이야. 네가 이제 가보기만 해봐라. 개미냄새가 없어진 너를 모두 달라붙어 죽여버릴거다. 암, 죽이구 말구! 넌 이젠 개미가 아니야. 할미꽃동산의 곤충이지. 넌 여기밖에 살수 있는데가 없어!》
《…》
빨룩이는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정말 그의 몸에서는 할미꽃동산의 냄새, 제 마음대로 사는 냄새가 뱄을지도 모릅니다.
보초개미들의 날카로운 창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개미아닌 다른 냄새만 나면 사정없이 창으로 찌를것이였습니다.
도루래는 그의 침묵에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니 넌 이젠 여기서 살아야 해. 네가 나리꽃동산과 장수꿀창고위치만 그려내면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게 돼. 아마 장수집게벌레님은 너에게 큰 독집을 지어줄거야. 그간 네가 여기 와서 겪은 일들은 네가 큰 공을 세우지 못해서 그렇게 된거야. 네가 공만 세워보지. 모두가 너에게 설설기게 될거야.
또 장수꿀을 가져다먹게 되면 여기서도 넌 제 명을 다 살게 될거구. 실컷 놀면서 제맘대로 산다는게 얼마나 좋니? 어때. 생각되는게 없어?》
도루래는 그의 앞에 넙적한 나무잎을 꺼내놓았습니다.
《너보고 누가 도적질을 해오라니? 그저 략도만 그리라는건데 뭐가 힘들어 그래. 자 어서!》
빨룩이는 나리꽃동산략도를 그리라는 넙적한 나무잎을 내려다보

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왕개미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첫 로동개미가 되던 날,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 개미동산의 식구가 몇명이고 무얼 먹고 사는가 하는것까지 죄다 비밀이라고 당부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리꽃동산략도라니…
당치않은 말이였습니다.
그러자 개미학교의 선생님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우린 날개도 없고 침도 없고 뿔도 없는 곤충이다, 그러나 우리 개미들이 힘을 합치면 아무리 큰 적수도 족쳐버릴수 있다고 하던 말이였습니다.
(아, 이런 때 동무들이 있었으면…)
달룩형님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다니면 안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던 달룩형님! 그때 왜 다 모여놓고 꾸중을 하며 혼자 다니면 안된다고 안타깝게 타일러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아지는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머저리고 바보고 천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혼자서 잘난체 하다가 이런 덫에 걸려든것입니다. 동무들의 충고를 듣기 싫어하고 제멋대로 행동한탓이였습니다.
도루래가 나쁜 놈이라고 볼룩형이 그토록 말했건만 왜 한사코 믿지 않았을가요.
빨룩이는 더듬뿔을 움켜쥐였습니다.
(아, 내가 태여났을 때 장수감이 났다고, 동산을 위해 한몫할수 있는 개미가 났다고 그토록 기뻐한 왕개미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해할가. 한발자국 잘못디딘것이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였구나. …)
생각할수록 원통했습니다.
그의 두눈에선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빨룩이가 눈물을 흘리는것을 본 도루래는 쯧쯧하고 혀를 찼습니다.
《울긴 왜 우니? 그까짓 네가 태여났을 때부터 이렇게 해라, 저

렇게 해라 하며 못살게 굴던것들을 생각할거나 있니? 제 마음대로 못하는 곳에 다시 가서는 뭘하니? 처음엔 좀 그래두 며칠 지나면 다 잊혀져. 즐거워지구!

너희세상은 오래가지두 못해. 이제 우리가 다같이 덤벼들면 꼼짝두 못해. 여기에 큰 곤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봤지? 너휜 개미 하나뿐이지만 우린 별의별 곤충들이 다 있거든. 날아다니는 곤충, 깨무는 곤충, 찌르는 곤충, 그래 너희네가 이런 우리를 이길수 있어?》

도루래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빨룩이는 나무잎을 갈기갈기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길수 있다! 우린 개미다! 뭐, 우리 동산을 없애보겠다구. 열번이라도 덤벼들어봐라. 난 큰 장수집게벌레가 쫓겨가는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우리 개미들의 뭉친 힘은 세상에서 제일 세다!》

도루래는 핫핫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 어리석은 개미야, 그때는 장수집게벌레님이 혼자 가다싶이 했지만 이번엔 온 동산이 다 떨쳐나선단 말이야. 우리도 뭉친단 말이야. 작은것들이 뭉친것 하고 큰 곤충들이 뭉친것 하고 어느 힘이 더 셀것 같애?》

《?…》

빨룩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도 그럴듯했던것입니다. 정말로 나리꽃동산에 놈들이 쳐들어가면 큰일이였습니다.

큰 곤충들의 힘을 우리 동산의 개미들이 이겨낼수 있을가?

빨룩이의 낯색이 달라지는것을 본 도루래는 빙긋 웃더니 휘파람을 휙— 불었습니다.

그러자 담벽으로만 보이던 한쪽벽에 문이 펑 열리더니 검은 독거미가 거미줄에 꽁꽁 묶인 웬 개미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빨룩이는 《앗!》 하고 외마디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다름아닌 달룩형님이였던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이라도 한듯 달룩이의 냄새향이 확 풍겼습니다.

《달룩형님, 조장형님!》
빨룩은 저도모르게 달려갔습니다.
달룩이도 그를 알아본듯 두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예요? 예?》
빨룩이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달룩형님은 안타깝게 그를 지켜볼뿐 아무말도 못하는것이였습니다. 더듬뿔은 꺾어져 달아나고 가위턱까지 없었습니다.
빨룩이는 형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달룩형님, 몸이 왜 이렇게 되였나요. 형님?》
빨룩이는 달룩형의 몸을 쓸어만지며 엉엉 흐느껴울었습니다.
《형님, 큰 바람에 날려왔나요?》
달룩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저놈들에게 붙잡혀왔나요?》
달룩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본 도루래가 얼른 독거미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독거미는 인차 달룩이를 끌고 들어왔던 구멍으로 도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달룩이는 휙 뒤로 돌아 빨룩이를 향해 무엇인가 당부하듯 똑바로 쏘아보며 꺾어져 반쯤 남은 더듬뿔을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형님!》
빨룩이는 그에게로 달려갔으나 문이 《쾅—》 하고 닫겼습니다. 그는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룩이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도루래가 말하였습니다.
《자, 그래 어떠냐? 너도 달룩이처럼 되고싶진 않겠지?》
빨룩이는 문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룩형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가?
분명 무엇인가 당부하는것 같았는데… 꿀창고략도를 그려주지 말라고 그랬을가. …)

빨룩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아, 그거야. 동산의 략도! 절대로 대주지 말라고 부탁했을거야.)

빨룩이는 저도모르게 큰소리로 웨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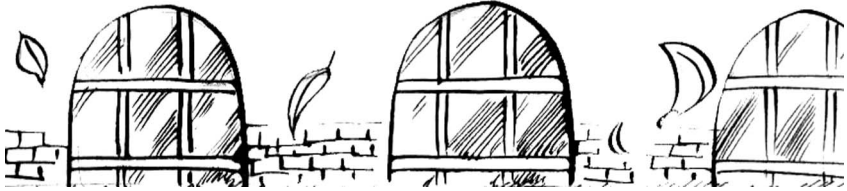
《형님, 념려마세요. 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말 안할래요. —》

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도루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다? 요놈의 기를 꺾어놔야 나도 한몫 보겠는데…)

도루래는 빨룩이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좋다. 말 안하고 견디나보자.》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도루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였습니다.

재판정에 장수풍뎅이가 들어와 딸랑딸랑 종을 울리자 나갔던 곤충들이 꾸역꾸역 들어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루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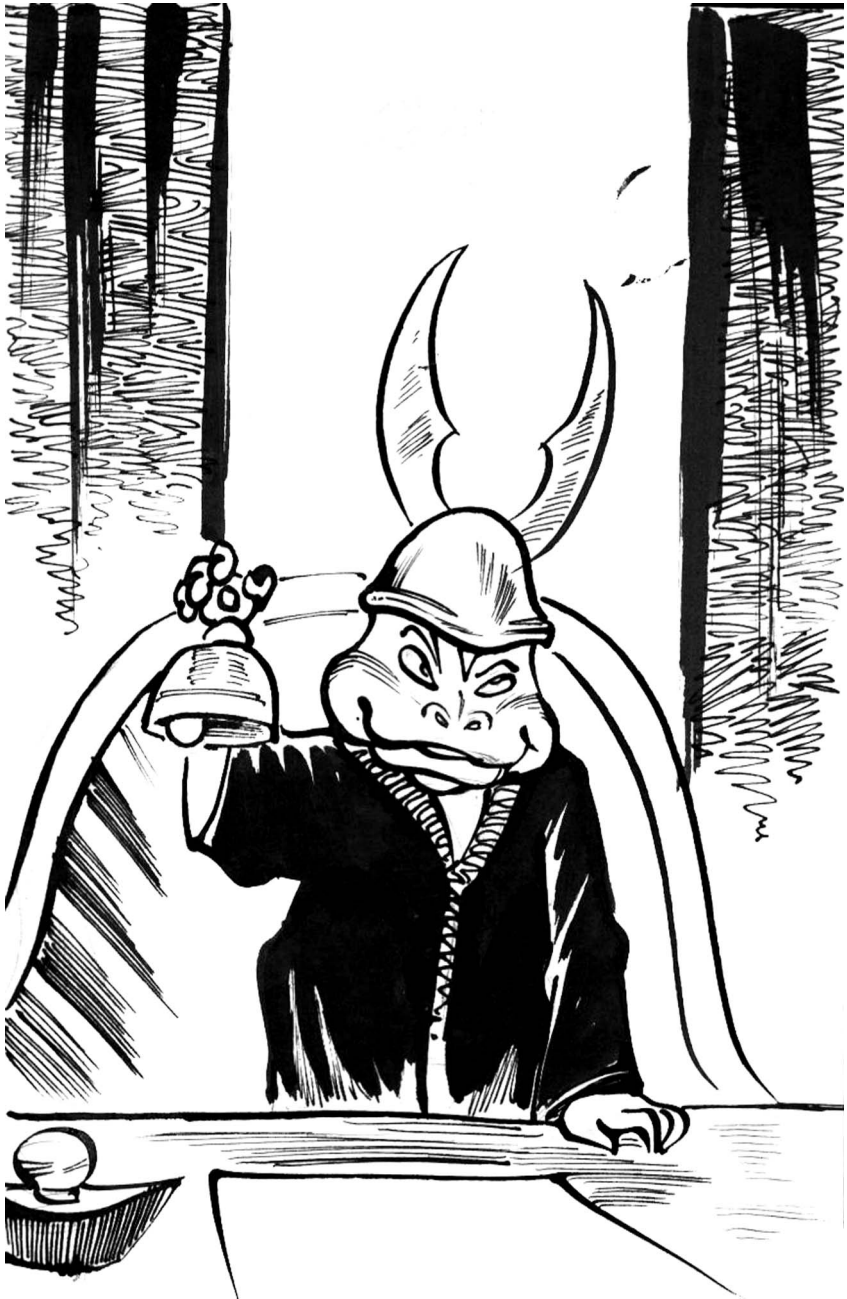
《이제부터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같이 이자리에서 들은바와 같이 산삼씨는 줄집게벌레의것이 확실하다는것이 증명되였습니다. 하여 나는 줄집게벌레에게 무죄를, 이 빨룩이에게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잘했다!》

말거미와 귀뚜라미가 박수를 치며 큰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조용하시오!》

장수풍뎅이는 또 종을 울렸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상소죄, 둘째 줄집게벌레모욕죄, 셋째 시간랑비죄, 넷째 재판관 기력소모죄, 다섯째 재판소우롱죄. 여러분이 다 아는바와 같이 재판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죄가 커집니다. 이상의 죄목에 따라 빨룩이는 번데기형벌에 종신징역형을 겸한 극형으로서 검은 늪에 빠뜨리기로 판결합니다.》

《좋다!》

말거미와 귀뚜라미가 또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습니다.

빨룩이는 격분하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것 같았습니다. 이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엄청난 협잡세상이라는것을 안 이상 그저 가만히 죄를 뒤집어쓰고있을수는 없었습니다. 빨룩이는 용기를 내여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관님, 난 거짓말을 할줄 모릅니다. 내가 한 말은 죄다 사실입니다. 이 모든것은 달룩형님을 데려오면 똑똑히 증명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재판은 끝났소. 달룩이는 또 무슨 달룩이야.》

장수풍뎅이가 소리쳤습니다. 빨룩이도 지지 않고 웨쳤습니다.

《우리 동산의 형님개미예요. 도루래도 알고있어요. 금방 여기서 나와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러자 줄집게벌레가 고아댔습니다.

《이놈은 미쳤소.》

하지만 빨룩이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님, 저는 분명히 형님과 만났댔습니다. 거미줄에 꽁꽁 묶여있었어요.》

《무슨 잠꼬대같은 소리를 해.》

장수풍뎅이는 딱 잘라 꽥 소리질렀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보았습니다. 꼭 그를 찾아봐주십시오.》

《이놈아, 여기가 뭐 네가 하자는대로 하는 세상인줄 알아?》

이렇게 말한 장수풍뎅이는 객석을 향하여 《여러분, 재판은 끝났으니 어서 다 돌아가주십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곤충들은 줄레줄레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줄집게벌레의 뒤를 말거미와 귀뚜라미가 바싹 따라서 나갔습니다.

재판소안에는 장수풍뎅이와 빨룩이만 남게 되였습니다. 장수풍뎅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맛이 어떠냐?》

《흥.》
빨룩이는 코웃음쳤습니다.
《무섭지 않아?》
《…》
속으로는 좀 무서웠습니다.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고 장수풍뎅이를 쏘아보았습니다.
《흐흐, 무섭지?》
장수풍뎅이는 이러며 빨룩이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한가지 의논해보자.》
《…》
《네가 응해주기만 하면 산삼씨도 돌려주고 줄집게벌레도 혼내여주겠다. 또 네가 받은 벌도 감형해주겠고. …》
《난 죄가 없어요. 그러니 감형할것도 없어요.》
그러자 장수풍뎅이는 사뭇 엄하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알아둬. 여긴 제맘대로 세상이야. 종신번데기형에 징역형을 받으면 넌 동산으로 영영 못돌아가게 돼.》
장수풍뎅이는 눈을 번득이며 빨룩이옆에 바싹 다가붙어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얘야,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이건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단다. 응? 응해주지?》
빨룩이는 그냥 그놈을 쏘아보기만 했습니다.
《나리꽃동산략도를 그려주렴. 네가 그걸 그려주지 않으면 나도 죽어야 한단다. 넌 물론이고.》
모두 갈고같은 놈이였습니다.
빨룩이는 소리쳤습니다.
《나쁜 놈들, 몽땅 나쁜 놈들이야!》
《뭐?!》
장수풍뎅이는 깜짝 놀란듯 뒤로 한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누구말이냐?》
《누군 누구야. 네놈들이지!》

빨룩이는 더 높이 소리쳤습니다.

《나를 속여서 데려오고 동산의 략도를 그리라고 하며 안보내주고 협잡으로 내 물건을 빼앗고 잠든 사이 몸안에서 피를 뽑아내고! 산삼씨도적놈은 놓아주고 죄없는 나에겐 벌을 내리구! 또 달룩형님까지 잡아다 상처를 입히고, 이게 나쁜 놈들이 아니고 뭐냐. 이놈들아!》

그런데 장수풍뎅이는 눈섭도 까딱 안했습니다.

오히려 호통쳤습니다.

《여긴 할미꽃동산이야. 제맘대로 사는! 너도 좀 보고 느꼈을텐데? 놀고싶으면 놀고, 빼앗고싶으면 빼앗고, 도적질하고싶으면 도적질하고 속이고싶으면 속이고, 죽이고싶으면 죽이고, 여기선 무엇이든 다 제맘대로란 말이야!》

빨룩이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난 이젠 알만큼 다 알았어. 이런 세상, 이런 동산에 호기심을 가졌던 내가 바보였고 어리석었다.》

《그러니 못하겠다는거지?》

장수풍뎅이는 따져물었습니다.

《그렇다!》

《죽어도 좋니?》

《죽어도 좋다!》

《에이, 요게 정말 독종이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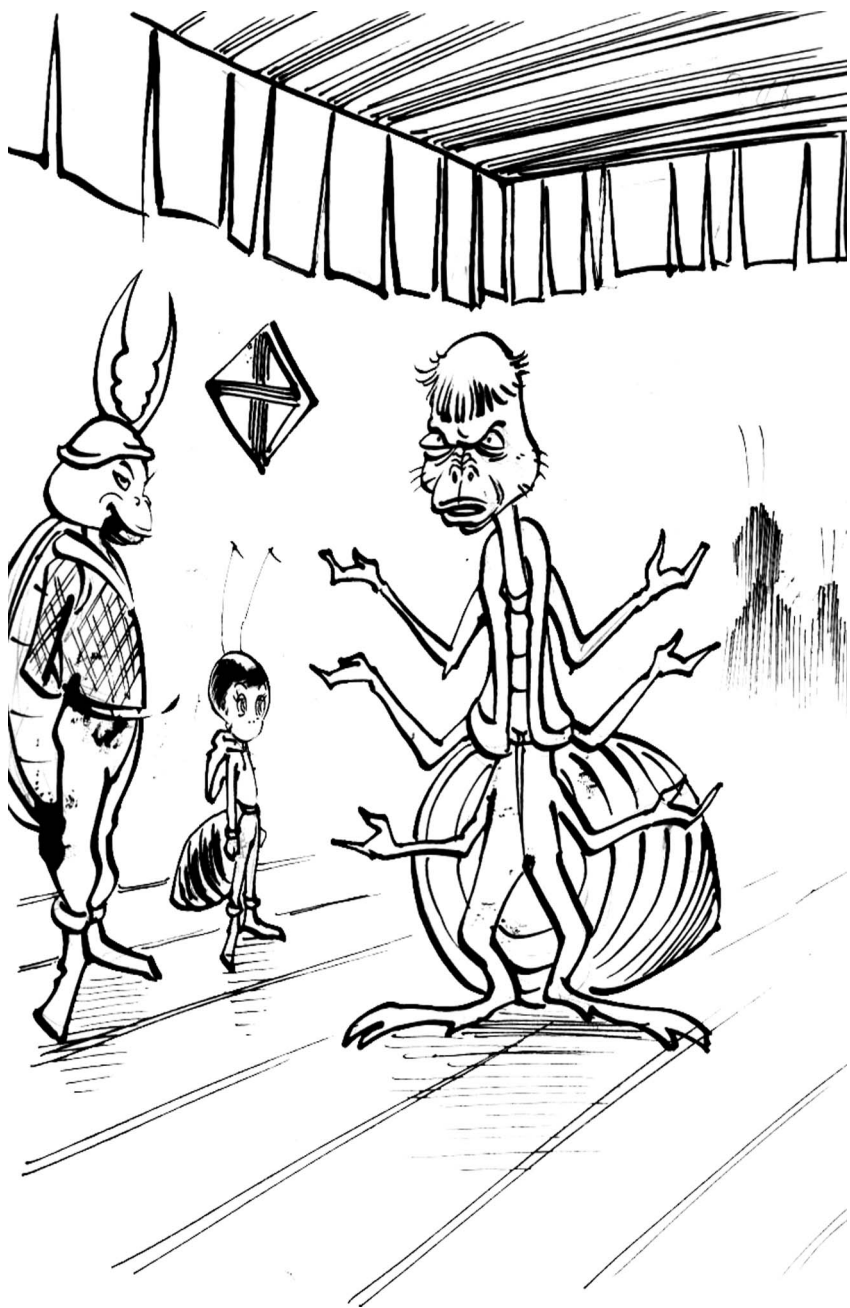
장수풍뎅이는 빨룩이를 한입에 삼킬듯이 집게입을 항 벌리고 달려들었다가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휴, 난 손들었다.》

장수풍뎅이는 누구인가 불렀습니다.

노린재가 분주히 달려왔습니다. 낯이 익어 유심히 보니 큰 곤충의 보초를 서러간다고 으시대며 자기에게 발길질을 했던 그 노린재였습니다.

이제보니 이곳은 몽땅 이런 놈들판이였습니다.

장수풍뎅이는 노린재와 뭐라고 수군덕거렸습니다.

얼마후 노린재가 또다시 달려나갔다오더니 장수풍뎅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수풍뎅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장수집게벌레님이 널 데려오라고 했다. 가자!》
빨룩이는 장수풍뎅이와 노린재에게 끌려가면서 이제 장수집게벌레를 만나서 할 말을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할미꽃동산에서 왕노릇을 하는 놈이라니 이 무지막지한것들과는 좀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수풍뎅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장수집게벌레를 본 빨룩이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장수집게벌레란 며칠전 그들이 뚝을 쌓을 때 무지막지하게 달려들었다가 쫓겨 달아난 그놈이였던것입니다.
그러고보니 이 할미꽃동산에서는 어느 놈이나 다 꼭같은 나쁜 놈들이였습니다.
장수집게벌레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음, 네놈이였구나.》
장수집게벌레는 그의 주위를 빙 돌아보더니 《쯧!》 하고 혀를 찼습니다.
《흠, 정말 다 빨리고 껍질만 남았구나!》
그놈은 장수풍뎅이에게 물었습니다.
《돌드레놈의 행처는 알아냈느냐?》
《아직…》
《뭐야?》
장수집게벌레놈의 눈알이 커지고 집게발이 쩍 벌어지자 장수풍뎅이는 급해맞아 머리를 조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까지 재판을 하느라고 그만…》
《재판? 그건 누굴 위해 하는거야? 재판도 이 장수집게벌레님을 위해 있는거야! 요놈이 나리꽃동산 비밀을 대주지 않겠다고 한다기에 장수꿀먹은 요놈이래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돌드레놈이 먼저 알짜를 다 빨아먹어버렸다면서? 그놈을 빨리 잡아오라.

빨리! 요놈에게서 빨아먹은게 다 없어지기 전에 잡아오란 말이야!》

이놈은 더 지독한 놈이였습니다.

장수꿀에 이렇게 미쳐버린 놈이 있다는것이 놀라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수꿀이 얼마나 귀중한것이며 기어이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것을 재삼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어떻게 되여 개미들의 장수꿀이 그렇게 좋은것임을 알게 되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장수집게벌레는 장수풍뎅이에게 한참 떠들어대더니 지쳐버린듯 주저앉아 장탄식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다 이미 늙어죽은 조상탓이야. 늙어버려서 내다 버릴려고 했더니 난 죽지 않았다, 한두해는 더 살것이니 내다버리지 말아다오 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밖에 나가 어정거리다가 잠자리놈이 개미들에게 장수꿀을 얻어가다가 흘린걸 한두방울 먹었다는거야. 그걸 먹었더니 힘이 나고 젊어지는것 같다는게거든. 그리고는 정말 한해반이나 더 살았단 말이야. 죽을 때 하는 말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든 개미들의 장수꿀을 먹어라. 만들 생각은 애당초 말고… 그건 개미들 몇천마리가 물어들인 꿀과 단즙으로 만드는것인데 여기 마음대로 세상 에서야 몇천마리가 아니라 몇마리라도 그 일을 함께 할 놈이 있느냐? 없지, 없어. 어느 놈이나 제 입부터 처넣고말테니…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말고 훔쳐서 먹어라. 빼앗아먹든가. 이 세상에서 공짜라는건 훔치고 빼앗는것밖에 없다. 장수꿀을 훔쳐먹든 빼앗아먹든 하면 우리 장수집게벌레들은 힘이 세서만이 아니라 오래 산다는것으로도 장수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게다. 오래오래 살거라. 부디…〉 하더란 말야. 망할놈의 늙다리, 그 장수꿀을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다 죽을 때 된게 욕심스레 처먹으면서… 내가 먹었으면 지금 이런 화나는 일도 없을게 아닌가 말이야. … 그러니 늙은것들은 빨리 죽어 없어져야 해. 물론 나만은 내놓구… 아, 금년밖에 못산다는걸 생각하면 미치겠어. 미치겠단 말이야!》

장수집게벌레는 화닥닥 일어나더니 빨룩이의 주위를 한바퀴 빙

돌고나서 그의 앞에 멎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은근하게 물었습니다.

《어쩔테냐? 장수꿀창고로 가는 길을 그려주지? 그럼 널 살려주마. 네가 동산에 가겠다면 제일 크고 빠른 나비가 너를 데려다주게 하고 여기서 살겠다면 제일 큰 독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번데기벌을 내릴테다! 내 말을 듣겠다고 할 때까지 번데기속에 가두어두겠단 말이다. 어쩔테냐?》

빨룩이는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장수집게벌레의 상통을 노려보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은 말짱 사라지고 증오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빨룩이는 그놈의 머리에서 나불거리는 더듬뿔을 노려보았습니다.

자기가 물었던 그 더듬뿔이였습니다.

(좋다. 이놈의 코를 깨물어서 꼼짝 못하게 하자! 아예 놓아주지 말고 뚝 끊어버리고말리라. 너죽고 나죽고 해보자.)

빨룩이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놈이 앞으로 더 다가들며 《자, 어떻게 하겠니? 내가 하라는대로 하지?》 하고 말할 때 《야, 이놈아. 이 빨룩이를, 우리 개미들을 뭘로 아는거냐?》 하고 용감하게 그놈의 더듬뿔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는 그놈의 더듬뿔을 단번에 깨물어 혼낼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듬뿔옆에도 못가보고 그놈의 집게발에 허리를 잡히고말았던것입니다.

장수집게벌레는 집게발로 잡아쥔 빨룩이를 눈앞에 쳐들고 들여다보며 지껄여댔습니다.

《어쩔가. 껍질만 남은 놈이라도 바삭바삭 깨물어먹어버릴가. 아니, 아니지. 그럼 나리꽃동산 비밀을 대줄 놈이 없게 되지. 야, 이놈에게 번데기벌을 주어라.》

빨룩이는 그놈의 더듬뿔을 물려고 다시한번 힘을 썼으나 다쳐보지도 못하고 버둥거리기만 하였습니다.

다음순간 그놈의 집게발이 뿌려던지는 바람에 말거미의 포승줄(거미줄)에 가서 떨어지고말았습니다.

말거미의 포승줄은 얼마나 질기고 껍진껍진한지 한번 묶이니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아!》

빨룩이는 그만 눈을 꽉 감고말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였습니다.

뚝에서의 싸움때 장수집게벌레를 혼내울수 있은것은 그가 특별히 날래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숱한 개미형제들이 함께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말입니다.

그 힘이란 결국은 전체의 힘이였던것입니다.

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독불장군이였습니다.

장수집게벌레는 말거미의 포승줄에 묶이워 버둥거리는 빨룩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애기줄거미를 불러다 빨리 번데기로 만들어버려.》

애기줄거미가 나타났습니다.

빨룩이가 할미꽃동산에 처음 왔을 때 환영공연에 나왔던 그 줄거미였습니다.

그때 눈 깜박할 사이에 다각형의 거미줄을 만들고 하루살이를 잡는 그를 보며 너무나 신기하여 박수를 쳤던 빨룩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애기줄거미가 표독스러운 자세로 빨룩이에게 다가오고있습니다.

그를 하루살이처럼 만들려고말입니다.

애기줄거미는 다가오더니 하얗고 가느다란 줄을 뽑아 빨룩이의 몸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한바퀴두바퀴 뱅뱅 돌며 감고 또 감았습니다.

《앗!》

빨룩이는 몸부림치며 그것을 피해보려 했으나 말거미의 포승줄에 묶여 어쩔수 없었습니다.

혼자몸이 된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빨룩이는 점점 하얀 번데기로 변하고있었습니다.
애기줄거미는 사기가 나서 끝없이 거미줄을 뽑아내 촘촘히 묶고 또 묶었습니다.
몸뚱이는 없어지고 얼굴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잠간 사이 하얀 번데기로 되여버렸습니다.
《야, 이놈들아!》
번데기가 된 빨룩이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헛된짓이였습니다.
그는 가위턱으로 제 몸을 둘러싼 애기줄거미의 거미줄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그것을 본 장수집게벌레는 놀라 급히 말했습니다.
《저놈의 가위턱도 묶어버려라.》
그러나 빨룩이가 가위턱을 휘두르며 더욱 야단하는 바람에 애기줄거미는 다가오지 못하고 당황해하였습니다.
말거미가 뒤로 다가가 빨룩이의 머리에 마취독침을 푹 꽂았습니다.
빨룩이는 순간에 마취되여 온몸이 나른해지고 눈이 가물가물 해졌습니다.
애기줄거미는 그제야 빨룩이에게 다가가 그의 가위턱을 거미줄로 꽁꽁 감아버렸습니다.
《더듬뿔까지 감아버려.》
장수집게벌레가 또 소리쳤습니다.
더듬뿔까지 하얀 거미줄로 감으니 눈과 입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하얀 번데기였습니다.
그제야 장수집게벌레가 만족한듯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입은 내놔야 말을 시키겠으니 입과 눈은 그냥 둬. 흐흐흐. 애기줄거미의 거미줄은 물에도 녹지 않고 가위턱으로도 찢을수 없으니 나리꽃동산놈들이 데려가도 어쩌지 못할거야. 흐흐흐.》
장수집게벌레의 비위를 맞추듯 말거미도 《헤헤헤.》 하고 따라웃었습니다.

애기줄거미도 《해해해.》 하고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장수집게벌레가 웃음을 멈추고 그들을 노려보더니 호통쳤습니다.

《그렇다고 이놈을 소홀히 하면 안돼. 잘 지켜야 한다.》

《아, 그럼요.》

말거미와 애기줄거미가 갑삭거렸습니다.

장수집게벌레는 한동안 빨룩이를 바라보더니 풀미끼를 불렀습니다.

《됐다. 이놈을 검은 호수에 처넣어라.》

풀미끼가 빨룩이를 물고 (이제는 빨룩이가 아니였습니다. 번데기였습니다.)어데론가로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풀미끼의 입에서 떨어져내리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호수에로 떨어져 내려가고있었습니다.

물은 시꺼멓기만 했습니다.

(아, 이게 검은 호수로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이 그는 물에 떨어졌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숨이 꽉 막혔습니다. 말이 호수이지 썩은 물이 잔뜩 고인 물웅뎅이였던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힘있다고 하던 개미가 번데기의 꼴이 되여 썩은 물웅뎅이에서 살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때 꼬불딱거리는 곤두벌레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넌 어디서 갑자기 떨어졌니?》

《…》

대답하고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는데 그 곤두벌레는 자기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곤두벌레로 되니? 아니면 다른 그 무엇으로 되니?》

《…》

《어느 새가 물고가다가 떨어뜨린 모양이구나.》

빨룩이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 곤두벌레는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니? 그럼 조금만 참아. 난 며칠 있으면 곧 모기가 되여 훨훨 날아다닐수 있어. 너두 그때쯤이면 무언가 되겠지.》

빨룩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모기?》

《응, 한주일만 참고 기다려. 그러면 너도 무언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며 제 마음대로 살수 있을거야.》

빨룩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일은 안하고 남의 피만 빨아먹는 모기의 동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됐단 말인가?…)

동무들의 곁을 떠난것이 천백번 후회되였습니다.

혼자 다니면 절대로 안된다고, 우린 혼자 다니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게 되지만 함께 있으면 가장 강해진다던 달룩형님의 말의 뜻이 리해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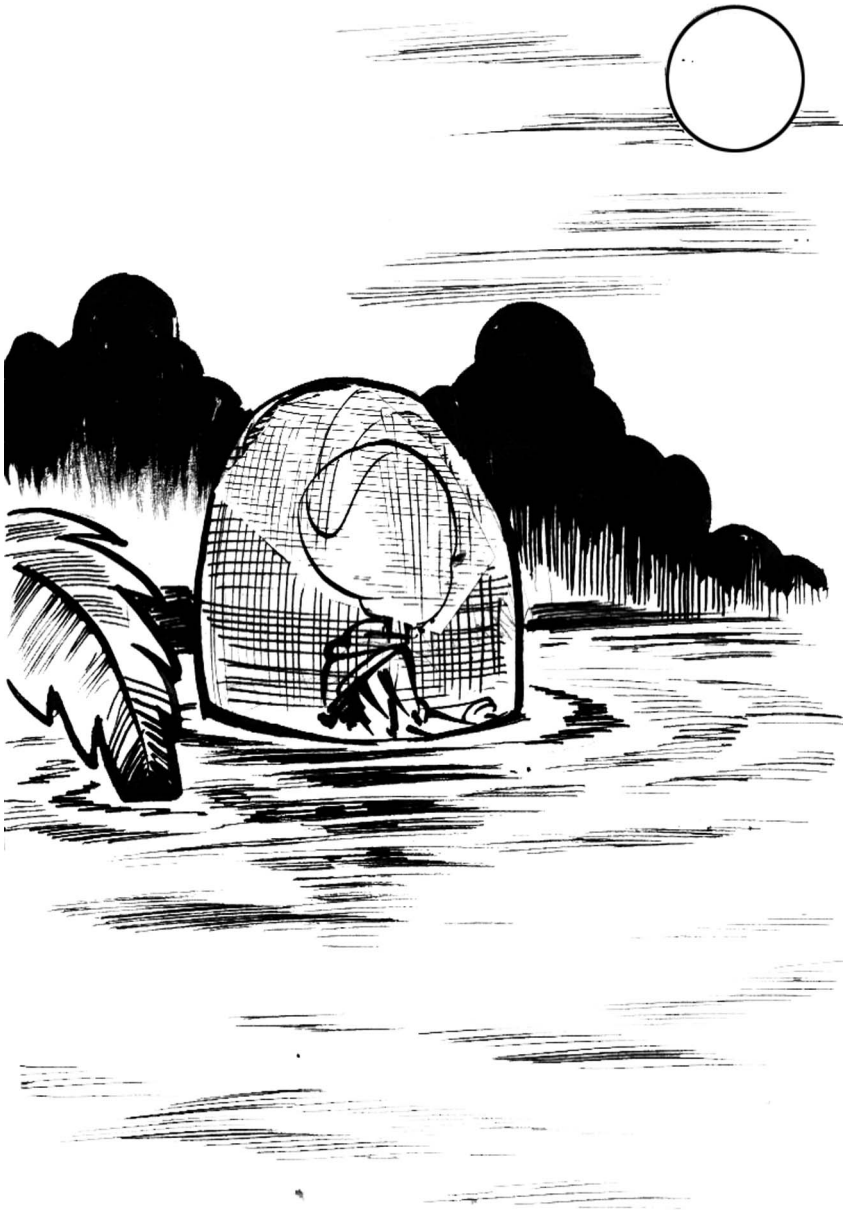
《너 혹시 하루살이가 아니니?》

꽤 검질긴 놈이였습니다.

곤두벌레는 계속 물었습니다.

《하루살이면 참 불쌍해. 하루밖에 못사니 말이야. 그러나 우리 모기들은 하루살이보단 훨씬 더 오래 살아. 그리고 작아서 어느 새도 잡아먹으려 쫓아다니지 않으니 그만하면 좋은 팔자지 뭐.

우린 그저 개구리나 두꺼비, 거미를 조심하면 된대. 그중에서 거미라는 놈은 정말 무섭대. 거미줄이라는걸 쳐놓는데 껍진껍진해서 걸리면 벗어 못난다는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모기로 되는건 좋아. 훨훨 날아다니며 남의 피를 쪽쪽 빨아먹구 제맘대로 살거든. 요전엔 말이야. 모기형님이 저 풀잎에 앉아 씨근거리며 날지 못하고있기에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너무 배부르게 피를 빨아먹어서 날아갈수 없다잖겠어? 얼마나 부럽던지 말이야. 이제 나도 그렇게 배터지게 실컷 피빨아먹으며 살아야지. 한주일만 기다리면 돼. 그런

데 네가 하루살이라면 그건 참 안됐는데?…》
빨룩이는 하루살이고 모기고 다 싫었습니다.
하긴 이렇게 살바엔 하루살이가 되는게 나을것도 같았습니다.
인차 죽어버릴테니까요.
빨룩이가 아무 응대도 하지 않는데 대하여 곤두벌레는 약이 오른것 같았습니다.
《야, 넌 귀머거리니? 벙어리니? 어디서 살다왔니?》
그가 떠들자 곤두벌레들이 수십마리나 모여들었습니다.
빨룩이는 그들과 마주서기 싫어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곤두벌레들은 그를 따라오며 그냥 성화먹였습니다.
빨룩이는 돌짬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거 정말 괴상한 놈이구나. 야, 하얀 알주머니야, 이리 나와! 나오지 못하겠어?》
빨룩이는 당황했습니다.
(아, 저것들을 잡아먹는 물고기라도 있었으면…)
그런데 여기는 물고기도 살지 않았습니다.
한참동안이나 떠들어대던 곤두벌레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조심스레 돌짬에서 머리를 내밀고 살펴보니 어디로 밀려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
빨룩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습니다.
하면서도 기가 막혔습니다.
(난 왜 여기까지 오게 되였을가. 동산엔 숱한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왜 오직 나혼자만 여기까지 오게 되였을가.)
생각해보니 원인은 자기가 왕개미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데 있었습니다.
우리 동산이 제일이고 할미꽃동산은 나쁜 동산이라는 왕개미엄마와 볼룩이형의 말은 믿지 않고 나쁜 놈 도루래의 말을 더 믿은데 있었습니다.
(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되누나. 난 왜 왕개미엄

마의 말을 듣지 않았을가.)

그것은 자기가 제일 잘난줄 알고 우쭐해한때문이며 동무들을 깔본때문이였습니다.

조금 잘났다고 내세워준것을 가지고 큰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한때문이였습니다.

정말이지 못난이중에서도 상못난이였습니다.

빨룩이의 눈앞에는 나리꽃이 활짝 핀 동산이 보이는듯 하였습니다.

지금은 나리꽃철이여서 더더욱 아름다울 동산이였습니다.

다정하고 화목하고, 서로서로 위해주는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동산!

못견디게 동산이 그리웠습니다.

(왕개미엄마! 동무들! 난 동산에 가고싶어요. 만약 기적이 일어나 동산에 가게 된다면 난 한평생을 개미로, 부지런한 개미로만 살겠어요. 마음껏 동산을 위해 일하겠어요.)

불쑥 노랑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은 약하고 날래지 못해도 고지식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노랑이였습니다.

(노랑아, 넌 좋겠구나. 동산에서 살고있으니… 날 용서해. 난 네가 힘이 약하다고 깔보았댔지. 난 왕개미엄마와 형님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벌을 받았어.)

여물이도 떠올랐습니다.

한날한시에 태여나 한침대에서 자란 그들은 사실 세쌍둥이나 같았습니다.

(여물아, 난 널 고깝게 생각했어. 동무들앞에서 날 망신시켰다고 널 나쁘게만 생각했단다.

내가 나쁜 길에 들어설가봐 네가 진심으로 말했다는걸 이젠 알게 됐어.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된 지금에야 알게 됐구나. …)

문득 달룩형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미줄에 꽁꽁 묶이우고 더듬뿔이 다 꺾어진 몸으로도 자기에게 무엇인가 당부하는듯 하던 눈빛이였습니다.

(달룩형님은 어떻게 되였을가… 살았을가? 아니면 잘못되였을가. … 결국 달룩형님은 나때문에 그렇게 됐어. 내가 도루래놈이 물어다준 딸기를 혼자 날라왔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아, 난 달룩형님까지 잘못되게 했으니 정말 용서할수 없는 놈이야. 그런데도 달룩형님은 성내거나 나무라지 않고 나를 다정히 바라보았댔지.

그리고 무엇인가 당부했지. 그건 뭘가?… 그건 동산을 절대로 배반하지 말라는 뜻이였을거야. … 옳아, 그거야… 달룩형님! 난 형님의 당부를 끝까지 지킬래요!

아, 답답해. 왜 가슴이 이리도 답답할가. …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왕개미엄마도, 동무들도 모르게…)

서글픔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도모르게 눈물이 핑그르르 고여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했나. 장수감이라고, 동산을 위해 큰일을 할수 있다고 태여났을 때 온 동산을 기쁘게 했던 내가…)

고였던 눈물은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다시 태여나면, 정말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훌륭하게 살아보겠는데…)

새라도 나타나 자기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다음은 새의 배속에 들어가겠지만 혹시 기적이 일어나 땅우에 떨어질지도 모르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꺼먼 물우에로는 날아오는 새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도 역해서 모두 피해가는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갈수 있을가?)

곤두벌레들은 한주일을 지나면 모기든 하루살이든 되여 여기서 나가게 된다지만 자기는 그런 운명도 아니였습니다.

물면우로 올라가보니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맑은 하늘아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무들과 함께 있

던 때가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다시 돌아갈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 그리웠습니다.

(혹시 누가 날 구원해주러 오지 않을가. …)

그러나 곧 그것은 헛된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원해줄수 있는것은 나리꽃동산의 동무들뿐인데 그들이 있는 곳은 여기서 너무도 멀었습니다.

또 그들은 빨룩이가 여기 있다는것을 알수도 없었습니다.

빨룩이는 줄곧 물면에 바투 떠올라있었습니다.

물밖세상을 보는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였기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자 저절로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빨룩이는 한사코 물속으로 잠겨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문득 공중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룩아! 빨룩아!—》

(응?! 이게 누구 목소리던가?)

빨룩이는 깜짝 놀래여 고개를 물밖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저도모르게 힘이 생겼습니다.

《날 찾는게 누구니?》

그러자 하늘에서 반기는 목소리가 환성처럼 커졌습니다.

《야!— 빨룩아, 너 여기 있었구나!》

여물이, 그것은 틀림없는 여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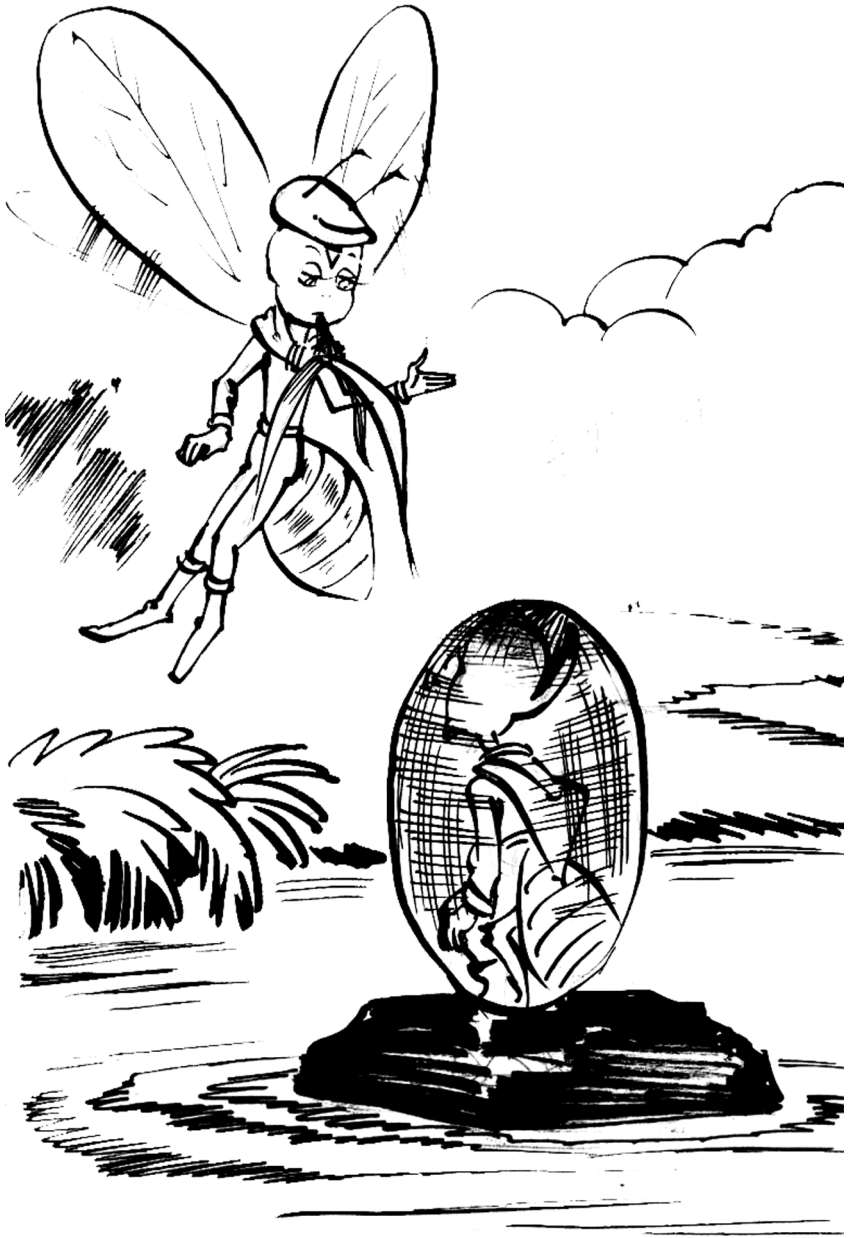
그런데 그의 몸에는 날개가 달려있었습니다.

빨룩이를 알아본 그는 입에 가는 풀대를 물고 물면으로 날아내려왔습니다.

《빨룩아, 이걸 잡아, 빨리!》

《여물아!》

어쩌면 좋습니까?

그는 팔도 다리도 하얀 거미줄속에 들어가버렸으니 풀대를 잡고 매달릴수 없었습니다.

빨룩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여물이는 말했습니다.

《빨룩아, 가위턱으로 물어.》

하지만 그의 가위턱도 거미줄에 꽁꽁 묶여있어 쓸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았는지 여물이는 어데론가 날아갔습니다.

빨룩이는 물면에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애쓰며 여물이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신기하였습니다.

여물이가 어떻게 되여 그가 여기에 있는것을 알고 왔을가요? 그리고 여물이에게는 어떻게 되여 날개가 생겼을가요?

제 3 장

나리꽃동산의 동무들

(1)

그사이 개미동산에서는 빨룩이와 달룩이의 행적을 찾아내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종시 찾아내지 못하고 종적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와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히 봉봉이를 통해 빨룩이가 할미꽃동산으로 갔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빨룩이가 도루래와 함께 할미꽃동산으로 달룩이를 찾으러간다고 했다는 봉봉이의 말을 듣고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를 짐작하게 된것입니다.

할미꽃동산에 달룩이를 찾으러갔다던 빨룩이가 오지 못한것은 그가 그곳에서 붙잡혀있거나 잘못되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습니다.

그러느라니 달룩이의 행방도 짐작되였습니다.

달룩이의 행적이 뚝 끊어지는데서 도루래의 흔적을 발견했던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콩제비꽃나무잎에 써놓은 빨룩이의 글도 발

견했던것입니다.

《달룩이는 잡혀가고 빨룩이는 속히워 끌려간것이 분명하다! 그들을 빨리 찾아내여 구원해야겠다.》 하고 왕개미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동산에서는 빨룩이와 달룩이를 구원하기 위해 할미꽃동산에 우선 정찰병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찰병은 날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먼곳이였고 그 사이의 강물이 깊어서 건느기 어려웠습니다.

또 걸어가다가는 인차 발견될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있는 개미는 수개미들뿐인데 수개미들은 명이 짧아 인차 로쇠가 왔습니다.

지금 있는 수개미들중에는 정찰병이 될만한 개미가 없었습니다.

정찰병을 파견하려면 빨빨한 로동개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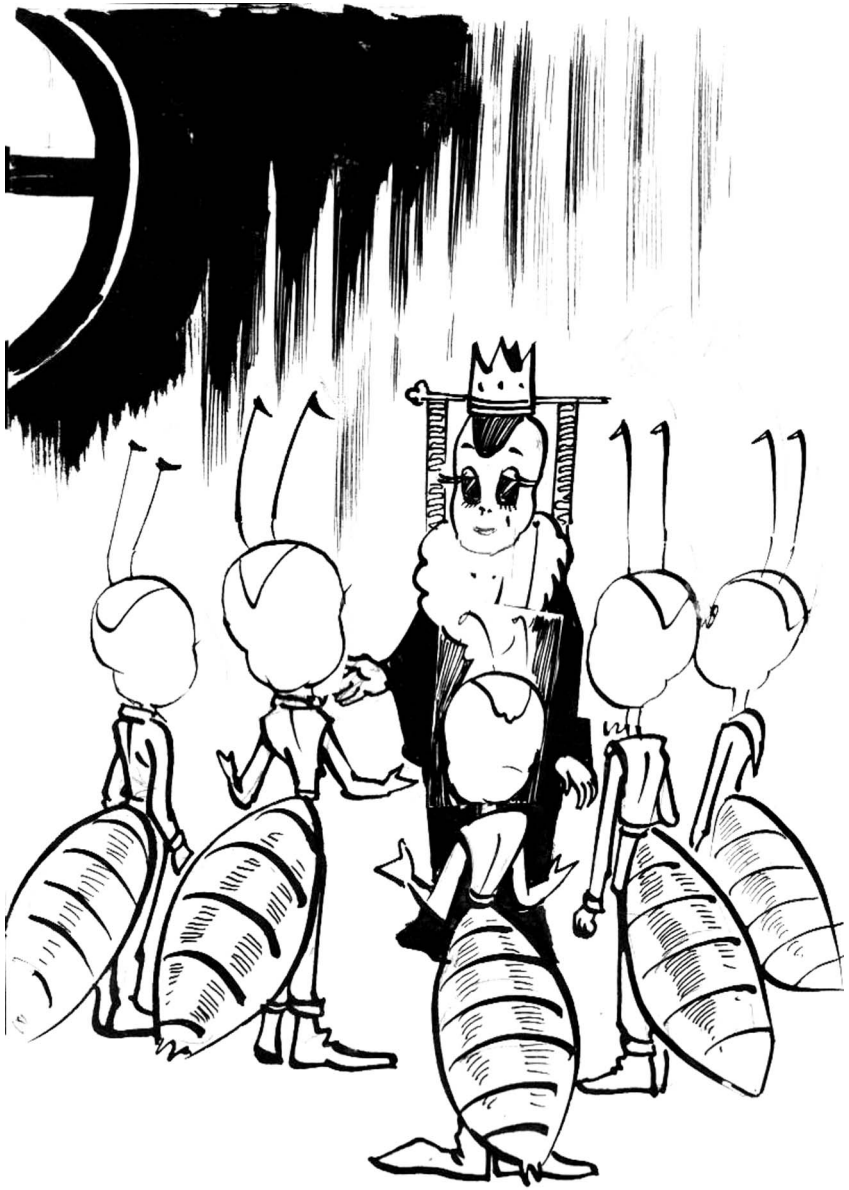
그런데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간단치 않은 일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날면 땅에서 보다 몇배나 위험하고 또 인차 기력이 빠져 수명이 줄어들기때문이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곤충들의 명이 짧은것은 바로 그때문이였습니다.

1년밖에 못살았으니까요.

그러니 누구더러 몇달밖에 못사는 수개미의 날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나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새빨간 거짓말들중의 하나가 죽고싶다는 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은 잠간사이에 이입저입을 통해 온 동산이 모두 알게 되였습니다. 그러자 개미네 동산에서는 큰 소동이 났습니다.

숱한 개미들이 저저마다 날개를 달겠다고 나선때문입니다.
《내가 날개를 달겠어요!》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누구나 빨룩이와 달룩이를 찾아오는 일에 나서려고 하였습니다.
첫날엔 열이, 다음날엔 스물도 더 되는 개미들이 찾아왔습니다.
왕개미엄마는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알만하다. 참으로 기특하다. 그러나 지금은 정찰개미 하나만이 필요하다. 빨룩이와 달룩이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한단다. 그다음 그들을 구원하러 갈 땐 필요하면 둘이 될수도 있고 열이 될수도 있고 백이 요구될수도 있다.》
그러자 선참으로 여물이가 나섰습니다.
여물이는 왕개미엄마와 동무개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왕개미엄마, 나리꽃동산의 동무들,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는 여물이입니다. 나 여물이와 빨룩이 그리고 노랑이, 이렇게 우리 3형제는 한날한시에 태여났고 한침대에서 자랐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떠들어댔습니다.
《나도 그날에 태여났습니다.》
《나도 같은 날에 태여났는데요 뭐. 난 그애의 옆침대에서 자랐어요.》라고 말하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또 형님개미들은 《흥, 그건 우리 형개미들이 할 일이야. 왕개미엄마! 정찰개미를 우리들속에서 뽑아야 합니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여물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는 누구보다 빨룩이를 잘 압니다. 빨룩이는 일도 잘하고 호기심도 많고 열성도 많습니다. 그는 사실 훌륭한 동무입니다.
자기에게 참깨 반쪽이 생겼을 때 그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고말이예요. 그런데 나는 그를 잘 도와주지 못했

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볼줄 모르고 겉만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괴로움이 있었을텐데 나는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기 좋아하다가 결국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를 구원하러 제일먼저 가야 합니다.》

그러자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여물이는 간절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나는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합니다.》

왕개미엄마는 사랑스런 눈빛으로 여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껴안아주었습니다.

《기특하다, 여물아.》

왕개미엄마는 개미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물이를 먼저 정찰하러 보내기로 하자. 여물이는 꼭 정찰을 바로해가지고 동산으로 돌아올것이다. 그다음에 빨룩이를 구원하러 갈 땐 모두 떨쳐나서기로 하자.》

《…》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개미엄마의 뜻을 따른다는 태도였습니다.

하여 여물이가 정찰개미로 뽑히게 되였고 날개를 달게 되였습니다.

(2)

여물이는 할미꽃동산을 향하여 날았습니다.

아직은 너무도 모르는것이 많았습니다.

달룩이형님과 빨룩이가 그곳에 꼭 있겠는지도 똑똑히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꼭 구원해내야 하였습니다.

늪을 지나고 개울을 지나 계속 날아가니 할미꽃동산이 나타났습니다.

동산을 내려다보니 제일먼저 눈에 띄는게 6각집이였습니다. 6각집앞에는 노린재보초가 서있었습니다.

여물이는 그 집의 지붕우를 한번 날아돌며 살펴보았습니다.

노린재보초가 그를 발견하고 독가스총을 쏘았습니다.

그 역한 독가스냄새에 머리가 핑 돌아 여물이는 그만 땅에 떨어지고말았습니다.

《야, 넌 누구야?》

가까이 다가온 노린재가 을러대며 물었습니다.

납작한 노란 가죽옷을 입은 곤충을 처음 보는 여물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애써 마음을 진정하며 천연스레 대답했습니다.

《난 숲파리야.》

《뭐? 숲파리?… 처음 보는데… 파리집안에 너처럼 생긴 파리도 있니? 난 파리를 많이 보았는데 숲파리란 이름은 처음 들어.》

여물이는 당돌하게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흥, 네가 어떻게 10만종이나 되는 우리 파리집안을 다 안다구 그래.》

노린재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뭐, 10만종? 너의 집안이 그렇게 많아?》

《흥, 고까짓것도 모르면서 파리를 다 안다구?》

노린재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집게벌레님이 있는 여긴 왜 왔어?》

(아차, 여기에 장수집게벌레란 놈이 있구나.) 하고 생각한 여물이는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장수집게벌레님 만나러 왔어.》

여기서는 그놈이 제일 높은 놈같습니다.

《왜?》

《너한텐 말할수 없어. 직접 만나서 말할테다!》

《뭐? 말할수 없으면 못들어가!》

《뭐라구?》

여물이는 당장 날아오를듯 날개를 퍼덕이며 을러댔습니다.
《네가 감히 장수집게벌레님을 못만나게 해? 혼날줄 알아!》
그 말에 노린재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아, 아, 잠간만!》
《왜 그래?》
《내가 얼른 들어가서 장수집게벌레님에게 물어보고올게.》
노린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물이는 재빨리 노린재가 알지 못하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방안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흐흐흐, 그 하얀 번데기로 만든 개미놈을 검은 늪에 갖다던졌겠지?》
장수집게벌레놈의 말이 분명했습니다.
《예.》
《누가 지키느냐?》
《우리 풀미끼형제들이 지키고있습니다.》
《그래 거기서도 꿀창고있는 곳을 말 안하더냐?》
《예, 아직…》
그때 노린재를 본듯 장수집게벌레놈의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흠, 노린재냐? 왜 들어왔어?》
《숲파리란 놈이 장수집게벌레님을 만나겠답니다.》
《그래? 숲파리? 그건 웬놈이야. 들여보내라.》
노린재가 나가려는데 장수집게벌레가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참, 먼저 잡아왔던 개미놈은 어떻게 됐어?》
《어제 죽었습니다.》
《뭣이? 어느 놈이 죽였어?》
장수집게벌레가 발끈해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절로 죽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턱이 다 찢어져서 먹을수가 없었지요.》
여물이는 그것이 달룩형님이야기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룩형님은 죽었구나. 아, 달룩형님…)
가슴이 아팠습니다. 표독스런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젠 그 하얀 번데기로 만든 놈이라도 잘 살피라. 그놈까지 죽이면 안돼. 풀미끼, 알겠지?》
《예, 그런데 그 검은 늪에 그냥 둬두면 질식되여 죽을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창고에 가져다 넣자. 빨리 날라오라. 검은 늪에 넣으면 순간을 못참고 말할줄 알았는데… 코흘리개라더니 모두 독종들이군.》
장수집게벌레놈은 노린재에게 호통쳤습니다.
《야, 너 뭘 멍청히 서있어? 빨리 숲파리놈을 들여보내지 않구.》
한시가 급했습니다.
(하얀 번데기? 검은 늪?)
빨룩이를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빨룩이의 행처를 알아냈으니 빨리 검은 늪을 찾아가 그를 구원해야 했습니다. 풀미끼보다 먼저 날아가야 했습니다. 어물어물할새가 없었습니다.
여물이는 노린재와 풀미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물이가 공중에 날아올랐을 때 법석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숲파리, 숲파리놈이 어데 갔어?》
노린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장수집게벌레의 목소리가 뒤따라 들렸습니다.
《뭐? 숲파리놈이 없어졌다고? 야— 그놈이 개미였을지도 모른다.》
장수집게벌레의 노발대발한 욕설에 뒤따라 고래고래 지르는 호령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그놈을 찾으라. 방구퉁이, 대포를 쏘라. 노린재, 너도 독가스총을 쏘라!》
《빵— 빵—》

장수집게

《탕—》

쿵 쾅거리는 소리가 련속 들려오고 역한 독가스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여물이는 그 냄새를 피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날며 검은 늪이 어데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 ×

얼마간 날아가느라니 시꺼먼 늪이 보였습니다. 늪이라면 물이 푸르스름해야 할텐데 그 늪의 물은 아예 새까맸습니다. 아마 그래서 검은 늪이겠지요.

검은 늪을 찾아낸 여물이는 한순간 숨이 꽉 막히는듯 하였습니다.

검은 늪은 진펄과 감탕의 풀이 썩어 고인 늪이였던것입니다. 그 고약한 냄새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천리만리 멀리 떨어져가고싶은 곳이였습니다.

다행스러운것은 그 역한 냄새때문에 늪근처에는 그 어떤 곤충도, 새들도 없는것이였습니다. 오직 곤두벌레들뿐이였습니다.

이런데에 빨룩이가 들어가있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빨룩아, 빨룩아—》

여물이는 물면으로 날아내려가며 불렀습니다.

그러자 숱한 곤두벌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얀 번데기로 변한 빨룩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룩아, 빨룩아!》

여물이는 무턱대고 빨룩이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곤두벌레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러니?》

《누굴 찾니?》

낮추 떠서 물면을 찬찬히 살피던 여물이는 흠칫 놀랐습니다.

빨간 무리가 엉켜도는 물면에 하나의 흰점이 눈에 띄였습

니다.

하얀 번데기처럼 보이는 하나의 점이 물우에로 머리를 내밀려고 애쓰고있었습니다.

《앗! 하얀 번데기… 분명 저게 빨룩일거야.》

여물이는 물면을 스치듯이 날면서 소리쳤습니다.

《빨룩아, 빨룩아.》

《날 찾는게 누구니?》

들릴가 말가 가는 대답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물이는 알아들을수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빨룩이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아, 빨룩아. 여기 정말 있었구나!》

여물이는 너무 기뻐 환성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여 여물이는 검은 늪속에 있는 빨룩이와 만나게 되였던것입니다.

(날 어떻게 알고 찾아냈을가? 날개도 없는 여물이가 어떻게 하늘공중을 날수 있을가?)

빨룩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머리우에서 파란 풀대가 내리드리워졌습니다. 잔털이 가득 돋은 이상한 풀은 보기에도 무서웠습니다.

《빨룩아, 어서 여기에 몸을 갖다대.》

《?》

《무서워말아, 아무 일없어.》

빨룩이는 풀대에 몸을 갖다댔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풀대에 찍 달라붙었습니다.

풀대는 끈끈이주걱이였는데 그것을 빨룩이는 알수 없었습니다. 끈끈이주걱의 잎은 빨룩이의 온몸을 꽉 그러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잎이 그러쥔것은 하얀 번데기껍질이였을뿐입니다.

여물이는 그 줄기를 가위턱으로 물고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아휴―!》

시꺼먼 썩은 물속에서 빠져나온 빨룩이는 큰숨을 내쉬였습니다. 맑은 공기, 밝은 해빛을 보니 살것 같았습니다.

얼마후에 빨룩이는 여물이를 찬찬히 보았고 커다란 의혹에 잠겼습니다.

자기와 다름없는 로동개미로 태여난 여물이가 어떻게 수개미의 날개를 달게 되였는지 알수 없었던것입니다.

빨룩이는 웬일인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개미의 날개를 달게 되면 오래 살지 못하는것은 뻔한 사실이였으니까요.

《여물아, 넌 왜 수개미의 날개를 달았니?》

빨룩이의 말에 여물이는 싱긋이 웃을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수도 없었지요. 입에 풀대를 물었으니까요. 그러나 빨룩이는 깨달았습니다. 여물이의 웃음속에서 모든것을 다 알게 되였습니다.

(나때문이로구나. 나를 구원하려구 수개미의 날개를 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빨룩이는 너무나 괴로와 견딜수 없었습니다.

호수를 벗어나자 고아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저… 하얀 번데기를 잡아라. 하얀 번데기가 날아간다!》

풀미끼들이 따라왔습니다. 모기보다 조금 크고 잠자리보다 퍽 작은 놈들이 파란 날개를 팔랑거리며 따라오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멀리 날지 못하는 그들은 땅에 도로 내려앉으며 소리만 쳤습니다.

《저놈 잡으라, 저놈!》

6각집지붕우로 날아지났습니다.

떠드는 소리에 황급히 나와본 장수집게벌레가 큰 집게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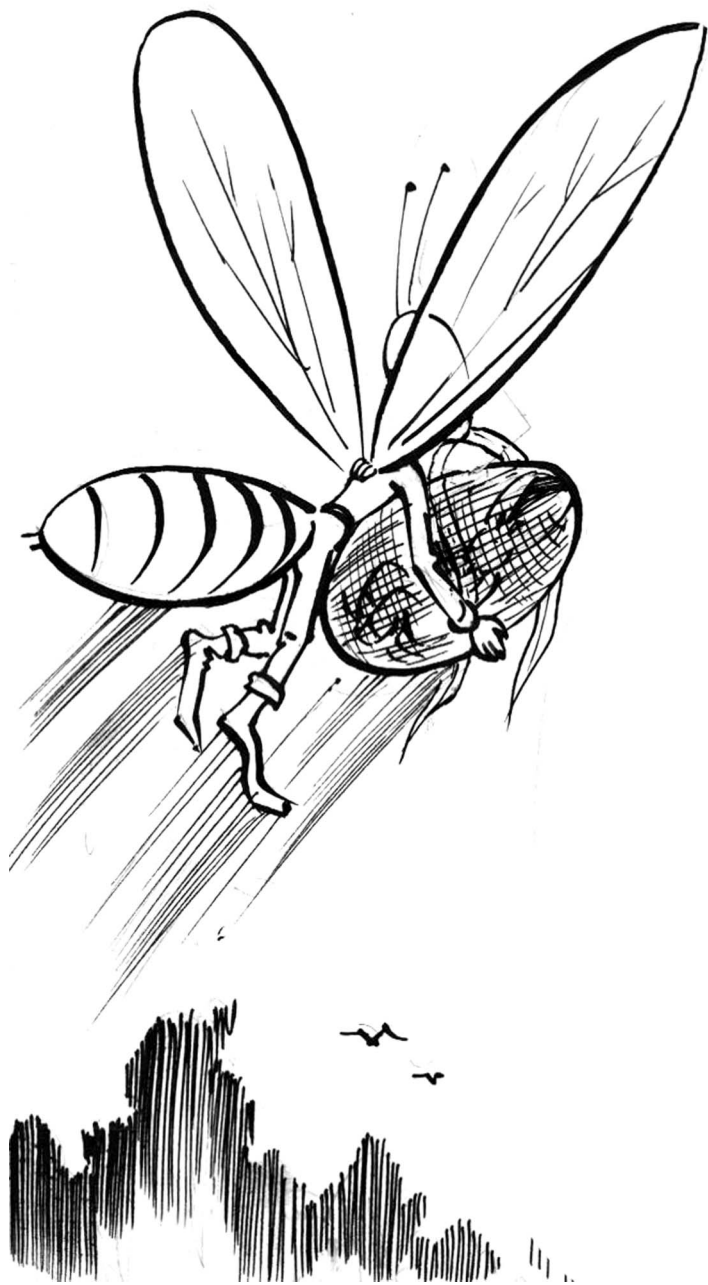
《빨리 저 개미놈을 잡아오라. 저놈들을!》

보초를 서던 노린재의 놀란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하얀 번데기를 데리고 나는 놈은 아까 숲파리라고 하던 놈이구나. 저놈도 개미였구나.》

장수집게벌레는 얼마 날지 못하는 풀미끼를 보자 입에 게거품을 물고 고아댔습니다.

《야, 이 반편같은 놈들아. 개미새끼 하나 따라가지 못해? 모… 모기가 어디 있어? 낮잠자는 모기들을 빨리 불러내라. 빨리!》

그러자 여기저기서 낮잠자던 모기들이 모여왔습니다.

풀이파리밑에서, 개울창, 돌짬밑에서 낮잠에 들었던 모기들이 때아닌 《비상소집》에 정신도 바로 차리지 못하고 몰려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령에 몰리워 비틀비틀 어질어질 모여왔습니다.

그러다가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날아올랐습니다. 빨룩이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여물아! 모기놈들이 따라온다!》

여물이는 걱정말라는듯이 미소를 지어보이고 힘있게 날개를 저었습니다.

만만이에게 혼쌀이 나던 그 함정이 있는 곳이 가까와왔습니다.

앵앵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모기들이 떼를 지어 그들을 포위하며 따라오고있는것이였습니다.

정말 야단났습니다. 얼마 지나자 옆에도 뒤에도 모기떼가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처음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여물이에 비하면 모기들은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어떤 놈들은 벌써 그들의 앞에서 뱅뱅 돌며 침을 뽑아들고 쏠 기회를 노렸습니다.

《빨리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죽일테다!》

빨룩이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여물아, 날 버리고 너 혼자만이라도 날아가. 그러다간 둘이 다 잡혀. 너까지 잡혀!》

그러나 여물이는 들은척만척 하고 계속 날개를 저었습니다.

《여물아, 어서 날 버리고 너 혼자 날아가. 너도 나처럼 번데기가 될수 있어. 저놈들은 못하는짓이 없단다. 앗!》

그들의 앞에 그물을 쳐놓은 거미줄이 나타났는데 여물이는 그것을 못본듯 곧바로 거미줄을 향해 날아가고있었던것입니다.

《여물아, 거미줄이야. 거미줄!》

빨룩이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여물이가 빨리 날아갈 생각에 거미줄을 못본줄로 알았던것입니다.

그러나 여물이는 그냥 거미줄을 향해 곧바로 날아갔습니다.

《여물아!》

빨룩이는 그만 눈을 감고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빨룩이를 입에 문 여물이는 그냥 씽씽 날아가고있는데 뒤미처 모기들의 비명소리가 터졌던것입니다.

그제야 빨룩이는 여물이가 모기들을 거미줄로 유인하고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물이는 그물같은 거미줄을 잡아주느라 길게 내리뻗은 거미줄 밑으로 빠져나가고 정신없이 쫓아오던 모기들은 수십마리나 무리로 거미줄그물에 걸려든것이였습니다.

개미들처럼 겹눈과 홑눈이 따로 없는 모기들의 눈에는 거미줄이 보이지 않았던것입니다.

모기들의 비명소리와 몸부림에 기여나온 거미가 너털웃음을 치며 모기들을 거미줄로 꽁꽁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모기들은 아우성쳤습니다.

《야, 우릴 왜 잡아? 우린 장수집게벌레님의 분부로 저 개미놈들을 쫓아가는거야. 빨리 놓아줘!》

그러나 숲거미는 들은척도 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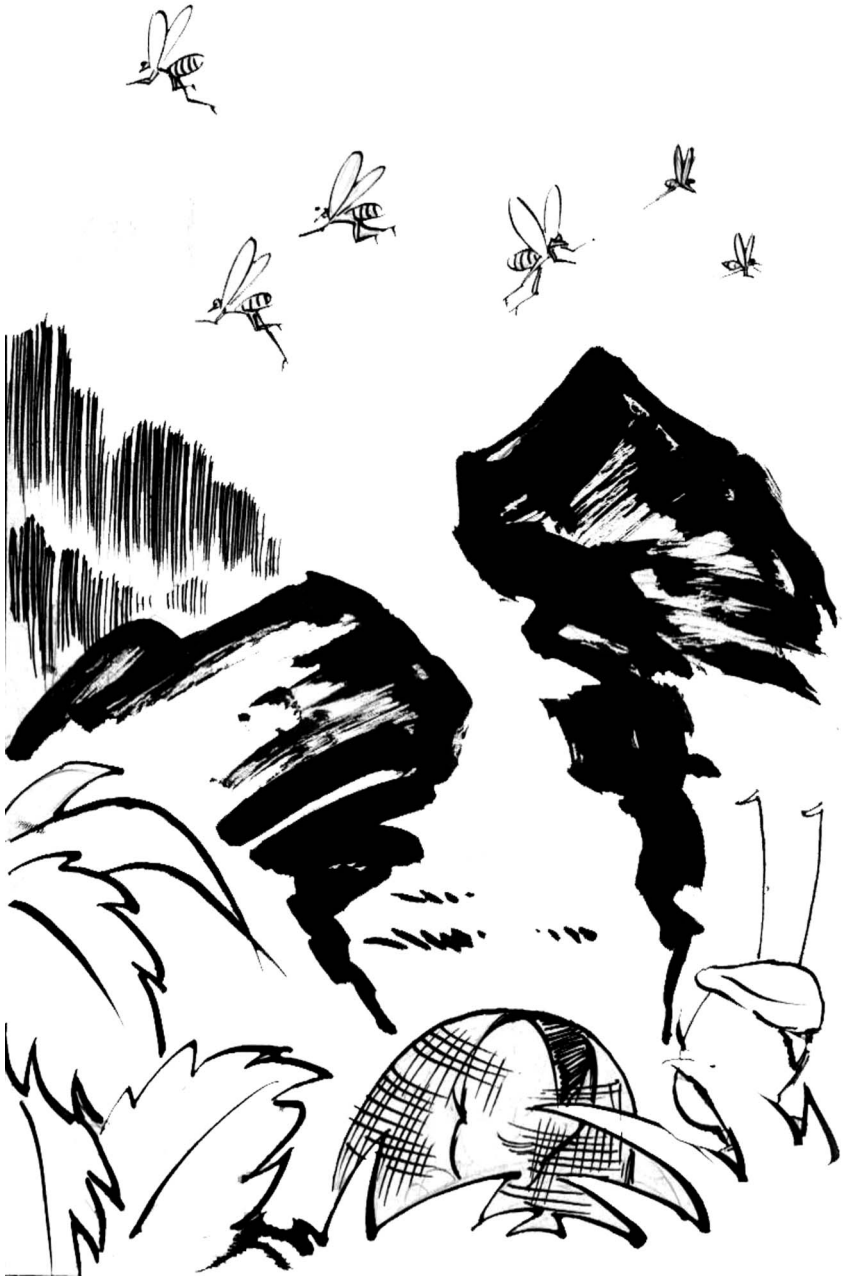
《난 내 그물에 걸려든 놈들을 놓아주는 법을 몰라. 그러단 내가 굶어죽게?》

《우릴 놓아주지 않으면 장수집게벌레님한테 혼날줄 알라!》

《혼날 땐 혼나도 지금은 너희들을 잡아먹어야겠다. 우선 배를 채우고 봐야지. 그리고 걱정말아. 저기 내 줄에 걸리지 않은 놈들이 아직 많으니 그놈들이 쫓아갈게다.》 하고 숲거미는 모기들을 하나하나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줄에 많은 모기들이 걸리게 해준 개미들을 고마와하는것 같기까지 했습니다.

또 빨룩이네로서는 숲거미가 그렇게 탐욕스런 놈인것이 다행이였습니다. 숱한 모기들을 잡아죽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뒤에는 아직 거미줄에 걸리지 않은 모기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악을 쓰며 따라왔습니다.

모기들은 어느새 그들의 앞으로 가서 까맣게 뭉치더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빨룩이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끝장이구나.》

이때 여물이가 번개처럼 땅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여물이는 급히 돌바위짬으로 빨룩이를 끌어들였습니다.

모기들은 갑자기 사라진 그들을 찾느라고 사방에서 앵앵거리고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을가?》

《이상한데? 빨리 찾아보자.》

돌바위우에서 그들을 찾는 앵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물이와 빨룩이가 돌바위밑에 몸을 숨긴지도 퍼그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기들은 물러갔는지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귀따갑게 들려오던 앵앵소리가 조금 즘즛해졌습니다.

이따금 부는 바람에 풀대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휴— 휴—》들려올뿐이였습니다.

《모기들이 물러간것 같구나. …》

빨룩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물이가 대답했습니다.

《물러갔을거야. 모기는 바람을 싫어한단다. 바람소리가 들리지?》

빨룩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좀 있다가 나가자. 혹시 한두놈이 지켜 있을수도 있으니까.》

여물이가 덧붙였습니다. 모기들이 덤벼드는것도 야단이였지만 그놈들이 달려가 도루래같은 놈들을 불러오면 더 큰일이였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있었습니다.

빨룩이는 동산에 돌아가는것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영영 다시는 만날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왕개미엄마와 그리운 형제들과 만나는것은 기뻤으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번데기가

된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물이는 소곤소곤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없어진 날부터 온 동산이 법석 끓었단다. 온 동산이 잠을 못잤단다. 왕개미엄마는 목이 쉬도록 너를 불렀지.
우리들은 일도 못하고 너의 냄새향만 찾아다니고… 그런데 신통하게도 달룩형님의 냄새향이 사라진 노루발풀숲에서 너의 냄새향도 사라진것을 알게 되였단다. 콩제비꽃나무잎에 써놓은 너의 글도 발견하구…
왕개미엄마는 이것이 할미꽃동산놈들의 작간이라는것을 짐작하게 되였단다.》
그제서야 빨룩이는 감감 잊고있던 달룩형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빨룩이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얘, 달룩형님도 이 동산에 있단다. 내가 봤어. 달룩형님도 데리고갔으면…》
여물이는 대답을 않고 머리만 무겁게 떨구었습니다.
《왜 그러니? 달룩형님의 소식을 아니?》
빨룩이는 가슴이 철렁해 다우쳐물었습니다.
《그래… 그 형님은 잘못되였어.》
《뭐라구?》
빨룩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달룩형님이 잘못되였다구? 그럼 다시는 만나볼수 없단 말이야? 응? 아이구,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달룩형님— 달룩형님—》
빨룩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목놓아울었습니다.
《아, 달룩형님은 나때문에 그렇게 되였어. 내가 죽어야 해. 난 죽을테야. 내가 무슨 낯으로 동산으로 돌아가 왕개미엄마랑 동무들이랑 만난단 말이야. …》
빨룩이는 엉엉 울며 태질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물이가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면 돼. 그게 달룩형님에게 용서를 비는 길이구. …》

《난 이번에 제맘대로 산다는게 얼마나 나쁜건지 똑똑히 깨달았어.》

《너때문에 온 동산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더구나 나쁜 놈들이 우리 동산을 노리고 그런짓을 하니까 동산은 위험해졌지. 그래서 우린 동산을 옮기였단다. 꿀창고도 옮기고.》

빨룩이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뭐 동산을 옮기였다구? 난 꿀창고략도를 그려내라는것을 끝내 안대주었어. 그래서 번데기벌까지 받았던거야.》

《난 네가 그럴줄 알았어. 그러나 만일을 생각해서…》

여물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빨룩이 역시 따져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사라져버린 그를 동산에서 어떻게 믿을수 있겠습니까. 제멋대로 사는 세상의 꾀임에 빠져 떠나간 그를 말입니다. 아마 빨룩이였대도 믿지 않았을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나빴다는것을 빨룩이는 더욱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온 동산에 불안을 주고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니 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왕개미엄마랑 개미학교 선생님이랑 형님들이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말뜻을 이젠 알겠어. 모두와 함께 움직이는것이 우리 동산을 지키고 우리들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난 똑똑히 알게 됐어.》

여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옳아. 우리가 규률을 잘 지켜야 동산의 행복도 지키고 우리모두의 행복도 지킨단다. 나의 행복도, 너의 행복도…》

그 말은 빨룩이의 가슴을 한없이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기에 자기는 이런 고생을 겪은것입니다. 번데기로까지 되여버리구요.

집단을 떠나서는 자기도 지킬수 없다는것을 빨룩이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난 그 진리를 우리 동산의 동무들에게 말해주겠어.》

《그래. 우린 모두가 그걸 알아야 해. 후에 태여나는 동생들도 말이야. 그러면 우리 나리꽃동산은 더 살기 좋은 동산이 될거야. 꼭 이야기해.》
《내 이야기를 모두 들어줄가?》
《들어주지 않구.》
《…》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물이도 빨룩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빨룩이는 말했습니다.
《여물아, 너 자니?》
《아니, 왜 그러니?》
《내가 이제 이 몰골로 어떻게… 동무들을 보겠니. 난 이렇게는 정말 나타날수 없어.》
《무슨 소릴 하니? 이제 다 제대로 될거야.》
《어떻게?…》
《우리 동산이 다 달라붙으면 못할 일이 있니? 네 모습도 원래대로 되게 할수 있어.》
《그럴가?》
《그럼!》
《그런데 내 몸을 감싼 이 풀은 무슨 풀이냐. 이런 신기한 풀은 어디서 났니?》
빨룩이는 아까부터 물어보고싶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 풀은 끈끈이주걱이라는 풀이다. 우리 개미들도 그렇고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모르고 달라붙으면 잎을 오무라뜨려 온몸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무서운 풀이란다.》
《뭐?》
빨룩이는 온몸이 오싹하여 눈을 둥그렇게 뜨고 겁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물이는 웃었습니다.
《걱정말아. 이 잎은 이미 줄기에서 떨어져나왔기에 죽은 풀이나 같애. 네가 달라붙어도 영양분을 빨아내지는 못한다.》

빨룩이는 감탄했습니다.

《여물아, 넌 그걸 다 어디서 알았니?》

《일하면서 배웠단다. 이런 풀은 진펄에서 산단다. 진펄을 다닐 때 이런 풀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배워주었단다.》

빨룩이는 여물이가 형님같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도 신비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가 그렇듯 귀중한것을 배우며 어른으로 자랄 때 자기는 동산을 떠나 번데기가 되였으니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빨룩이는 여물이가 한없이 돋보였습니다. 그앞에서 자기는 조그만 막내동생같았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모기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또 떠나보자. 이제는 단숨에 날아가야지!》

여물이가 형님처럼 말했습니다.

먼저 바위틈에서 나온 여물이는 또다시 빨룩이를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날씨는 청청 맑았습니다.

날아가기에는 참으로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아오르자 풀숲에서 앵앵소리가 울렸습니다.

《나타났다!— 저기 있다!—》

그러자 풀숲에서 모기와 풀미끼들이 왁—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대로 돌아가면 장수집게벌레한테 혼나겠고 (할미꽃동산에서는 혼난다는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였으니까요.) 또 지치기도 하여 밤새 풀숲에서 잠을 잤던것입니다.

《이거 야단났구나! 여물아, 너 혼자라도 빨리 도망쳐라!》

여물이는 모기와 풀미끼들속을 헤치고 날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빨룩이는 《난 널 버리고 도망칠수 없어. 죽는다해도!》 하는 말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콱 앞을 가리웠습니다.

그사이 모기떼와 풀미끼들은 까맣게 뭉쳐 그들의 앞을 담벽처럼 막아섰고 숱한 놈들이 여물이의 날개와 몸뚱이에 달라붙었습니다.

여물이는 앞이 막힌데다 날개와 몸뚱이가 무거워져 더 날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차 아래로 떨어져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물아! 날 내려놓고 가라는데. 너까지 죽을수 있어!》

그때 갑자기 《이놈들아!—》 하는 웨침소리가 울리며 모기와 풀미끼들이 여물이의 몸에서 떨어져나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빨룩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마리의 날개달린 개미가 모기떼와 풀미끼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구원한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가 누구겠습니까? 빨룩이는 자기의 눈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랑이였던것입니다.
허약하고 겁이 많다고 깔보고 비웃었던 노랑이가 그를 구원하려 수개미의 날개를 달았고 목숨을 걸고 달려온것이였습니다. 빨룩이는 목이 메여 소리쳤습니다.
《노랑아!》
노랑이는 빨룩이에게 머리를 끄덕여보이고 모기떼와 풀미끼들을 마구 치고 깨물고 하였습니다.
여물이는 다시 날아올라 그를 따라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기떼와 풀미끼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여물이와 노랑이의 힘만으로는 물리치기 어려웠습니다. 더우기 여물이는 빨룩이를 감은 풀대를 물고있었기에 싸울수 없었습니다.
그냥 날아가기도 힘겨운 일이였습니다.
그때 노랑이가 소리쳤습니다.
《봉봉아! 우릴 좀 도와줘!》
부지런한 봉봉이네 부대가 아침 첫꿀을 따려 꽃을 찾아 무리지어 날아가고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영문인가 알아보려 빨룩이네에게로 날아왔습니다.
노랑이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할미꽃동산에 잡혀갔던 빨룩이를 찾아오는데 이것들이 도로 끌어가려고 달려들어서 그래! 좀 도와주렴!》
《뭐라구? 할미꽃동산으로?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얘들아, 우리 이애들을 도와주자!》
그러자 봉봉이네 무리가 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모기와 풀미끼들은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아이쿠! 야단났구나!》
《앗!》
그것들은 봉봉이네와 맞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모기들한테도 침은 있었지만 그것은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데나 쓰는 침이였습니다.

그러나 봉봉이네들의 침은 사나운 곰이나 승냥이놈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하는 진짜 창검이였습니다.

또한 봉봉이네들은 그 단결 역시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무리로 달려들면 도망치지 않고 견디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땅에서 개미들이 무리싸움의 명수라면 하늘에서는 벌들이 으뜸가는 명수들이였습니다.

놈들의 한무리가 죽어서 땅에 떨어지고 한무리는 꽁지가 빳빳하여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제는 거침없이 동산으로 날아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봉봉아, 정말 고맙다!》

《잘 가라!―》

봉봉이네들은 꽃을 찾아 날아가고 여물이와 노랑이는 기세드높이 나리꽃동산으로 날아왔습니다.

나리꽃동산이 보였습니다. 빨갛고 노란 꽃들이 가득 피여나 동산은 더욱 아름다왔습니다.

동산앞에는 개미들이 오구구 모여있었습니다. 온 동산의 개미들이 다 모인듯 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만 쳐다보던 개미들이 여물이를 먼저 발견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여물이가 돌아왔다!》

여물이가 내리는 순간 마당에 가득 찼던 개미들은 순간에 쫙 흩어지며 둥그런 자리를 냈습니다.

《빨룩이와 달룩인 어떻게 되였니?》

개미들이 물었습니다.

《이 하얀 번데기는 뭐냐? 나비알이냐?》

《아직 살아있더냐?》

《나비알은 왜 가지고왔대?》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것 같았습니다.

여물이는 쓸쓸히 대답했습니다.

《이 하얀 번데기는 나비알이 아니라 빨룩이란다.》

《아니, 뭐라구?》

어떻게 설명할수가 없어 머뭇거리는데 왕개미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여물이가 돌아왔다지. 정말 수고했다. 정찰을 보냈는데 아

예 빨룩이를 구원해왔구나. 용타.》
개미들은 다가오는 왕개미엄마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여물아, 그래 그애가 어디 있니? 응? 어디 있어?》
여물이가 머뭇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이애가 빨룩입니다.》
《아니, 뭐, 뭐라구?》
왕개미엄마는 여물이가 가리키는 하얀 번데기를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여물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할미꽃동산의 놈들은 장수꿀창고의 략도를 그려주지 않으니 끝내 빨룩이를 하얀 번데기로 만들었다고말입니다.
왕개미엄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못된 놈들이구나.》
왕개미엄마는 빨룩이의 몸을 이윽토록 내려다보았습니다.
《끔찍하구나. 우리 빨룩이를 이런 몰골로 만들다니…》
왕개미엄마는 번데기속에서 어쩔바를 모르는 빨룩이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느라니 얼마나 혼이 났겠니.》
빨룩이는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때려도 시원치 않을 자기를 보고 오히려 고생했다고 하니 마음은 더없이 괴로왔고 또 할미꽃동산에서 고통스럽던 나날이 떠오르며 서럽기도 하였습니다.
《왕개미엄마.…》
《됐다, 됐어.… 어서 네 몸을 바로잡아야 할텐데… 어쨌든 네가 돌아왔으니 이젠 됐다.》
왕개미엄마는 병사대장개미를 불렀습니다.
《그놈들이 가만 있지 않을거다. 사소한 이상한 점도 놓치지 말고 경비를 잘 서야겠다.》
《알겠습니다.》

장수집게벌레는 천둥같이 화가 났습니다. 숱한 모기들과 풀미끼들이 따라가서도 잡아오지 못하고 도로 쫓겨왔으니 말입니다. 그 바보들때문에 다 먹게 된 장수꿀을 놓쳐버린것만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를 놀라게 한것은 개미가 수천마리나 되는 나리꽃동산에서 달룩이와 빨룩이가 없어진것을 두고 그렇게 소동을 부리고 찾으러 나섰다는 사실이였습니다.

한두마리쯤 없어진다면 무슨 주의를 끌가 하고 생각했던것이 잘못이였습니다. 할미꽃동산에서는 누가 옆에서 죽거나 없어져도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미동산도 그러려니 했는데 그만 실패한것입니다. 잡아온 놈들이 나리꽃동산략도를 그려주면 총공격을 들이대여 꿀통을 차지하려고 생각했댔는데 그 계획이 그만 랑패를 본것입니다.

일이 안되려니 달룩이도 죽었고 빨룩이는 개미놈들에게 도로 빼앗겨버린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울화가 터졌습니다. 이제보니 빨룩이라는 놈이 개미동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던 모양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씨근대던 장수집게벌레는 성이 조금 가라앉자 문득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빨룩이가 개미동산에서 그렇게 중히 여기는 놈이라면 희망이 다 없어졌다고 할수는 없었습니다.

개미동산에서 그처럼 귀히 여기는 빨룩이가 흰 번데기가 되였으니 그곳에서는 그를 반드시 도로 개미로 만들려고 할것이고 그럴려면 할미꽃동산에 손을 내밀게 될것입니다.

할미꽃동산에 손을 내밀었을 때 장수꿀을 주어야 개미로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될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자!》

장수집게벌레의 기분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어떻든 장수꿀은 기어이 먹어야 했습니다.

장수꿀을 먹지 못하게 되면 끝장이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다시는 꽃피고 잎돋는 새봄을 볼수 없을것이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울분이 치밀어올랐습니다.

《아이구, 원통해라. 그 미물같은 쪼꼬만 개미가 글쎄 10년을 사는데 내가 그놈들의 절반에 절반도 못살다니…》

그때 도루래가 들어왔습니다.

《장수집게벌레님, 뭘 그럽니까? 또 몇놈 잡아옵시다. 원.》

장수집게벌레는 와락 성을 냈습니다.

《야, 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빨룩인지 뭔지 하는 놈을 놓친 주제에…》

《흥, 오히려 잘된줄 알라요. 그놈은 가야 해요. 그렇게 된 몰골을 직접 봐야 더 겁이 나서 장수꿀을 내놓으라면 내놓지요. 보지 못하고서야 번데기로 변했는지 하루살이로 변했는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 말도 그럴듯했습니다.

《꾸물거릴것없이 개미동산에 쳐들어갑시다. 위협해서 빼앗아내거나 안되면 들이쳐서라도 빼앗아냅시다!》

《흠, 그건 그렇지만 나리꽃동산 개미놈들이란게 여간 악종들이 아니야. 한덩어리가 되여 싸우는 놈들이거던. 그런데 우리 동산 놈들이란게 모두 제각기 제 맘대로이니… 몽땅 떨쳐나서야겠는데… 말을 들을가?》

《말을 듣게 해야지요! 아 장수꿀을 빼앗아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놈이 싫다겠어요?》

《좋아, 그럼 다 모이게 해라.》

도루래는 뿔나팔을 들고 대문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미꽃동산의 곤충들아, 모두모두 모이라! 개미동산으로 쳐들어가서 장수꿀을 빼앗아내자! 모두 무기들을 벼려들고 나오라. 노린재와 방구퉁이는 방구대포를 끌고나오고 모기는 독침을 벼려들고 나오고 귀뚜라미와 매미네는 소리대포를 끌고나오라.

우리가 오래오래 살자면 이길밖에 없다. 우리의 명은 여름이 끝나면 끝장나게 된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바엔 한번 싸워보자!

이기면 장수꿀이요, 오래오래 살수 있다! 모두모두 나오라. 빠지는 놈에게는 장수꿀을 한방울도 주지 않는다―! 물기 잘하는 벼룩이, 빨기 잘하는 돌드레, 독이 많은 독거미, 다 어디 있느냐?》

그러자 곤충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는 놈도 오고 뛰는 놈도 오고 나는 놈도 왔습니다.

뽀얀 먼지구름인가 하여 보니 모기와 풀미끼였고 검은 연기인가 하여 보니 쉬파리떼였습니다.

창문밖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던 장수집게벌레는 흐뭇하여 중얼거렸습니다.

《흠, 많기도 하구나. 우리 동산에 곤충들이 저렇게도 많았나. 좋아, 좋아! 보기만 해도 개미놈들이 겁을 먹을게거든. 이런 위력앞에서 감히 뻗대볼 놈이 누가 있을라구? 잘만 하면 싸우지 않고도 장수꿀을 뺏아낼수 있을게다!》

사기가 난 장수집게벌레는 갑옷을 떨쳐입었습니다. 집게턱과 집게발도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도루래를 칭찬하였습니다.

《좋아좋아. 저것들을 모두 이끌고 떠나자. 개미동산을 단숨에 덮쳐버리자! 대렬은 네가 인솔해라!》

장수집게벌레가 내세워주는 바람에 우쭐해진 도루래는 앞에 나서서 고래고래 소리질렀습니다.

《자, 맨 앞줄에는 모기와 풀미끼부대, 두번째는 쉬파리부대, 다음은 메뚜기와 벼룩이부대, 다음은 돌드레와 독거미부대… 노린재와 방구퉁이부대…》

한무리씩 모여있는 그들을 보느라니 장수집게벌레는 힘이 나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싸울 땐 이렇게 많은게 좋겠지만 장수꿀을 얻은 다음에는 저마다 먹겠다고 달려들테지? 너무 많아. 먹는데서는…)

이것은 적지 않은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곧 위안을 찾아냈습니다.

(괜찮아. 싸우느라면 이것들이 거의다 죽어버리고 얼마 남지 않을거야. … 만약… 싸우지 않고 장수꿀을 얻게 되면? 그때는 한방울도 안주고 나 혼자 다 먹어치워야지!)

그는 마침내 호기있게 소리쳤습니다.

《자, 모두 앞으로! 장수꿀을 향하여 나가자!》

절반이 더 죽는대도 아까울게 없었습니다.

(그게 차라리 더 좋지.)

《앞으로! 앞으로!》

나리꽃동산에서도 잠만 자고있은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들은 할미꽃동산에서 쳐들어오리라는것을 알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찰개미를 통해 그놈들의 수가 무척 많다는것을 알자 어떤 개미들은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안 왕개미엄마는 개미형제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습니다. 굴속에는 개미들이 모여 회의를 할수 있는 큰 방도 있었습니다.

왕개미엄마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할것은 없다. 모기나 풀미끼, 쉬파리따위는 우리의 적수가 될수 없다. 그것들은 땅에서 싸울줄 모른다. 우리가 싸워야 할것은 집게벌레들, 노린재와 도루래 같은 우리의 굴속에로 쳐들어올수 있는 놈들이다. 그놈들과 어떻게 싸울것인가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모두 조용한데 한 형님개미가 일어섰습니다. 볼룩이형님이였습니다.

《난 그놈들을 우리가 원래 있던 굴로 끌고가자는것입니다. 그놈들도 우리가 이곳으로 옮긴것은 모르고있으니 그곳에서 헛되이 헤매다가 아무 소득없이 돌아갈게 아닙니까.》

여러 개미들이 그 생각을 지지하였습니다.

《그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놈들은 골탕먹을것입니다.》

왕개미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나도 그놈들을 그리로 끌고갈 생각을 했다. 그러나…》
웅성거리던 개미들은 왕개미엄마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놈들은 갔다가 또 올것이다. 나는 그놈들을 골탕먹이는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 동산에 쳐들어올수 없게 만들자는것이다.》
《…》
개미들은 서로 마주보기만 하였습니다. 왕개미엄마의 뜻을 알수 없었던것입니다.
왕개미엄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왜 자리를 옮겼는지 아느냐. 놈들에게 잡혀간 빨룩이가 비밀을 말했을가봐이겠니? 아니다. 나는 빨룩이나 달룩이가 죽어도 동산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리라 믿었다.》
《…》
개미들은 모두 조용히 듣기만 하였습니다.
왕개미엄마의 말은 백천번 옳았기때문이였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했던것이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는 개미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여물이도 있었습니다.
(정말 난 생각이 짧아.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동산을 옮긴 소리를 해서 빨룩이를 괴롭혔거든.) 하고 여물이는 자책에 잠겨있었습니다.
왕개미엄마는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둘러 자리를 옮긴것은 큰물이 나면 동산이 잠길 우려가 있기때문이였다. 우리가 물막이뚝을 높이 쌓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안심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옮긴거다.》
개미들은 모두 머리를 들었습니다.
왕개미엄마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얘들아, 내 생각은…》
왕개미엄마는 초롱초롱 빛나는 개미들의 눈동자를 하나라도 놓

칠세라 미덥게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할미꽃동산의 놈들을 그 굴로 끌어오고 장수꿀창고를 찾아 모두 굴속으로 들어가게 하자는거다. 그리고 굴안의 여기저기에 장수꿀을 뿌려놓아 그놈들이 미친듯이 장수꿀창고로 들어갔을 때 물막이뚝을 터쳐놓아 몽땅 물에 잠기게 하자는거다.》

《히야—!》

모두 환성을 터쳤습니다. 이런 엄숙한 모임장소만 아니라면 춤들을 추며 좋아했을것입니다.

왕개미엄마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조는 놈들을 예전의 굴로 끌고오고 한조는 물막이뚝에 대기하고있다가 터뜨려놓아야겠다. 다른 조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나오는 놈들과 굴에서 빠져나오는 놈들을 쳐부셔라.》

《예!》

개미들은 사기충천하여 씩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다시 말을 뗀 왕개미엄마의 목소리는 웬일인지 젖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고 또 이길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모두가 다 귀중하다. 나의 자식은 수천이 되지만 나는 그 수천중에서 누구 하나도 없어서는 안될만큼 귀하고 사랑스럽다. 왜냐하면 하나가 모여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기때문이다. 천이 있다고 하나를 버리면 그것은 천을 다 버리는것과 같단다.

그래서 나는 온밤 생각했다. 어떻게 하든 우리 빨룩이의 모습을 찾아주자고말이다. 어떠냐?》

《옳습니다!》

모든 개미형제들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놈들에게 장수꿀을 좀 주고서라도 빨룩이가 원래 모습대로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누구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왕개미엄마는 대답을 못하는 개미형제들을 둘러보다가 힘들게 입

을 열었습니다.

《그놈들에게 장수꿀을 한방울도 주지 않으려는 너희들의 마음은 나도 리해할수 있다. 그러나 장수꿀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만들수 있지 않니?

하지만 한번 태여난 개미는 두번다시 태여나지 못한다. 더구나 그는 얼마전에 태여난 우리 동산의 막내줄에 속한 개미다. 얼마나 창창한 앞날을 가지고있는 개미냐? 난 그가 자기 모습을 되찾고 한생을 보람있게 살도록 해주고싶구나. 얘들아, 내 심정을 리해해다오.》

뒤에 앉아있던 여물이와 노랑이가 울음섞인 소리로 웨쳤습니다.

《왕개미엄마, 도와주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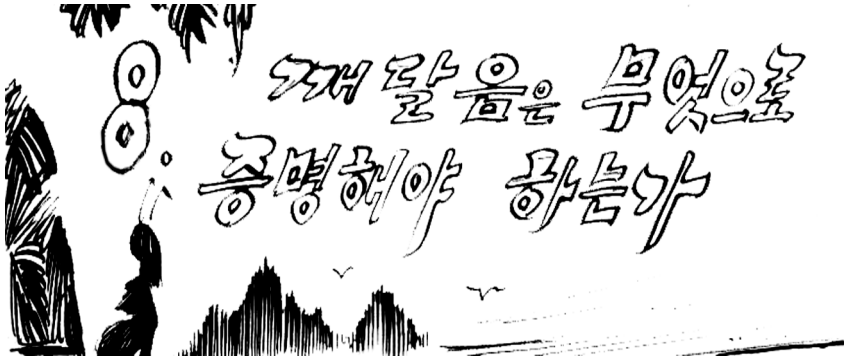
《옳다, 도와주자. 그래서 난 할미꽃동산의 장수집게벌레를 직접 만나자는거다.》

《안됩니다!》

개미형제들은 떠들었습니다.

《그런 일에 왕개미엄마가 직접 나서면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왕개미엄마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장수집게벌레는 내가 직접 나가 말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게다.》

빨룩이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참을수 없었습니다. 자기때문에 그 흉악한 할미꽃동산 놈들에게 장수꿀을 내주게 된다니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장수꿀을 지키기 위해 달룩형은 목숨까지 바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놈들에게 장수꿀을 준다구? 아니, 안될 말이야. 그렇다면 난 달룩형님과 동산앞에 또한번 큰 죄를 짓는것으로 돼.)

그러나 왕개미엄마는 자기를 위해 장수꿀을 기어이 내줄 마음이였습니다.

(어쩌면 좋을가. 어떻게 왕개미엄마를 말릴가?)

빨룩이는 너무 안타까와 대굴대굴 굴었습니다.

그때 보초를 교대하러 나가던 병사개미가 급히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빨룩아, 왜 그러니?》

빨룩이는 생각했습니다.

(난 여기를 떠나야 해.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동산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것이야. 조금이나마 내 잘못도 씻을수 있구.)

이렇게 생각한 그는 다가오는 병사개미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좋은 꾀가 떠올랐습니다.

《형님, 날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냐? 대체 왜 그러니?》
《난 물에 들어가야만 살수 있어요. 그런데 몸에 물이 다 마르니 숨이 탁탁 막히고 죽을것 같아서 그래요. 날 물에 좀 데려다주세요.》
《그래? 그래서 몸부림치댔니?》
《예, 아마 그놈들이 날 그렇게 만들었는가봐요.》
그리고나서 빨룩이는 더욱 다급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 못견디겠구나. 못견디겠어.》
병사개미는 더 생각할사이없이 급히 그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막이뚝 있는데로 다가가 물속에 그를 넣어주었습니다.
빨룩이는 병사개미에게 절절히 소리쳤습니다.
《형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왕개미엄마와 동무들에게 인사를 전해주세요. 더는 나를 찾지 말라구요. 또 장수꿀을 할미꽃동산 놈들에게 한방울이라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해주세요. 이건 나의 마지막부탁이예요.》
병사개미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얘, 넌 무슨 말을 하니? 마지막부탁이라는건 또 뭐냐?》
그러나 빨룩이의 모습도 그의 목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급해맞은 병사개미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얘, 빨룩아, 빨룩아—》
가슴이 철렁해진 병사개미는 급히 굴속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개미들의 모임은 계속되고있었습니다.
병사개미는 왕개미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개미들은 왁작 떠들어댔습니다.
《아니, 그러니 그 제멋대로병이 조금도 낫지 않았었구나.》
《너무하구나. 온 동산이 자길 걱정하고있는데 왜 그애는 그

냥 제멋대로 그러는걸가.》
그때 왕개미엄마가 모두들 조용하라고 하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빨룩이가 제멋대로병에 걸려 간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애는 우리가 자기때문에 장수꿀을 주려고 하는 말을 듣고 사라져버린것이다. 자기는 설혹 번데기로 살다가 죽어도 좋으니 할미꽃동산의 놈들을 깡그리 없애버려달라는 부탁이다. 한놈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쳐부셔달라는 뜻이다.》
《옳습니다!》
여물이와 노랑이가 소리쳤습니다.
《빨룩이는 절대로 제멋대로병에 걸린것이 아닙니다!》
왕개미엄마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빨룩이문제는 싸움을 이기고 다시 토론하기로 하자. 이제 토론한대로 싸움을 벌리자. 다만 장수집게벌레는 산채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그놈에게서 빨룩이를 원래대로 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낼수 있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드디여 개미네 부대들은 싸움터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했습니다.

모두 떠나서 자기 자리를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할미꽃동산의 무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놈들은 멀리서부터 왁작 떠들며 밀려왔습니다.

《야, 왕개미야. 나오라. 우리와 해보자!》

《장수꿀을 내놓아라!》

《우리와 싸워보자!》

왕개미엄마는 매복한 개미들과 함께 그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뽀얗게 밀려온 할미꽃동산의 곤충들로 해서 해가 가리워질 정도였습니다.

노린재놈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장수집게벌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야— 왕개미 나오라! 장수꿀을 내놓겠니? 네 목숨을 내놓겠니?》

다른 놈들도 모두 목소리를 합쳐 소리쳤습니다.

《왕개미 나오라! 장수꿀을 내놓으라!》

개미들은 너무도 분격하여 당장 달려들어 결판을 내자고 웅웅거렸습니다.

그러나 왕개미엄마는 침착하게 정황을 살피고나서 유인부대 개미들에게 출동하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물막이뚝에 있는 부대에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다가 일시에 터뜨려야 한다는

련락을 보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유인부대 개미들은 와—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개미들의 힘을 알고있는 할미꽃동산 무리들은 그 기세에 놀라 주춤했으나 장수집게벌레의 호령에 마주 달려나왔습니다. 장수집게벌레는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야, 저놈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일시에 달려들어 덮쳐버려라!》
할미꽃동산의 무리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개미들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맨앞에 선 놈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있었습니다. 그 놈들은 돌격해서 나가는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대는 바람에 앞으로 나가고있었던것입니다. 누구나 개미들이 싸움을 시작하면 얼마나 사나운지 잘 알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미들이 그들과 부딪치게 되자 얼마 싸워보지도 않고 급급히 물러나 굴속으로 도망쳐들어가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을 본 도루래가 사기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야—! 개미놈들이 도망친다. 쫓아라!》
할미꽃동산의 무리들은 부쩍 힘이 났습니다. 적수가 도망치면 비겁한자도 용감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출입구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주춤거렸습니다.
장수집게벌레가 호령했습니다.
《도루래! 굴안을 정찰하라!》
집게뿔을 쳐들고 벌벌 떨며 굴안을 들여다본 도루래는 환성을 올렸습니다.
《몽땅 도망치고 한놈도 없다!—》
그리고는 장수집게벌레한테 말했습니다.
《굴안에서 장수꿀냄새가 푹—푹— 납니다!》
《그래?》
장수집게벌레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개미놈들은 깊은 굴속으로 도망쳤다. 빨리 굴속으로 들어가자!

저안에 장수꿀이 있다!―》

그러자 굉장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개미들이 도망치고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에 용기가 생기고 장수꿀이 있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트인 할미꽃동산 무리들이 일제히 출입구로 밀려들었던것입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고 닥치고 할 때 장수집게벌레는 문득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놈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 장수꿀창고를 발견하면 다투어달려들어 한방울도 남기지 않고 죄다 먹어버릴것이 뻔했던것입니다. 그것들이 장수집게벌레의 몫을 남겨둘리 만무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어물대다가는 장수꿀을 맛도 못볼수 있었습니다.

《안되겠다!》

장수집게벌레는 더는 호령만 내리고있을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졸병들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

굴안에서 풍겨나오는 장수꿀냄새에 더는 참고있을수도 없었습니다.

《이놈들아, 길을 내라! 내가 들어가보아야겠다!》

장수집게벌레는 굴아구리에 오구구 몰켜있는 놈들을 밀어던지고 굴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무리들도 질세라 굴이 미여지게 꾸역꾸역 밀려들어갔습니다.

그때 흰 번데기가 된 빨룩이는 물막이뚝너머의 물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때문에 그 증오스러운 놈들에게 장수꿀을 얼마라도 준다는것은, 더우기 그놈들과 흥정해야 한다는것은 참을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아. 그놈들만 쳐부실수 있다면!)

그는 자기를 안타까이 찾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기에 대한 걱정때문에 중대한 싸움이 지체되지 않기만 바랐습니다.

깊이 숨어있던 그는 물막이뚝에서 모래바위와 흙탕물이 물속으로 뚤렁뚤렁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일가?)

그는 물우로 조심스레 솟구쳐올라왔습니다.

개미형제들이 땀을 빨빨 흘리며 뚝을 파헤집고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왕개미엄마의 신호만 떨어지면 터뜨릴수 있게 준비돼야 해!》

《싸움이 우리에게 달렸어!》

빨룩이는 그들이 왜 뚝을 터뜨리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싸움만 벌어지면 뚝을 터치며 할미꽃동산 놈들을 몽땅 물에 잠그어버릴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물막이뚝을 터뜨리는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숱한 개미들이 흙과 모래를 물어다 품들여쌓은것이다보니 허무는것이 쌓는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여물이와 노랑이는 하늘공중에 떠서 왕개미엄마의 신호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신호만 내리면 지체없이 전달하려고말입니다.

《영차! 영차!》

개미들은 모래바위를 파내여 올리고 흙을 파헤집었습니다.

빨룩이는 그것을 보기만 하자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자기는 팔도 다리도 없는 몸이 되고보니 그들을 도와줄수 없었던것입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뚝을 터뜨리라는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미들은 굵은 모래알을 뽑아내느라고 애쓰고있었습니다. 모래알이 작기는 하나 개미들에게는 아름드리 바위돌과 다름없었습니다.

여물이와 노랑이는 할미꽃동산 놈들이 굴속으로 몰려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개미들은 더욱 조급하여 서둘렀습니다.

빨룩이는 보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그는 개미들의 손에서 끄떡도 않는 모래알을 힘껏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져나가는듯 아팠으나 모래덩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온몸이 산산쪼각이 나도록 들이받았습니다.

《빨룩이다!》

《빨룩이가 나타났다!》

《빨룩아, 빨룩아.》

그를 제일먼저 발견한것은 하늘공중에 떠있던 여물이와 노랑이였습니다.

빨룩이는 대답대신 큰 모래를 들이받기만 하였습니다. 세번, 네번, 열번… 온몸이 저려들고 머리가 뗑해왔습니다. 몸은 저도모르는 사이에 물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빨룩아, 빨룩아!》 하고 부르는 형제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리

서 들렸습니다.

(내가 죽는게 아닐가. 아니, 죽어도 저 물길을 열어야 해! 저놈들을 모조리 쓸어내야 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빨룩이는 있는 힘을 다 모아 물에 떠오르며 모래알을 또다시 쿵—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야! 움직인다!》

형제들의 환성이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모래알을 들이받았습니다. 마침내 뽑혀나온 모래알은 툴렁 물속으로 떨어져내려왔습니다.

《됐다, 물길이 열렸다!》

동무들은 다시 환성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신호만 오면 물목을 터뜨려놓을수 있게 되였던것입니다.

빨룩이는 자기에게로 내민 손들을 보았습니다.

《빨룩아! 이 손을 잡고 나오라! 어서!》

다음순간 빨룩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몸에서 불쑥 팔이 생겨나 자기 생각대로 동무들에게로 쑥 내밀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팔이 생겼다! 나에게 팔이 생겼다!》

그러고보니 다리도 어느사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생긴것이 아니였습니다. 번데기의 막이 모래알에 계속 부딪치는 바람에 찢겨지고 터져버렸던것입니다.

빨룩이는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드디여 다시 개미로 된것입니다. 번데기의 허울을 벗어던진것입니다.

《야, 빨룩이가 제모습을 찾았다!》

너무 기뻐 날개를 파득거리던 여물이는 이 소식을 왕개미엄마에게 알리려고 쏜살같이 날아갔습니다.

뒤미처 노랑이가 뚝으로 기여오른 빨룩이를 데리고 왕개미엄마에게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개미엄마는 노랑이와 함께 온 빨룩이를 보자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빨룩아.》
왕개미엄마는 빨룩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빨룩이는 눈물을 흘리며 왕개미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왕개미엄마는 빨룩이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하다, 장해. 네가 끝내 네스스로 제모습을 찾았구나.》
《왕개미엄마, 글쎄 빨룩이가 물속에서도 큰일을 했어요. 모래바위를 계속 짓쪼아 끝내 물길을 열었어요. 그때 번데기의 허물이 벗겨졌답니다.》
그러자 왕개미엄마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얘가 다시 제모습으로 돌아올수 있은것은 모래바위가 번데기의 허물을 찢어버렸기때문이 아니다. 기어이 개미로 살려는 빨룩이의 마음이 그 허물을 찢어버린것이다. 우리 개미들을 어떤 놈이 감히 번데기로 되게 할수 있단 말이냐?》
《옳아요, 옳아요.》
왕개미엄마는 빨룩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우리 동산이, 이젠 네가 말할 때가 된것 같구나.》
빨룩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고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왕개미엄마, 이 세상에서 우리 동산이 제일이예요!》
왕개미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다, 얘들아. 명심하자! 빨룩이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찾은 이 교훈을 우리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동산을 지켜내려고 목숨까지 바친 달룩이의 넋을 우리모두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자.》
그리고나서 왕개미엄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장수집게벌레놈과 흥정할 필요도 없고 그놈을 사로잡을 필요도 없다. 모두 쓸어버리자!》
왕개미엄마는 소리쳤습니다.
《물막이뚝을 터뜨려라!》
여물이는 물막이뚝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　　　　　　×

물막이뚝이 터졌습니다.

굴속으로 물이 콸콸 쏟아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미꽃동산의 무리들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아이구, 야단났다!》

《물, 물이다!》

《아이구, 아푸— 아푸—》

물은 사정없이 쏟아져들어왔습니다. 점점 더 사납게 몰려들어왔습니다. 깊은 굴속에서 서로 비비닥거리는 할미꽃동산의 무리들은 어쩔수없이 물속에서 제대로 허우적거리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장수집게벌레는 가슴을 쳤습니다.

《아, 5년, 10년을 살려다가 이 여름도 채우지 못하고 죽는구나!》

도루래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가을까지는 살수 있는건데…》

아무리 가슴을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때늦은 후회의 말도 다 할사이없이 물이 그들을 삼켜버렸던것입니다.

이렇게 꿀창고에 몰려들었던 할미꽃동산의 《제맘대로》부대는 몽땅 다 죽고말았습니다.

그러면 굴밖에 있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였을가요?

그들의 운명도 다를바 없었습니다. 아니, 더 비참했습니다.

굴밖의 땅에 내려앉아 와글거리던 그들은 왈칵 넘치는 물에 날개도 몸도 다 젖어 날아나지 못하고 물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했습니다.

《아푸—! 어푸—!》

기슭으로 기여나온 놈들은 용감한 개미부대의 창에 어느 한 놈도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놈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터진 물곬을 따라온 물고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붕어며 날치, 송사리들은 더미더미로 뭉쳐 허우적대는 모기며 풀미끼, 쉬파리무리들을 냠냠 닝큼닝큼 삼켜버렸습니다.

얼마후에는 물우에 떠있는 놈들이 한놈도 보이지 않게 되였습니다.

《만세— 만세—》

개미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배부르게 실컷 먹은 물고기들은 높이 떠올라 첨벙대며 개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푸짐한 잔치를 차려주어 정말 고맙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렴!》

《그래그래.》

개미들은 하하 호호 웃으며 붕어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왕개미엄마도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다가 말했습니다.

《자, 이젠 그만 기뻐들 하고 다들 돌아가자! 집을 꾸리고 일을 해야지.》

그리하여 승리한 개미형제들은 왕개미엄마의 뒤를 따라 기운차게 자기들의 새로 꾸린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속에는 빨룩이도 서있었습니다.